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팀 성과평가 보고서**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 사업 분야 | 인문학 | 신청분야 | 한국어와문학 | 단위 | 지역 | 구분 | 교육연구팀 | |
|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 구분 |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 관련분야 | | |
| | |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분류명 | 한국어와문학 | 한문학 | | | | | |
| | 비중(%) | 100% | | | | | | |
| 학과(학부) | 한문학과 | | | | | | | |
| 교육연구 팀명 | 국문)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 영문) East Asian_Local Knowledge Education and Research Team based on the Translation of Classics in Chinese Characters | | | | | | | |
| 교육연구 팀장 | 소 속 | 부산대학교 | | 인문대학(원) | | 한문학과(부) | | |
| | 직 위 | 교수 | | | | | | |
| | 성명 | 국문 | 김승룡 | | 전화 | | | |
| | | | | | 팩스 | | | |
| | | 영문 | Kim seung ryong | | 이동전화 | | | |
| E-mail | | | | | | | | |
|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 구분 | 1차년도 (20.9~21.2) | | 2차년도 (21.3~22.2) | | 3차년도 (22.3~23.2) | | |
| | 국고지원금 | 101 | | 203 | | 203 | | |
| 총 사업기간 | | 2020.9.1.-2027.8.31.(84개월) | | | | | | |
| 평가 대상 기간 | | 2020.9.1.-2023.2.28.(30개월) | | | | | | |
| <p>본인은 『4단계 BK21』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04월 25일</p> | | | | | | | | |
| 작성자 | 교육연구팀장 | | | 김승룡 (인) | | | | |
| 확인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최경민 (인) | | | | |
| 확인자 | 부산대학교 총장 | | | 차정인 (인) | | | | |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 | | | | | | | |

〈보고서 요약문〉

| | | | |
|----------------------|--|-------|-------|
| 중심어 | 한문고전 | 고전번역학 | 동아시아학 |
| | 전통지식 | 로컬문화 | 로컬지식학 |
| | 융합창신 | 한국학 | 미래가치 |
|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 <p>본 교육연구팀은 「인간을 위한 미래 문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人間的_人本的_人性的」 혁신을 이룩할 인재의 양성을 <교육연구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문고전」「고전번역」「동아시아」「로컬지식」 네 가지를 핵심으로 삼아,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p> <p>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교육연구팀은 평가대상 기간동안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정규 교과와 비교과를 연동하여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였다. 또 참여교수진의 탁월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인문교양서 및 한문고전 번역서를 출판하고, 대중 강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였다.</p> <p>그 결과 사업 신청 당시 기대했던 1)한문고전에 대한 자생적 번역교육체계 구축 2)고전 기반 전통지식과 로컬문화의 학지화(學知化) 3)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의 구성 4)지역 중심 고전연구의 자기 동력 확보와 균형 잡힌 학계의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p> | | |
| 교육역량 영역 | <p>본 교육연구팀의 목표는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규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p> <p>첫째, 정규 교과에서는 기존 대학원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2020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2020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은, 「총 41개 교과」에서 「한문학 전공 일반 교과 11개」, 「BK21FOUR 특성화 교과가 30개」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본 대학원 교육과정이 BK21FOUR의 교육연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하고 집중적인 교육 혁신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평가대상 기간동안 실제 운영된 교과 내역은 「BK21FOUR 특성화 교과가 30개」 중 「동아시아 고전번역 8개」, 「로컬지식학 10개」 교과가 개설되어, 총 82명의 대학원생이 이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이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p> <p>둘째, 비교과 영역의 활동으로 “전문가 활용의 세미나와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습동아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17회 개최된 「로컬지식학 세미나」는 로컬리티 이론 전문가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연구자들을 초빙하여 로컬연구에 필요한 현장의 체험, 연구의 문제와 한계, 미래 로컬리티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하였다.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습동아리인 「로컬지식학 스터디_小訥」은 본 교육연구팀이 터잡은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소놀 노상직에 대한 다방면의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로컬 관련 연구실적물(저역서 2건, 논문 9건)이 나왔으니, 이는 본 교육연구팀이 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p> <p>결과적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교육역량 영역>에서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p> | | |
| 연구역량 영역 | <p>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진은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21편의 저역서를 출간하였고, 등재(후보) 학술지에 2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평균 1인당 저역서 저술이 3.5편,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게재가 4.5편 정도이다. 이는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실적을 거둔 것으로, 연구자의 번역·연구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저역서의 경우 사업 신청 당시 기준이 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편과 2편이었던 것이, 평가대상 기간 중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편과 10편으로, 이전보다 실적이 늘었다. 논문 실적 역시 큰 낙차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역량은 앞선 2~3단계 BK21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 되어 왔고, 평가대상 기간동안도 양적으로 안</p> | | |

| | |
|---|---|
| | <p>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고도화되고 있다.</p> <p>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진의 국제화 학술활동은 계획 대비 실적이 다소 미진한 편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봉쇄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 학술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승룡 교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1건)와 사회(1건) 등의 활약을 했고, 중국인 교수와 공동 기획으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1건, 1건 근간예정). 또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 결과와 연계한 교육활동(7건)”을 수행하였다. 이는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에는 포함될 수 없더라도, 국제화 실적 달성을 위한 본 교육연구팀의 노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 계획</p> | <p>본 교육연구팀은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발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보람 있게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년도 계획을 제시한다.</p> <p>1. 연구팀의 미래 목표 달성과정 부문</p> <p>첫째,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의 전국적 네트워크 확충(가칭, 지역고전공유대학 프로그램)</p> <p>둘째,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별도의 특별기획 필요(가칭, 로컬지식학국제포럼 조직)</p> <p>2.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 및 지원 부문</p> <p>첫째, 학부-대학원의 학문시퀀스 정착(멘토링 등)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의 안정적 확보</p> <p>둘째, 학업 성취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철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지원</p> <p>셋째, 진학-과정 이수-수료-학위취득-취업의 연착륙을 위한 학업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p> <p>넷째,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국내의 차원의 교육연구 향상성 완비</p> <p>3. 참여대학원생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부문</p> <p>첫째, 참여대학원생들의 취·창업을 위한 학위논문 철저 지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p> <p>: 참여대학원생들이 졸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학시절부터 학위논문에 대한 연습 환경을 조성하여 수료 후 연구생 기간 내에 졸업을 유도하며, 전공과 관련한 기관에서의 강도 있는 인턴십을 통한 취·창업 기회의 확보 방안 모색</p> <p>둘째, 학문후속세대로서의 연구기회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및 기획프로그램 기획</p> <p>: 졸업을 한다고 해도 한문학 분야에서 정규직을 찾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창업을 하거나 연구재단의 개인과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임. 따라서 졸업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연구재단의 개인연구과제를 수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교육팀 자체로 별도의 공동과제를 기획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p> <p>4. 교육의 국제화 전략 부문</p> <p>현재 국제교류의 대상은 동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음. 차후 동아시아권을 포함하여 유럽권과 미주권 등으로 확대하며, 각 권역(혹은 나라별)로 학술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학술적 시야와 학술적 질을 확보하겠음. 아울러 국제학술지에의 논문투고를 통해 본 교육연구팀의 성과가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5. 참여교수의 (지역)산업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부문</p> <p>첫째, 한문고전과 관련된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 연구: 地·産·學의 융합연구</p> <p>둘째, 인문학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강의 개설: 교양강의 및 전공강의</p> <p>셋째, 한문고전과 전통지식학을 담은 K-MOOC/KOCW 강좌 개설: 시민 강의</p> <p>넷째, 유튜브·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한문고전」·「전통지식학」·「로컬문화」 강좌 개설</p> |

목 차

| | |
|---|-----------|
| I.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 1 |
| 1. 교육연구팀 구성 | 1 |
|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 1 |
| 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 3 |
|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 3 |
|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5 |
|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 5 |
| II. 교육역량 영역 | 18 |
|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18 |
|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 18 |
|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 30 |
| 2.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실적 | 36 |
| 2.1 평가 대상 기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 36 |
|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실적 | 36 |
| 2.3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현황 | 40 |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 42 |
| 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 42 |
|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실적 | 48 |
| 4. 신진연구인력 운용 | 54 |
|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 54 |
|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 61 |
|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61 |
|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 63 |
|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 63 |
| III. 연구역량 영역 | 68 |
| 1. 참여교수 연구역량 | 68 |
| 1.1 연구비 수주 실적 | 68 |
| 1.2 연구업적물 | 68 |
| 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실적 | 79 |
|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84 |
|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84 |
|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 89 |
|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 89 |

〈부록〉 첨부자료

I.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 구성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 | | | | |
|------|-------|-----|---------|-----------------|
| 성명 | 한글 | 김승룡 | 영문 | Kim seung ryong |
| 소속기관 | 부산대학교 | | 인문대학(원) | 한문학과(부) |

<표 1-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팀장 변경 현황

| 연번 | 성명 | 교육연구팀장 수행 기간 (YYYYMMDD-YYYYMMDD) | 변경 사유 |
|----|------|-------------------------------------|-------|
| 1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①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 역량

본 교육연구팀장은 한문고전의 번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적 지평의 학문적 시야를 갖춘 채, 전통지식의 현대화와 로컬문화의 학술자산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학계에서 교육연구력을 인정받은 중견학자이다. 특히 교육차원에서 한문고전 속 미래가치가 인성증진에 주는 영향을 융합 연구하여 논저를 출간했고, 학문적으로 「고전번역학」·「동아시아학」·「로컬지식학」 등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 고전 및 한국고전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면서 플립드러닝 및 K-MOOC사업에도 참여했다. 본 교육연구팀장은 지난 10년간 57권의 저·역서와 32편의 논문을 생산했다.

[표1. 교육연구팀장의 최근 5년간 교유 연구 실적]

| 부문 | 교육·연구 실적 |
|-------------------|--|
| 고전번역학과 고전의 대중화 | 「小坡 吳孝媛 한시의 마음에 대하여 - 시학의 성격과 의경 '怨'을 중심으로 -」(2018), 「槐堂 李曼勝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2018), 「창강 김택영 연구의 새로운 모색 - 인문학자로서의 가능성」(2018), 「赫齋 徐鎭英의 讀金澤榮文隨筆에 대하여 - 滄江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2018), 「고려 후기 지식인 득법:척약재 김구용을 통하여」(2018), 「興象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연구 - 호응린의 評語를 중심으로 -」(2018), 「反求堂 林汝栢의 學的 지향과 시세계의 일 국면」(2019), 「枕山 李洙仁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2020), 「The Korea Magazine 수록 英譯 이규보 한시의 특성과 그 의미」(2020), 「양촌 권근의 악기 천견에 대한 경학적 검토」(2021), 「豫菴 河友賢의 삶과 시세계의 일국면」(2021), 「勅撰漢詩集 『經國集』 所載 悲秋詩 연구」(2021), 「豫菴 河友賢의 持敬의 삶과 經學에 대한 태도」(2021), 「枕山 李洙仁의 인간담론과 인간에 대한 태도」(2021), 「尙州 擎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2022) 등의 논문게재 및 『문화수려집』(2017), 『월봉서원 고문서 해제』(2017), 『한국고전문학작품론4-한시와 한문산문』(2018), 『의령의 인물과 학문4』(2018), 『海外中國古典文學究譯從』(2019), 『(지역)고전학총서]가양시집』(2022), 『『高麗時報』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2022), 「일제강점기 晦峰 河謙鎭의 현실인식을 위한 시론-滄江 金澤榮을 시준점으로」(2022) 등의 저역서 및 논문 출간. |
| 동아시아학과 국제학술성과 | 중국/대만의 국제학회에서 한국고전 및 동아시아 경학[樂記]에 대한 연구 발표, 국내에서 진행한 「2018 동아시아 유학의 고전과 문화」(2018), 「단국대 HK 2차 동아시아 지식인인문학 학술대회 -한중일 지식사회화 양상: 전환기의 체제 정비와 지식」(2018), 「경북대 국문과BK21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2018)의 학술대회, 유럽권 국제학술회의 발표[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 : 「對教育實踐下的漢字教育與《2015教程》的批判性思考: 人性教育分析」, 포즈난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 폴란드 (2023, 온라인)], SCIE급 국제학술지[「EJIM: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2019), 「Is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related to Yin-Yang personality traits?」(2019)], 『동아시아 지식인 |

| | |
|-------------------------|--|
| | 문학의 지평을 탐색하다』(2019), 『인간을 묻다_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2022),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2022) 공동출간. |
| 학제간 연구와 교육연구적 성과 | 「석곡 이규준 연구의 성찰과 모색」(2018), 「한문교육과 고등학생 인성증진 효과 분석」(2019), 「고전지식인의 眼疾과 그 의미에 대하여-눈의 발견, 修養의 방식-」(2019), 「『사기』 「백이열전」에 대한 치유적 독법 - 怨望에 대한 성찰」(2020) 및 한의학·심리학과 융합논문 게재(2017년, 2019년). 융합연구 성과로 『시민의 인성』1(2018), 『시민의 인성』2(2019), 『시민의인성3_조화로운 삶을 위하여』(2020), 『새로 풀어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2022) 간행. 한의학과 전공필수 과목 강의(2018년부터 현재까지). |
| 로컬지식학과 로컬문화 주목 | 남명학연구소 주최 경남학 방면 발표 참여[槐堂 李曼勝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2018), 反求堂 林汝栢의 學的 지향과 시세계의 일 국면(2019)], 의성문화원 주최발표[小坡 吳孝媛 한시의 마음에 대하여 - 시학의 성격과 의경 '怨'을 중심으로(2018)], 『이재학술총서 5-조선 후기 박학지사 이재 황윤석의 생애와 학문-』(2019), 『남명학파의 지역적 전개①-합천지역의 남명학파-』(2019), 『이재학술총서 6 -이재 황윤석 연구의 새로운 모색-』(2020),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력과 과거(이재학술총서7)』(2021). |

위와 같이, 본 교육연구팀장은 최근 5년간 『한국고전문학작품론4-한시와 한문산문』(2018), 『의령의 인물과 학문4』(2018), 『해외중국고전문학구역중(海外中國古典文學究譯從)』(2019), 『경국집』(2022), 『(지역고전학총서)가암시집』(2022), 「『高麗時報』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2022), 「일제강점기 晦峰 河謙鎭의 현실인식을 위한 시론-滄江 金澤榮을 시준점으로」(2022) 등의 저·역서 출간 및 논문을 게재하여 고전번역학에 대한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힘썼으며, 한의학·심리학과 융합 연구 성과로 『시민의 인성』1(2018), 『시민의 인성』2(2019), 『시민의인성3_조화로운 삶을 위하여』(2020), 『새로 풀어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2022) 등의 간행을 통해 인간적·인본적·인성적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을 구현하였다. 또한 중국/대만의 국제학회에서 한국고전 및 동아시아 경학(樂記)에 대한 연구 발표, 국내에서 진행한 「2018 동아시아 유학의 고전과 문화」(2018), 「단국대 HK 2차 동아시아 지식인인문학 학술대회 -한중일 지식사회화 양상: 전환기의 체제 정비와 지식」(2018), 「경북대 국문과BK21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어문학의 생성과 변화」(2018)의 학술대회, 유럽권 국제학술회의 발표[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 :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포츠담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 폴란드(2023, 온라인)], SCIE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Is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related to Yin-Yang personality traits?(2019)」, 공동 출간한 『동아시아 지식인문학의 지평을 탐색하다』(2019), 『인간을 묻다_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2022),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2022) 등 ‘동아시아학과 국제학술성과’ 차원에서 활발하게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의 표에는 없지만 「이재 황윤석의 학술과 사상 학술회의」(2019), 「한국문학회 2019 하계 전국학술회의」(2019), 「남명학연구소 전국학술회의」(2019), 그리고 최근 2023년 1월 7일과 8일 사이에는 대만(臺灣),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어문학국제학술회의(韓國語文學國際學術會議)에 참가하여 국립정치대학 도번루(道藩樓) 224회의실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SESSION 01] 한국문학영역(韓國文學領域, 1월 7일 09:10-11:50)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교육연구팀의 아젠다 구축과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② 교육연구팀장의 행정 역량

본 교육연구팀장은 그간의 풍부한 교육연구사업 경험을 통해 BK21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교육연구팀장이 그동안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력을 제시한다.

[표2. 교육연구팀장의 행정 실적]

| 부문 | 교육연구팀장의 행정 실적 |
|-------------------|---|
| 국가 대형프로젝트 수행 및 참여 | 한국연구재단 번역사업단 연구책임자, 3단계 BK사업팀장, 1단계 HK사업의 고전번역센터장 |

| | |
|------------------|--|
| 국가적 연구정책 참여 기여 |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RB, 학술지평가위원, BK사업 평가위원 |
|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 중국·일본·대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학술포럼 조직, 베이징대 초빙교수 역임. |
| 교내 학술사업 및 기관 운영 | 부산대 교무처장, 부산대 교양교육원장, 부산대 전통의학지식사업단 단장,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 대학원혁신위원회 위원 |
| 한문고전 기반 대중화 기획능력 | 지역 도서관 등에서 『사기열전』, 「치유인문학」, 「한시감상」등 5년간 70회 이상 대중강좌 기획과 강의 |
| 편집위원을 통한 학술행정 기여 | 민족문화(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구(고전번역학회), 동양한문학, 인문과학논총, 동악어문학, 독서치료연구, 공존의 인간학, 포은학연구, 남명학연구 등 |

본 교육연구팀장은 최근 3단계 BK21사업의 사업팀장을 맡아 사업팀이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주었고, HK사업에서 고전번역학센터장으로도 참여했으며, 그 외 다양한 번역사업과 프로젝트 등을 직접 기획 혹은 협업해왔다. 또한 학내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통의학지식 융복합사업단 단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현재 교무처장과 중국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있다. 또한 중국·일본·대만·프랑스·폴란드 등의 여러 유관학과 및 연구기관과 교류/협약을 주도했으며, 지자체의 인문학강좌 기획/강연을 통해 고전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현황

| 연번 | 성명 (한글/영문) | 연구자등록번호 | 세부전공분야 |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 신임교수 | 외국인 | 사업 참여 여부 |
|----|---------------|----------|--------|----------------|------|-----|----------|
| 1 | 강명관 | 10031753 | 한문비평 | 한문비평 | X | X | O |
| 2 | 김남이 | 10032580 | 한시 | 한문산문 한시 | X | X | O |
| 3 | 김성진 | 10051099 | 한문산문 | 한문산문 한문산문 | X | X | O |
| 4 | 김승룡 | 10026019 | 한시 | 한시 한시 | X | X | O |
| 5 | 이준규 | 10037536 | 한국경학 | 한국경학 한문산문 | X | X | O |
| 6 | 정출현 | 10025153 | 한문소설 | 한문산문 한문산문 | X | X | O |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현황

(단위: 명)

| 평가 대상 기간 | 총 환산 참여교수 수 | | |
|----------------------|-------------|--------|----|
| | 기존교수 수 | 신임교수 수 | 합계 |
| 2020.9.1.-2023.2.28. | 6 | 0 | 6 |

<표 1-4>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20년 | 2021년 | | 2022년 | | 비고 |
|-----------|-------|-------|-----|-------|-----|----|
|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 총 참여교수 수 | 6 | 6 | 6 | 5 | 5 | |
| 신규 참여교수 수 | 0 | 0 | 0 | 0 | 0 | |
| 종료 참여교수 수 | 0 | 0 | 0 | 1 | 1 | |

<표 1-5>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변동 내역

| 연번 | 성명 | 변동 학기 | 참여/종료 | 변동 사유 | 비고 |
|----|-----|-----------|-------|-------|----|
| 1 | 강명관 | 2022년 1학기 | 종료 | 명예퇴직 | |

<표 1-6> 교육연구팀 평균 참여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 참여대학원생 수 | | | |
|-----------|----------|-----------------|---------------|----|
|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계 |
| 5개 학기의 평균 | 5 | 20(박사13, 박사수료7) | 12(석사2, 박사10) | 37 |

<표 1-7>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팀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현황

| 연번 | 성명 | 국적 | 학사출신대학 | 공인어학성적 | | 비고 |
|----|-----------------------|----|-----------|-----------|----|----|
| | | | | 국어 | 영어 | |
| 1 | 손핑[손핑, 孫萍, SUN, PING] | 중국 | 부산외국어대학교 | TOPIK(6급) | | |
| 2 | 이단[李L丹, IDAN] | 중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TOPIK(6급) | | |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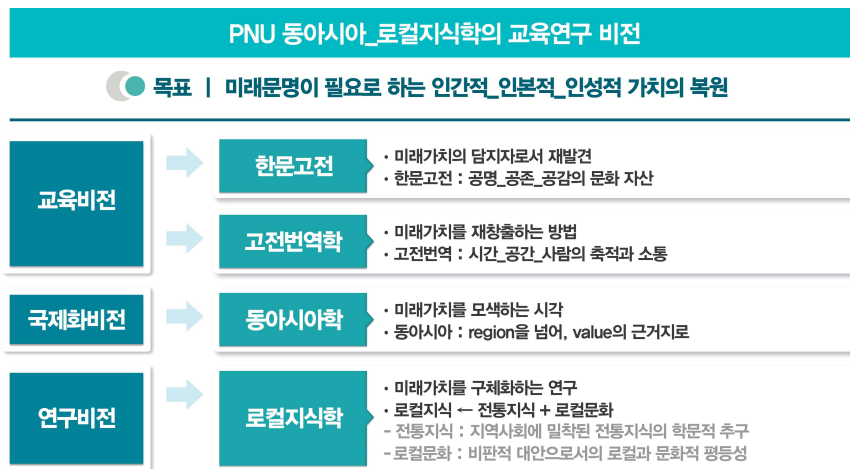
①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제시(교육, 연구, 국제화 등)

본 교육연구팀이 BK21FOUR사업에 신청한 분야는 「미래인재 양성사업」이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 미래 문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人間的_人本的_人性的 혁신을 이룩할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연구비전을 설정하였다. 과연 교육연구팀을 구성하는 한문학과는 이런 비전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한문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한문고전」, 곧 2,500년 넘게 동아시아 문명의 토대가 되었던 한문으로 담아낸 방대한 고전이야말로 21세기 미래문명의 비전을 제시할 인간적_인본적_인성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①-1 교육연구팀의 비전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은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즉 한문고전, 고전번역, 동아시아, 로컬지식으로, 이들은 각각 교육, 국제화, 연구에 상응한다.

[그림1.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 비전]



첫째, 「교육비전」으로서의 한문고전: 공명_공존_공감

미래가치 담지자로서의 「한문고전 재발견」의 교육이다. 한문고전은 공명_공존_공감의 지향을 갖는 텍스트요 문화다. 한문고전에 기반한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사회와 공명하고, 차후 미래를 공명시킬 것이다. 고전은 「시대의 고전」이 아니라 「가치의 고전」이기 때문이다. 즉 시간의 共鳴이다. 또한 한문고전은 한자/한문을 다루는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특정한 역사시기의 특정 국가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 실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로컬에 머물지 않고 세계시민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즉 공간의 共存이다. 한문고전은 한자/한문 문해력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로컬의 문화를 다른 로컬과 소통시켜 하나의 공감을 이뤄낼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넘은, 사람의 共感이다.

둘째, 「교육비전」으로서의 고전번역: 시간_공간_사람의 축적과 소통

미래가치를 재창출하는 「방법으로서의 고전번역학」이다. 우리는 번역을 통하여 과거의 전통지식을 현대인이 원용할 수 있는 지혜로 소통시킬 수 있고, 로컬과 로컬의 문화/문명적 자산을 소통시켜 끝내 사람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소통시킬 수 있다. 번역을 통해 이뤄진 가치의 축적은 미래의 문명적 創新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한문으로 이뤄진 고문헌의 번역(즉 시간의 축적)을 거치고, 공존하는 로컬 기반 고전문화의 번역(즉 공간의 축적)을 관통한 뒤, 과거와 현재의 인간(의 삶)의 번역(즉 사람의 축적)을 거쳐 미래사회의 문명을 창신해 나갈 수 있다. 고전번역은 축적과 소통의 유력한 도구이다.

셋째, 「국제화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 region을 넘어, value의 근거지로

미래가치를 모색하는 「시각으로서의 동아시아학」이다. 동아시아는 서양과 구분되는 주변지역, 아시아의 일부인 「동쪽 아시아」라는 지역(region)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 이곳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정신적 황폐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요, 통제되지 않는 제국주의적 폭주를 제어할 인간적 가치의 보고요 저장소로 간주된다. 특히 우리는 자연과 생태와 인간에 근본을 둔 동아시아의 인문적 가치, 즉 미래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 「가치(value)의 근거지로서의 동아시아」에 주목한다. 이는 아울러 교육연구의 국제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視準이기도 하다.

넷째, 「연구비전」으로서의 로컬지식: 주변공간에서 문화/문명의 거처로

미래가치를 구체화하는 「연구로서의 로컬지식학」이다. 우리는 로컬을 공간에만 한정된 개념을 바라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공간을 장소로 만들며 인간_인본_인성의 지혜를 이루어 온 「그곳 사람」을 正視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로컬을 21세기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문명의 거처」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중심의 권력성을 전복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로컬리티를 모색하며, 문화지식간 평등성을 바탕으로 미래문명사회의 주동력인 로컬지식(Localedge)의 21세기적 창신을 성취한다.

①-2 교육연구팀의 목표

미래문명의 기반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종합적」 「총체적」 「융합적」 시각에서 출발하며, 그곳 사람들의 인간적_인본적_인성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서 완성될 것이다. 이에 본 교육연구팀은 비전의 성공적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한다.

- [1] 한문고전 번역교육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번역
- [2] 동아시아 지평의 학문적 시야와 탈중심적 사유의 확보
- [3] 문학을 넘은 전통지식학의 구성과 신(新)_지식학의 구축
- [4] 로컬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인본적 미래가치의 생산

[그림2. 교육연구팀의 목표]



이 목표들은 각각 첫째는 학문후속세대의 한문고전 번역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비전」, 둘째는 가치의 근거지로서의 동아시아 시야를 확보하는 「국제화비전」, 셋째는 전통시대의 지식을 지금의 학지(學知)로 전변시켜 신(新)_지식학을 구축하는 「연구비전」, 넷째도 로컬에 대한 문화평등적 접근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해내는 「연구비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는 각각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동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범위 규정은 상대적일 뿐이다. 아울러 첫째는 「과거」의 자산에 착목하였다면, 둘째는 「현재」의 시각에 해당하고, 셋째와 넷째는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미래」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네 가지 목표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각각 「고전번역학」, 「동아시아학」, 「전통지식학」, 「로컬문화학」을 학문적으로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융합적 시각을 가진 혁신적 인재」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을 실현한다.

본 교육연구팀이 사업 신청시(2020) 제시한 비전과 목표와 그에 대한 달성 실적을 여러 성과사례를 토대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가. 「교육비전」으로서의 한문고전: 공명_공존_공감의 달성실적

[표3. 평가대상 기간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실적] ■는 2023학년도 1학기 현황임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연구방법론특강 | KC6700741 | 3 | 강명관 | 2020-1 | 7 | 7 |
| 2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2 | 3 | 김승룡 | 2021-2 | 4 | 4 |
| 3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0-1 | 1 | 1 |
| 4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0-1 | 1 | 1 |
| 5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0-1 | 1 | 1 |
| 6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0-2 | 2 | 2 |
| 7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0-2 | 1 | 1 |
| 8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0-2 | 1 | 1 |
| 9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1-1 | 1 | 1 |
| 10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1-1 | 1 | 1 |
| 11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정출현 | 2021-1 | 1 | 1 |
| 12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1-2 | 1 | 1 |
| 13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2-1 | 1 | 1 |
| 14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2-2 | 1 | 1 |
| 15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3-1 | 1 | 1 |

[표4. 평가기간 「교육비전」으로서의 한문고전: 비정규 외부강연]

| 연번 | 일시 | 연제 | 주최 | 참여교수 |
|----|------------|------------------------------------|-------------|------|
| 1 | 2020.09.04 | 1)공자의 군자론과 점필재의 정의 2)13경과 고전해석학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2 | 2020.09.18 | 1)점필재 한시와 도연명 2)주자대전과 조선 성리학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김남이 |
| 3 | 2020.10.15 | 지센린의 '우봉잡역'과 문화대혁명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김승룡 |

| | | | | |
|----|--|------------------------------------|-----------|-----|
| 4 | 2020.10.23 | 밀양에서 경남 실학을 논하다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5 | 2021.03.12. ~2021.06.15 매주(금), 10강 | 동아시아 고전읽기_당신의 감성을 충전해 줄 '내 마음의 한시' | 김해울하도서관 | 김승룡 |
| 13 | 2021.06.03 | 서당의 일상과 풍경(1)(2)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15 | 2021.06.17 | 밀양의 고서와 고문서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16 | 2021.06.24 | 밀양 선비의 일기(1)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17 | 2022.08.02 | 논어, 나의 마음을 해방시키다 | 해운대구청 | 김승룡 |
| 18 | 2022.08.12 | 경남정신의 전형을 찾아서 | 경남문화연구원 | 김승룡 |
| 19 | 2021.10.28 | 소눌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1)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정출현 |
| 20 | 2021.11.11 | 소눌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2)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
| 21 | 2021.12.02 | 근대계몽기의 공부거리 | 점필재연구소 | 강명관 |

나. 「교육비전」으로서의 고전번역: 시간_공간_사람의 축적과 소통 달성실적

[표5. 「교육비전」으로서의 고전번역: 시간_공간_사람의 축적과 소통]

| 연번 | 내용 | 실행 실적 개요 |
|----|---------------------------|--|
| 1 | • 교육과정과 연동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과정생 김가현.이희연.최자은, 박사과정생 강주형.홍지현, 박사수료생 이강석: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총3년) 이수 중 박사과정생 조현석: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전문과정(총5년) 이수 후 전문번역위원으로서 『조선왕조실록』 번역(2023년-1학기 현재) 박사수료생 장미나: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전문과정(총5년) 이수 후 전문번역위원으로서 『조선왕조실록』 번역(2023년-1학기 현재) |
| 2 | • 교육과정과 연동한 참여대학원생 연구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번역 『가암시집』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공동 번역서 출판(김승룡·최금자.지만지한국학.2022) 고전번역+동아시아학+로컬지식학 『고전과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강의』(교육연구팀 기획.참여대학원생 2022.2) 고전번역 『동야휘집』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공동번역 진행 중(김남이·참여대학원생) |

[표6. 「교육비전」으로서의 고전번역 : 대학원 정규 교과 운영 현황]

| 번호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인원 [인수인원] | 실적종류 |
|----|--------------|-----------|----|-----|--------|-------------|------|
| 1 | 동아시아역사자료번역실습 | KC7500581 | 3 | 강명관 | 2021-1 | 5 | 정규교과 |
| 2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 | 김남이 | 2021-2 | 3 | 정규교과 |
| 3 | 고전인문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 | 김남이 | 2022-1 | 2 | 정규교과 |
| 4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 | 이준규 | 2022-1 | 3 | 정규교과 |
| 5 | 동아시아사상자료번역실습 | KC7500583 | 3 | 김승룡 | 2022-2 | 7 | 정규교과 |

[표7. 아젠다 <고전번역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고전번역학 | 호남권 문집 번역의 성과와 과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 김건우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2021년 2월 22일(월) 10:00-12:00 | 온라인 ZOOM (+전주) |

| | | | | | |
|----|----------------|---------------------------------------|----------------------------------|------------------------------------|-----------------|
| 2 | 고전번역학 | 임원경제지 번역사업의 여정과 번역방법론 |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 | 2021년 3월 11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고전번역학 | 한국문집번역의 경험과 제안-점필재연구소의 번역서 몇 종을 중심으로- | 김홍영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 2021년 3월 25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4 | 고전번역학 | 조선왕조실록 재번역의 과정과 방향성 | 정하정 (한국고전번역원) | 2021년 4월 1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5 |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의 대중화 |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2021년 6월 10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6 | 고전번역학 | 중국 고문 읽기와 한국 한문 읽기 | 이주해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2021년 6월 24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7 | 고전번역학 | 『여성생활사자료집』과 여성자료의 이해 | 김경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 2021년 11월 25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8 | 고전번역학 | 『추안급국안』의 번역과 형벌 자료의 이해 | 이항배(충남대, 한문학과) | 2022년 2월 10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9 | 고전번역학 | 『대명률직해』의 번역과 법률 자료의 이해 | 조운선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 2022년 2월 24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0 | 동아시아학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아리웅 바이갈 (몽골, 몽골국립대, 아시학과 한국학) | 2023년 1월 13일(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11 | 고전번역학 |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호칭어 번역 연구 | 동연 (중국, 산둥이공대학교 외국어대학) | 2023년 2월 6일(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14호 |

<한국고전번역원 밀양분원과의 협약 및 학술네트워크 구축>

2022 고전번역교육원 부산밀양분원 신입생 모집

교육목표
고전문헌의 정리·번역·대중화를 위한 인재 양성

모집인원
고전번역연구과정 / 3년과정 / 15명 정원

교육내용
사서양성, 소학, 고문진보, 한시선독, 산문선독, 초서연습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또는 한학자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방식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
* 부산 지역 신입생은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대면 수업**, 부산 이외 지역 신입생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
【입학신청 및 등록에 따라 등록 수업료와 운영료로 합합될 수 있음】

입학원서 접수 및 전형일시

| 구분 | 접수기간 | 전형일시 | 전형장소 | 전형방법 | 비고 |
|--------------|-------------------------------------|---------------------------|-------------|-------------------|-----------------------------------|
| 고전번역 학사과정 | 2022년 1월 3일 ~ 1월 19일 평일 9:00~ | 2022년 1월 23일(일) 09:00~ | 부산대 (현장) | 필기(논어, 맹자, 연필) | 기출문제는 평원대(기출실/시험 자료실) 지류 링크 |

* 자세한 내용은 고전번역교육원 홈페이지(educ.krc.or.kr) 참조

특징

- 1) 입학금 면제
- 2) 입학신청 및 학기별 출결상황에 따라 수업료 면제(분원 규정에 따라)
- 3) 학기별 종합성적에 따라 성적우수자에게는 소정 장학금 지급, 단, 입학 기준 연월이 만5세 이하(공필자 만37세).
- 4) 병역 중에는 입재한 기간 동안 징용특례를 실시

문의처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밀양분원
전화 : 051) 350-5978 / 이메일 : edum@krc.or.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

다. 「국제화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 region을 넘어, value의 근거지로 달성실적

[표8. <동아시아> 연계 <한문고전> 역량 정규 교육과정 운영 현황]■는 2023학년도 1학기 현황임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세미나 | KC7500586 | 3 | 강명관 | 2020-2 | 6 | 6 |
| 2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 | KC7500590 | 3 | 김남이 | 2020-2 | 7 | 7 |
| 3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세미나 | KC7500586 | 3 | 강명관 | 2020-2 | 6 | 6 |
| 4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 | KC7500590 | 3 | 김남이 | 2020-2 | 7 | 7 |
| 5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세미나 | KC7500580 | 3 | 김승룡 | 2021-1 | 5 | 5 |
| 6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번역실습 | KC7500581 | 3 | 강명관 | 2021-1 | 5 | 5 |
| 7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번역실습 | KC7500583 | 3 | 김승룡 | 2022-2 | 7 | 7 |
| 8 | ■동아시아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세미나 | KC7500582 | 3 | 김남이 | 2023-1 | 11 | 11 |

[표9. 아젠다 <동아시아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동아시아학 |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 | 김대열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France) | 2021년 2월 23일(화) 17:00-19:00 (09:00-11:00, in Paris) | 온라인 ZOOM (+Paris) |
| 2 | 동아시아학 | 일본 에도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 | 노경희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 2021년 4월 22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동아시아학 | 동아시아 엑스포의 로컬리티 | 하세봉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 2021년 7월 8일(목) 14:00-16:00 | 온라인 ZOOM |
| 4 | 동아시아학 | 매체로 읽는 조선 후기 한문학: Book History, 디지털인문학, 그리고 파라 텍스트에 관한 학계 동향을 참고로 | 류정민 (연세대, 문과대학) | 2021년 10월 29일(금) 16:00-18:00 | 온라인 ZOOM |
| 5 | 동아시아학 |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 연구 | 류인태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 2022년 12월20일(화) 15:30-17:30 | 부산대 인문대교 수연구동 209호 |
| 6 | 동아시아학 | 동아시아의 한문 원전 정보화 현황 및 미래 지향 - 韓國과 中華圈을 중심으로 - | 양원석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2022년 12월27일(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7 | 동아시아학 | 한자를 통해 보는 권력의 양상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양원석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2022년 12월28일(수)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8 | 동아시아학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아리옹 바이갈 (몽골, 몽골국립대, 아시학과 한국학) | 2023년 1월 13일(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9 | 동아시아학 | 통신사와 한일관계 | 사카이 마사요 (일본, 오쓰마 여자대학교) | 2023년 2월7일(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14호 |

* 김승룡, <동아시아 고전읽기_내 마음의 한시 강좌>

1. 일시: 2021년 3월 12일~5월 14일 (매주 금) 10:00~
2. 방식: 비대면 강연 (김해시 공공예약 포털)
3. 대상: 김해 시민 20명



4. 주최: 김해 율하도서관

5. 강좌내용:

교육연구팀장 김승룡 교수는 김해 율하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1상반기 동아시아 고전읽기-내 마음의 한시-唐宋詩 강독>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전 열렸던 <사기열전> 강좌를 잇는 것으로, 강좌의 수강 대상이었던 김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강좌는 2021년 03월 11일(금)~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COVID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강좌 일정은 3/11~5/14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11~6/15로 진행됨) 강좌의 수강 인원은 20명으로 한정되었지만, 온라인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0. 동아시아 고전읽기 / 당신의 감성을 충전해줄 '내 마음의 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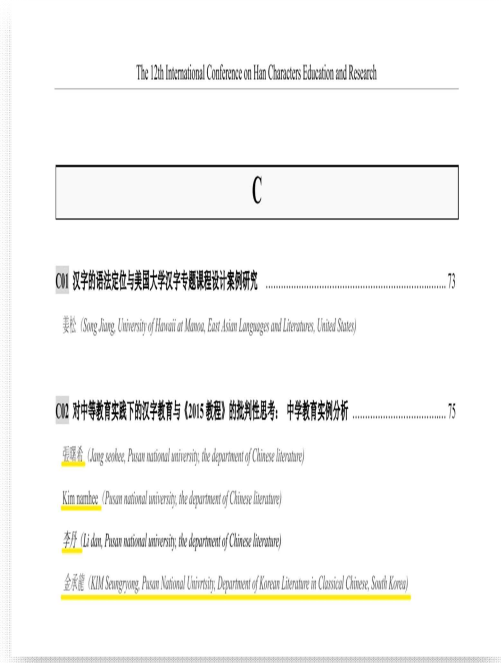
| 연번 | 일시 | 연제 |
|----|------------|--|
| 1 | 2021.03.11 | 내 마음의 한시-<연주시격> |
| 2 | 2021.03.20 | 1)내 마음의 한시-두보, <절구(絶句)> 2)내 마음의 한시-두보, <흥에 겨워(漫興)> |
| 3 | 2021.03.26 | 1)내 마음의 한시-가도, <두가의 정자에 묵다(宿杜家亭)> 2)내 마음의 한시-고섬, <고시랑에게 올리다(上高侍郎)> |
| 4 | 2021.04.02 | 내 마음의 한시-하송, <급제(及第)> |
| 5 | 2021.04.16 | 1)내 마음의 한시-소식, <유경문에게 주다(贈劉景文)> 2)내 마음의 한시-여임당, <가을소리(秋聲)> |
| 6 | 2021.04.26 | 1)내 마음의 한시-여대림, <유호조를 보내며(送劉戶曹)> 2)내 마음의 한시-우혁, <편지를 부치다(寄賧)> |
| 7 | 2021.05.22 | 내 마음의 한시-유극장, <매화를 찾다(訪梅)> |
| 8 | 2021.05.24 | 1)내 마음의 한시-장영, <일사에게 감사하다(謝逸士)> 2)내 마음의 한시-황정견, <포지서당에 쓰다(書醴池書堂)> 3)내 마음의 한시-원보, <매화(梅)> 4)내 마음의 한시-양적, <벼루를 구하다(求硯)> |
| 9 | 2021.06.03 | 1)서당의 일상과 풍경(1) 2)서당의 일상과 풍경(2). |
| 10 | 2021.06.15 | 1)내 마음의 한시-두보, <흥에 겨워(漫興)> 2)내 마음의 한시-황정견, <그림 속의 조는 오리(畫睡鴨)> 3)내 마음의 한시-장호, <장미(薔薇)> 4)내 마음의 한시-증뢰, <강가에서 쓰다(江上卽事)> |

그리고 2023년 2월 5일에는 포즈난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漢字與漢字教育國際研討會]에서 「교육실습에서 한자교육과 《2015 교육과정》

에 대한 비판적 사고 : 인성교육 분석[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라는 주제로 참여대학원생[장서희, 김남희, 이단]과 함께 공동발표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표11. 평가기간(2020.09~2019.12) 국제학술대회 발표]

| 연번 | 참여교수 | 발표주제 | 국제학술대회명 | 연도 | 장소 | 주최 |
|----|------|-----------------------------------|---------------------------|------|-----|--------------|
| 1 | 김승룡 |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 | 2023 | 폴란드 | 漢字與漢字教育國際研討會 |



라. 「연구비전」으로서의 로컬지식: 주변공간에서 문화/문명의 거처로 달성실적

[표12. 전통지식 활용 및 로컬 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운영 현황]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이론의탐구 | KC7500613 | 3 | 김성진 | 2020-2 | 2 | 2 |
| 2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 | KC7500602 | 3 | 이준규 | 2020-2 | 1 | 1 |
| 3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문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9 | 3 | 정출헌 | 2021-1 | 5 | 5 |
| 4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 | 김남이 | 2021-2 | 3 | 3 |
| 5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이론의탐구 | KC7500603 | 3 | 이준규 | 2021-2 | 2 | 2 |
| 6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문학과제실습 | KC7500610 | 3 | 정출헌 | 2022-1 | 3 | 3 |
| 7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문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 | 김남이 | 2022-1 | 2 | 2 |
| 8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 | 이준규 | 2022-1 | 3 | 3 |
| 9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4 | 3 | 정출헌 | 2022-2 | 11 | 11 |

| | | | | | | | | |
|----|-------------|-------------|-----------|---|-----|--------|----|----|
| 10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4 | 3 | 김남이 | 2022-2 | 7 | 7 |
| 11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6 | 3 | 김승룡 | 2023-1 | 6 | 5 |
| 12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문학자료세미나 | KC7500607 | 3 | 이준규 | 2023-1 | 12 | 12 |

[표13. 아젠다 <로컬지식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 연구와 자료 |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1월 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2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 문재원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2월 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로컬지식학 | 영남지역의 로컬 문화권역과 문인군 | 정석태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 2021년 2월 22일 (월) 14:00-16:00 | 부산대 인덕관 소회의실 |
| 4 | 로컬지식학 | 17-8세기 山淸 淸州 지리산 권역의 南冥學派 전개양상 | 강정화 (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 (화) 10:00-12:00 | 온라인 ZOOM |
| 5 | 로컬지식학 | 안동지역의 퇴계학파의 19세기 변모 양상 -響山 李晩燕를 중심으로 | 이규필 (경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 (화) 14:00-16:00 | 온라인 ZOOM |
| 6 | 로컬지식학 | 19세기 말 경남지역의 <神明畵圖銘>에 관한 학술 토론과 시대적 의미 | 전병철 (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4일 (수) 10:00-12:00 | 온라인 ZOOM |
| 7 | 로컬지식학 | 18~19세기 대구권 성리학의 변모 양상 | 추제협 (계명대, 철학윤리학과) | 2021년 2월 24일 (수) 14:00-16:00 | 온라인 ZOOM |
| 8 | 로컬지식학 | 지역에서 만나는 고문서와의 대화 | 손숙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 2021년 5월 6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9 | 로컬지식학 | 부산 지역 전통 문화 연구에 대하여 | 엄경흠 (신라대, 국어교육과) | 2021년 5월 13일 (목) 16:30-18:00 | 온라인 ZOOM |
| 10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라는 환영과 가능성 | 박형준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 2021년 9월 23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1 | 로컬지식학 | 호남의 로컬리티와 고전학: 호남지방문헌의 조사와 정리 과정에 대하여 |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 2021년 11월 11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2 | 로컬지식학 | 안동의 로컬리티와 고전연구 |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 2021년 12월 1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3 | 로컬지식학 | 남명 조식과 <神明畵圖> | 이상필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2022년 8월24일 (수) 14:00-16:00 | 경남 산청선비 문화연구원 |
| 14 | 로컬지식학 | 밀양 지역학에 대한 소고 -점필재와 소년을 중심으로- | 정석태 (점필재연구소) | 2022년 10월13일 (목) 10:00-12:00 | 밀양향교 |
| 15 | 로컬지식학 | 조선조 주자학 세상의 전개와 그 시점 - 점필재 김종직의 <점필재집> 다시 읽기 - | 정석태 (점필재연구소) | 2022년 12월19일 (월) 14:00-16: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서예실) |
| 16 | 로컬지식학 | 영남학이란 무엇인가 | 정우락 (경북대 국문과) | 2022년 12월22일 (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
| 17 | 로컬지식학 | 낙동강 연안지역의 정치학문적 지형과 그 변동의 양상들 |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 2022년 12월23일 (금) 15:00-17:00 | 부산대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이상의 로컬지식학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앞서 공부했던 「동아시아학」, 「고전번역학」의 학습 내용을 대학원생이 직접 채록하고 강연자들의 퇴고를 수렴하여 『고전과 동아시아 로컬_지식학강의』라는 책자(출판사[미다스북스], 2023년 2월 27일자)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학술세미나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교육연구를 위한 자료와 성과가 축적되는 과

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앞으로도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술행사가 학계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1부 고전번역학

1. 호남권 문집 번역의 성과와 과제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 김건우
2. 임원경제지 번역사업의 여정과 번역 방법론 / 정명현
3. 한국문집번역의 경험과 제안
 - 점필재연구소의 번역서 몇 종을 중심으로 / 김홍영
4. 조선왕조실록 재번역의 과정과 방향성 / 정하정
5. 한문고전번역의 대중화 / 장유승
6. 중국 고전과 한국 고전 번역의 접점을 찾아서 / 이주해

2부 동아시아학

1. 헤이안 시대의 幼學書와 句題詩 / 사토 미치오
2. 소라이학파(徂徠學派)의 수사 기법 / 다카야마 다이키
3. 에도·근대일본의 명소를 읊은 시 / 고야마 린타로
4. 燕巖 朴趾源의 단편소설, 한문강의를 통한 불문 번역과 출판 / 피에르 엠마뉴엘 후
5. 조선유학자의 주자학 연구 / 강지은
6. 한시 번역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금지아
7.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 / 김대열
8. 일본 에도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 / 노경희
9. 동아시아 엑스포의 로컬리티 / 하세봉

3부 로컬지식학

1.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 문재원
2. 영남지역의 로컬 문화권역과 문인군 / 정석태

3. 17-8세기 산청 진주 지리산 권역의
남명학과 전개양상 / 강정화
4. 안동지역의 퇴계학파의 19세기 변모 양상
- 향산 이만도를 중심으로 / 이규필
5. 19세기 말 경남지역의 <신명사도명>에 관한
학술 토론과 시대적 의미 / 전병철
6. 18-19세기 대구권 성리학의 변모 양상 / 추제협
7. 지역에서 만나는 고문서와의 대화 / 손숙경
8. 부산 지역 전통 문화 연구에 대하여/ 엄경흠

② 교육연구팀의 현재 및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와 연계한 교육연구팀의 미래 목표

②-1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 결과와 연계한 교육연구팀의 미래 목표

본 교육연구팀은 그동안 해외대학과 학술교류를 진행하면서 확인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BK21FOUR 사업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한문고전의 정리와 번역 교육, 상해사범대의 고전문헌학 정리, 이송학사의 한문해독 능력 교육 방법 등은 본 교육연구팀의 한문전문교육과 전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과의 교류는 각각 동아시아 문명 중심부의 시각, 문명 주변부의 시각, 동아시아에 대한 외부자의 시각을 추론해낼 수 있었다. 아울러 본 교육연구팀의 미래 목표와 관련된 세부 과제를 정리해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4.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과 교육연구팀의 미래목표와 세부과제]

| 아젠다 영역별 | | 벤치마킹대학과 주안점 | | 교육연구팀의 미래목표와 세부과제 |
|--|--------------------|---------------------------------|--------------------------------------|--|
| 한문고전 번역기반 | <四川外大> (중국, 重慶) | -통번역과정과 번역교육 -四川에 밀착된 문화연구 | -번역 및 외국어통역 지원 -지역과 고전의 결합 강의 개발 | |
| | <上海師大> (중국, 上海) | -고문헌학과의 체계적 운영 -문헌학에 대한 소양교육 | -고문헌의 체계적인 교육 -行草書 등 난해한 문장 특별 교육 | |
| | <二松學舎> (일본, 東京) | -한문해독을 위한 전문성 -고전중심의 교육 | -한문번역 전문 코스개발 -고전중심 번역 커리큘럼 개발 | |
| 동 아 시 아 로 컬 지 식 학 | 전통 지식 기반 | <南京大> (중국, 南京) | -域外漢籍研究所 중심 연구 -동아시아 문헌수집 및 정리 | -연구소 활용 집단연구의 활성화 -전통문헌의 수집 및 정리 교육 |
| | | <慶應大> (일본, 東京) | -斯道文庫 중심 문헌교육 -지역기반 일본한문학 특화 | -도서관과 결합한 학술시스템 마련 -지역전통에 대한 전문교육 |
| | | <天理大> (일본, 天理) | -東洋文庫 기반 동아시아연구 -지역문화기반 교육체계 | -전통 동아시아 지식학 자료시스템 구축 -전통지식학에 대한 자기주도적 연구 |
| | 로컬 문화 기반 | <OHIO州立大> (미국, 콜럼버스) | -동아시아학과의 융합적 구성 -소수민족 문화연구 특화 | -융합학을 위한 전문 코스 개발 -로컬문화에 대한 집중탐구 코스 |
| | | <몽골국립대> (몽골, 울란바틀) | -역사기반 동아시아 교류 -고려사와 몽골사의 비교연구 | -전근대 동아시아학 특화 교육 -로컬로서의 한반도 중심 동아시아학 연구 |

| | | | |
|----------------|------------------------|-------------------------------------|---|
| 학문 네트 워크 | <北京大> (중국, 北京) | -중국내 한국학네트워크 구축 -언어교육기반 학술활동 | -한국학 기반 국제네트워킹 모색 -한문고전교육 기반 학술네트워크 구축 |
| | <파리7대> (프랑스, Paris) | -파리한국학네트워크 구성 -東洋語大 도서관 古本室과 연계 | -지역고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고전자료의 공동 연구체제 마련 |
| | <臺灣大> (타이완, 臺北) | -文德書院, 경학_동아시아학 -다양한 전공의 융합적 참여 | -제학문간 융합시스템 추구 -특화된 학문분야의 전문 연구 |
| | <臺灣政治大> (타이완, 臺北) |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학술포럼 -한국어기반 동아시아학 추진 | -학문후속세대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육_연구의 선순환체제 구축 |

이상의 목표와 세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다.

- 1) 중국 중경의 <四川外大>가 추구하고 있는 통번역과정과 번역교육을 모델로 하여, 우리 연구팀에서는 한국문집번역의 원로이신 김홍영 선생님[2021년 3월 25일(목)]과 조선왕조실록 번역의 전문가이신 정하정 선생님[2021년 4월 1일(목)]을 모시고 번역에 필요한 참고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해서 실제 번역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2) 중국 <上海師大>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헌학에 대한 소양교육을 모델로 하여, 30년간 고문서를 수집하고 연구하신 가톨릭대학의 손숙경 선생님[2021년 5월 6일(목)]을 모시고 고문서의 개념과 고문서 발굴 작업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성과들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 3) 일본 동경의 <二松學舎>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문해독과 고전중심의 교육을 모델로 하여, 당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의 장유승 선생님[2021년 6월 10일(목)]과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의 이주해 선생님[2021년 6월 24일(목)]을 모시고 각각 ‘한문고전번역의 대중화’와 ‘중국 고문 읽기와 한국 한문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 4) 중국 <南京大>의 동아시아 문헌수집 및 정리에 대한 성과를 모델로 하여, 퇴계의 문집과 영남의 문집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정석태 선생님[2021년 2월 22일(월)]을 모시고 ‘영남 지역에서의 문집(한문자료) 수집-번역-자료 정리와 연구 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5) 일본 <慶應大>에서 주력하고 있는 지역기반 일본한문학 연구를 모델로 하여,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신 울산대 국어국문학부의 노경희 선생님[2021년 4월 22일(목)]을 모시고 ‘일본 에도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6) 프랑스 <파리7대>의 파리한국학네트워크 구성과 東洋語大 도서관 古本室의 우수성을 모델로 하여, 파리 이날코 대학에 근무중이신 김대열 선생님[2021년 2월 23일(화)]을 모시고 파리의 한국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학에 대한 유럽인들의 수용양상과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7) <몽골국립대>와 연계하여 해외학자초청특강으로 아시학과(한국학) Ariunbaigali Boldbaatar 선생님[2022년 1월 13일(목)]을 모시고,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라는 주제로 몽골인이 익숙하지 않은 한문고전번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국 학계의 교류와 관심이 필요하며,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 한문고전을 국역하는 사업이 활발해진 성과를 감안하여 향후 부산대(한문학과) 등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구축하여 한문고전의 몽골어 번역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 8) <臺灣政治大>와 연계하여 최근 2023년 1월 7일과 8일 사이에 개최된 “2023년 한국어문학국제학술회의(韓國語文學國際學術會議)”에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그리고 신진연구인력이 참가하였다.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이강석, 장서희, 배태수 학생은 학술발표를 담당하였고, 김승룡 교수는 2023년 1월 7일(09:00-17:50) 국립정치대학 도번루(道藩樓) 224회의실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SESSION 01] 한국문학영역(韓國文學領域, 09:10-11:50)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COVID-19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문학과 BK연구팀에서는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그 결과 평가대상 기간 동안 「고전번역학」· 「동아시아학」· 「로컬지식학」의 세 가지 아젠다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세미나는 세계 저명대학의 주안점을 보고 배우려는 우리 연구팀의 노력을 담고 있기도 하다. 앞서 거론했지만, 이런 학술세미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강연을 체득한 대학원생의 채록과정을 통한 체화단계를 거쳐 책자형태로 다시 발간되어, 우리의 학습과정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학계의 공유자산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학술세미나의 새로운 학습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비대면 강연의 녹화과정이라는 채록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선물이라고 하겠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 공동연구나 학술회의 발표 참여가 계획에 대비해 소략하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사회적 이유로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대면학습이나 발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학습하고 발표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해외학자들의 비대면 강의를 조직하고, 비대면으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성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교육연구팀으로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교육기간에 전념을 다해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 교류와 협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논문과 저역서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①-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본 교육연구팀의 목표는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이다. 우리는 BK21FOUR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존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2020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그간 본 학과가 한문고전 번역을 기반으로 지속해온 교육 갱신의 노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즉 2단계 BK21에서 「고전컨텐츠」에 집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문고전의 현대적 활용 가치에 주목한 교육을 시도했다면, 3단계에서는 고전컨텐츠를 동아시아 기반의 「전통지식학」의 체계로 수렴하면서 교육의 체계와 시야를 동아시아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금 BK21FOUR에서는 동아시아의 로컬리티(Locality)가 집적된 다양한 지적 자산의 융합물로 한문고전의 가능성을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도전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대학원 「2020 혁신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아래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을 보이는데 「총 41개 교과」에서 「한문학 전공 일반 교과 11개」, [BK21FOUR 특성화 교과가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대학원 교육과정이 BK21FOUR의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과감하고 집중적인 교육 혁신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한다.

[표15. 한문학과 2020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

| 일련 번호 | 교과목 구분 | 교과목 성격 | | 교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
| 1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경학사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1 | 3.0 |
| 2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과제실습 | KC7500620 | 3.0 |
| 3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이론의탐구 | KC7500618 | 3.0 |
| 4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6 | 3.0 |
| 5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자료세미나 | KC7500617 | 3.0 |
| 6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9 | 3.0 |
| 7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과정제실습 | KC7500615 | 3.0 |
| 8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이론의탐구 | KC7500613 | 3.0 |
| 9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0 |
| 10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세미나 | KC7500612 | 3.0 |
| 11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4 | 3.0 |
| 12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과제실습 | KC7500610 | 3.0 |
| 13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이론의탐구 | KC7500608 | 3.0 |
| 14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0 |
| 15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자료세미나 | KC7500607 | 3.0 |
| 16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9 | 3.0 |
| 17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과제실습 | KC7500605 | 3.0 |

| | | | | | | |
|----|---------|--------------|----------------|----------------|-----------|-----|
| 18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이론의탐구 | KC7500603 | 3.0 |
| 19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0 |
| 20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 | KC7500602 | 3.0 |
| 21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4 | 3.0 |
| 22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0 |
| 23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번역실습 | KC7500579 | 3.0 |
| 24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세미나 | KC7500580 | 3.0 |
| 25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번역실습 | KC7500583 | 3.0 |
| 26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세미나 | KC7500584 | 3.0 |
| 27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번역실습 | KC7500581 | 3.0 |
| 28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세미나 | KC7500582 | 3.0 |
| 29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번역실습 | KC7500585 | 3.0 |
| 30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세미나 | KC7500586 | 3.0 |
| 31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 | KC7500589 | 3.0 |
| 32 | 전공(대학원) | BK21FOUR 특성화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 | KC7500590 | 3.0 |
| 33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문법론특강 | KC6700738 | 3.0 |
| 34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비평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4 | 3.0 |
| 35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산문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3 | 3.0 |
| 36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배경사상론특강 | KC6700742 | 3.0 |
| 37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사특강 | KC6700739 | 3.0 |
| 38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연구방법론특강 | KC6700741 | 3.0 |
| 39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작가론특강 | KC6700740 | 3.0 |
| 40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특수과제세미나 | KC6700747 | 3.0 |
| 41 | 전공(대학원) | 한문학 전공 일반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2 | 3.0 |

아래 표는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을 BK21FOUR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교육은 대학원 정규 교육과정과 아젠다를 심화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교육연구팀 학술세미나, 부산대학교 대학원 BK21 대학원 혁신 사업]을 연동하여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16. BK21FOUR 중심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 개요]

| 교과 성격 | 번역실습과 이론탐구 | 과제탐구와 문제해결 | 地-學-産 연계 현장밀착 | 韓-中-日 연계 한문고전 교육 |
|-------|--|--|--|----------------------------|
|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한문고전자료 번역실습 로컬지식문화 이론탐구 | 지역문제해결 융합연구 지역고전자료 프로젝트 | 전통한문교육현장 탐방 문화해설·고전강좌기획 |
| 한문고전학 | 고전지역학 자료 번역실습 고전문화학 자료 번역실습 고전인문학 자료 번역실습 고전교육학 자료 번역실습 | 고전지역학 이론의 탐구 고전문화학 이론의 탐구 고전인문학 이론의 탐구 고전교육학 이론의 탐구 | 고전지역학 과제실습 고전문화학 과제실습 고전인문학 과제실습 고전교육학 과제실습 | 한문문법론 특강 |
| | 한문문법론 특강 | 경학사 및 연구방법론 특강 | 한문학특수과제 세미나 | 동아시아 한문언어문화연수 |

| | | | | |
|----------------|--|--|-----------------------------------|---------------|
| 소양과정 | 한문학사 특강 한문학작가론 특강 한문학연구방법론 특강 한문학배경사상론 특강 | 한시론 및 연구방법론 특강 한문산문론 및 연구방법론 특강 한문비평론 및 연구방법론 특강 | 논문연구 | 한문고전번역 해외현장탐방 |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 문학자료 번역실습 동아시아 사상자료 번역실습 동아시아 역사자료 번역실습 동아시아 지역자료 번역실습 | 동아시아 문학자료 세미나 동아시아 사상자료 세미나 동아시아 역사자료 세미나 동아시아 지역자료 세미나 | 동아시아 특수과제 연구 I 동아시아 특수과제 연구 II | |

*출처: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1.1.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BK21FOUR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은 대학원생들이 [1] 체계적·유기적 교육과정 속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토대로 [2] 융합·창신의 신진 연구를 선도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한문학 일반 교과와 BK21FOUR 특성화 교과를 포함한 총 41개 교과는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한문고전학 소양과정」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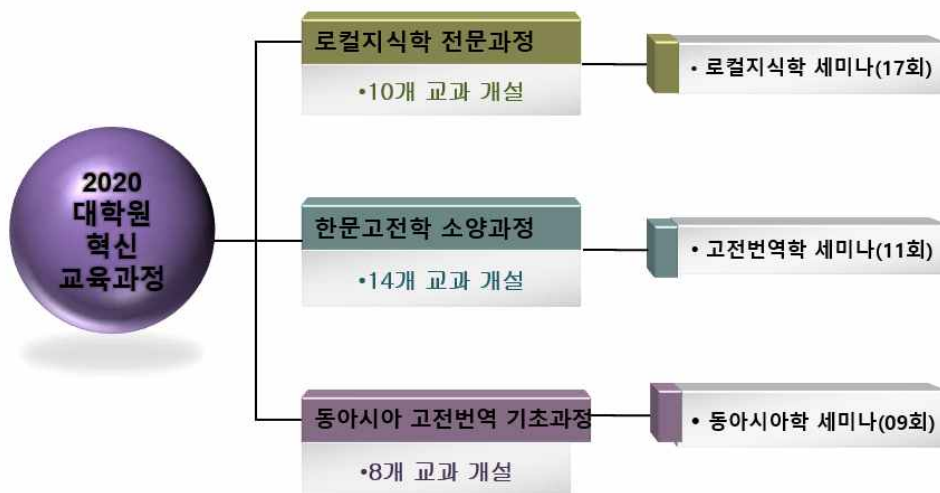
- [1] 교육과정을 단계화된 기초-소양-심화로 설정하여 교육 주기에 따른 성장 효과 견인
- [2] 교과성격을 이론탐구, 과제실습, 문제해결로 범주화하여 교육의 다양성 효과 강화
- [3] 축적된 전문지식의 활용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에서 국내와 지역·현장성 강화

①-2 교육과정 운영 실적

평가대상 기간동안 본 교육연구팀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2020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 총 32개/41개 개설·운영, 총 105명의 대학원생 이수¹⁾
- [2] BK21FOUR 특성화 교과: 총 18개/30개 개설·운영, 총 82명의 대학원생 이수
- [3] 정규 교과와 비교과(로컬지식학·고전번역학·동아시아학) 연동으로 교육 수준 심화

[그림3. 평가대상 기간 정규교과-비교과 연동 교육과정 운영실적 개요]



1)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교과 중 논문연구는 동일 학수번호(KC6200888)를 가진 교과이므로, 1개 교과(12개 반, 13명 이수)로 계상.

[전체 개설 교과]의 비중에서 BK21FOUR 특성화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한문고전학」 소양 과정은 논문연구(기간 중 총 13개반 개설)를 포함하여 3개를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은 한문학 전공 교육의 토대이다. 한시·한문학연구방법론과 같은 이론 교육과 함께 교수-학생이 소규모 대면으로 진행하는 논문연구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소양을 집중적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하였다. 한편, [BK21FOUR 특성화 교과]의 운영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고전번역」 8개, 「로컬지식학」 10개 교과를 개설하였다. 연도별·학기별 흐름으로 보면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은 BK21FOUR 사업 시작 단계인 2020년도부터 처음 3학기동안 집중적으로 개설되고, 이후 2023년도 현재까지는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교과 개설율이 차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이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7. 평가대상 기간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 ■는 2023학년도 1학기 현황임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이론의탐구 | KC7500613 | 3 | 김성진 | 2020-2 | 2 | 2 |
| 2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 | KC7500602 | 3 | 이준규 | 2020-2 | 1 | 1 |
| 3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9 | 3 | 정출현 | 2021-1 | 5 | 5 |
| 4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 | 김남이 | 2021-2 | 3 | 3 |
| 5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이론의탐구 | KC7500603 | 3 | 이준규 | 2021-2 | 2 | 2 |
| 6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과제실습 | KC7500610 | 3 | 정출현 | 2022-1 | 3 | 3 |
| 7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 | 김남이 | 2022-1 | 2 | 2 |
| 8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 | 이준규 | 2022-1 | 3 | 3 |
| 9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4 | 3 | 정출현 | 2022-2 | 11 | 11 |
| 10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4 | 3 | 김남이 | 2022-2 | 7 | 7 |
| 11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연구방법론특강 | KC6700741 | 3 | 강명관 | 2020-1 | 7 | 7 |
| 12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2 | 3 | 김승룡 | 2021-2 | 4 | 4 |
| 13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0-1 | 1 | 1 |
| 14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0-1 | 1 | 1 |
| 15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0-1 | 1 | 1 |
| 16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0-2 | 2 | 2 |
| 17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0-2 | 1 | 1 |
| 18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0-2 | 1 | 1 |
| 19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강명관 | 2021-1 | 1 | 1 |
| 20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1-1 | 1 | 1 |
| 21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정출현 | 2021-1 | 1 | 1 |
| 22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1-2 | 1 | 1 |
| 23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승룡 | 2022-1 | 1 | 1 |
| 24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2-2 | 1 | 1 |
| 25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번역실습 | KC7500579 | 3 | 김승룡 | 2020-1 | 5 | 5 |
| 26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세미나 | KC7500584 | 3 | 이준규 | 2020-1 | 4 | 4 |
| 27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 | KC7500589 | 3 | 정출현 | 2020-1 | 3 | 3 |

| | | | | | | | | |
|-----------------|-----------------|----------------|-----------|-------------|-----|--------|------------|------------|
| 28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세미나 | KC7500586 | 3 | 강명관 | 2020-2 | 6 | 6 |
| 29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 | KC7500590 | 3 | 김남이 | 2020-2 | 7 | 7 |
| 30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세미나 | KC7500580 | 3 | 김승룡 | 2021-1 | 5 | 5 |
| 31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번역실습 | KC7500581 | 3 | 강명관 | 2021-1 | 5 | 5 |
| 32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번역실습 | KC7500583 | 3 | 김승룡 | 2022-2 | 7 | 7 |
| 총 32개 교과 | | | | 96학점 | | | 105 | 105 |
| 33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교육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6 | 3 | 김승룡 | 2023-1 | 6 | 5 |
| 34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문학자료세미나 | KC7500607 | 3 | 이준규 | 2023-1 | 12 | 12 |
| 35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세미나 | KC7500582 | 3 | 김남이 | 2023-1 | 11 | 11 |
| 36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논문연구 | KC6200888 | 3 | 김남이 | 2023-1 | 1 | 1 |

첫째,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은 한문자료를 「문학·사상·역사·지역」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실습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 자료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을 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문학자료 세미나」(2021-1, 김승룡)에서는 「宋詩」의 구성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번역실습하였으며, 「동아시아 특수과제 연구」(2020-2, 김남이)에서는 조선후기 야담집 『동야취집』을 대상으로 야담에 대한 사회문화사 관점의 새로운 이해 시각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텍스트를 공동 번역하였다. 지·학·산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부산밀양분원)과는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참여대학원생(7명)이 고전번역교육원에서 전문적인 한문연수 과정을 밟고 있다.

- [1] 교과성격: 역사·지역·문학·사상 범주의 자료를 번역 실습하고 시의적 주제로 고전해석 세미나 진행
- [2] 교육효과: 동아시아 한문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번역실습을 통해 번역 및 해석하는 능력 향상
- [3] 개설교과: 8개. 번역실습(동아시아문학자료·동아시아역사자료·동아시아사상자료)·자료세미나(동아시아사상·동아시아지역·동아시아문학)·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I)
- [4] 연계실적: 동아시아학세미나(총09회)·고전번역학세미나(총11회),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부산밀양분원)의 전문 고전번역 교육

둘째, [한문고전학 소양과정]은 한문학 연구의 바탕을 이루는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번역의 기초가 되는 文法 및 漢文學史를 출발점으로 경학·한시·한문산문·비평 등 참여교수의 주요 연구영역을 안배하였다. 「논문연구」는 지도교수와 논문 집필 과정에 진입한 참여대학원생이 중심이 되어, 재학생들이 공동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대상 기간동안 「논문연구」를 이수한 대학원생 3명(김영준·김정란·강주형)이 석사학위를 받고, 3명(전송희·이강석·전민경)이 본 학과 내부 규정에 따른 「구상발표」를 마치고 박사학위논문 과정에 진입하였다. 교과와 연동하여 졸업생수료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전체가 참여하는 「월례발표회」와 「정기학술발표회(동하계)」, 「학위논문」 발표회를 통해 문제의식과 연구내용을 검증받았다.

- [1] 교과성격: 고전번역 및 로컬지식학의 받침이 되는 한문고전학의 이론 및 분야
- [2] 교육목표: 한문학 기초 및 전통지식과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핵심 소양 교육
- [3] 개설교과: 3개. 한문학연구방법론특강·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논문연구(13개반)
- [4] 연계실적: 월례발표회(월1회), 정기학술발표회(연2회), 학위논문 발표회(연2회, 4월·10월)

셋째, [로컬지식학 전문과정]은 로컬리티 관점의 다양한 한문자료를 자료를 「지역·인물·문화·교육」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실습하고, 해당 범주의 자료를 로컬지식학으로 변형-생성하는 학문적 훈련을 목표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전인문학특수과제연구」(2021-1, 정출현)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인물들이 가졌던 비전을 동아시아 역사전환기의 지평에서 살피고 華夷秩序의 공세 속에서 東國문명을 만들어 과정을 세미

나 방식으로 탐색하였다. 연계된 활동으로 2022년부터 정규 교과와 연동된 대학원생 「로컬지식학 스테디」를 활성화하여 로컬 관점에서 지역 한문학 유산을 수집·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 본 교육연구팀의 정규 및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로컬지식학 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가 풍성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교과성격: 지역·인물·문화·교육 범주의 지역 자료를 번역, 이를 로컬지식으로 변환하는 혼련 교과
- [2] 교육효과: 로컬지식의 학적 체계화 시도, 주변-중심 관점에서 탈중심주의 시각의 이론적 탐구
- [3] 개설교과: 10개. 이론탐구(고전문화학이론·고전지역학이론)·번역실습(고전문화학자료·고전인물학·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고전지역학)·과제실습(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고전인물학·고전문화학·고전지역학)
- [4] 연계실적: 로컬지식학세미나(총17회), 대학원생 「로컬스테디-小訥」(매주 목요일, 부울경 지역 한문학 자료 수집, 문헌정리와 연구 수행)

②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및 문제 개선 노력

본 교육연구팀은 2단계 BK21사업에 참여한 것을 기점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계속 갱신해 왔다. 「고전컨텐츠」를 통해 고전의 실용적 활용을 학문과 접목하려고 했던 「도입기」(2006~2013), 「전통지식학」을 통해 전통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활용하고자 모색했던 「심화기」(2013~2020)를 거쳐, 이제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을 통해 고전/지식/로컬의 학문적 정위를 도모하는 「확대기」(2020~2027)의 한가운데 도달한 것이다.

[그림4. 한문학과 대학원 BK21사업 단계별 아젠다]



*출처: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1.1.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도입→심화→확대기를 거치면서 BK21특성화 교과는 10개에서 30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교과의 성격은 지역밀착성과 현장성·실습을 강화하였다. 「로컬지식학」 분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증가한 것은 교육과 연구에서의 아젠다 집중도를 증명한다. 부울경 지역 및 해외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고 초점화한 결과, COVID-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지수가 높아졌다.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7건)과 「외국어 논문 게재 실적」(2건)이 3단계 BK21플러스때보다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 그 증거이다.

- [1] 도입기→심화기: 3단계 BK21플러스사업과 연동된 「2014 개편 교육과정」 40개 전공교과, BK21PLUS 특성화 교과 10개 신설
- [2] 심화기→확대기: 4단계 BK21플러스사업과 연동된 「2020 혁신 교육과정」 41개 전공교과, BK21FOUR 특성화 교과 30개 신설, 로컬지식학 분야 교육·연구 대폭 증가, 국제화 지수 대폭 상승
- [3] 확대기→도약기: 도전과 창신의 비전에 의거한 「2023 융합 교육과정」 개편 진행 중

이렇듯 확대와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갖고 있지만, 21세기 첨단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문학-한문학의 운명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교차하고, 대학 안팎에서 대학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드높다. 그런 만큼 양적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 본 교육연구팀이 설정한 「확대기」의 임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2단계 BK21사업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축적한 교육·연구의 경험을 성찰하여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속해야 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놀라운 속도로 변신하는 첨단인공지능 AI가 고전어 번역의 일부까지 담당하는 시대에 문학연구와 고전번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POST COVID-19 시대 인문학(한문학)의 역할과 변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와 교육 모든 면에서 새로운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런 미래를 염두에 두는 한편, 2006년부터 BK21사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총합하여 교육과정의 개편과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 실적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학사운영]** 부분의 개선 실적이다. 먼저, 석박사통합과정과 일반 학위과정간 이수학점의 상대적 형평성을 보완하여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을 축소」하였다. 축소된 학점으로 인한 학업 부실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학업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처하였다. 다음, 대학에서 시행 중인 「학석·박사연계과정」을 학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022년에 2명의 학부생이 석사 과정에 연계진학하였고, 이후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부-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데서 오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차원의 학문간 융합과 다학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전공, 복수전공제를 시행하였다. 인접 학문 및 유사 전공에 대한 연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적 성장 기회를 부여하였다.

- [1]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을 90학점→60학점 축소 결정으로 입학생 확보
- [2] 「학석·박사연계과정」제도의 학부-석사 연계 과정을 활용하여 입학생 확보
- [3] 「대학원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적용으로 다양성과 진로 적성 탐색 기회 부여

둘째, 우수 대학원생 배출을 위한 **[학위논문]** 부분의 개선 실적이다. 먼저, 「논문연구」 교과를 자료검토, 주제 토론, 초고 작성 등의 논문 작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내용을 매뉴얼화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와 지도학생들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다양하게 검증받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연구」를 거쳐 평가대상 기간동안 3명의 석사학위자가 나왔고, 박사수료생 3명은 박사학위논문 심사과정에 진입하였다. 다음, 본 학과는 2013년 「학위논문 심사절차에 대한 내규」(아래 그림3 참조)를 제정하였고, 이후 3차례 이상 보완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내부 규정」(아래 그림4 참조)을 완비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팀의 차별화된 교육 목표에 부응하여 학위논문의 성격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번역과 로컬지식학의 융합적 성격에 맞는 여러 형태의 학위 인정물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 [1] 「논문연구」 교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유 내실화로 학위논문의 질적 토대 마련
- [2] 「학위논문 관련 규정」의 개선과 완비로 학위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제도적으로 담보
- [3] 「학위 인정물의 다변화」로 번역과 로컬지식학의 융합적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 산출

[그림5. 2013년 제정 대학원 논문심사 절차에 대한 내규]

한문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진행 절차에 대한 내규

2013년 3월 11일 제정
2016년 5월 20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1.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첫째, 학위논문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소논문(학회발표 권장) 2편을 제출한다. 이 소논문은 반드시 학위논문의 장절로 수렴되어야 할 정도로 관련성을 가진다. 그 이후 '구상발표'의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 대학원세미나(하계/동계)에서 '구상발표'를 진행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의 기본 구상 및 본론 각장의 내용을 개요 형태로 제시한다. 학과교수는 논문의 구상이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 판단하고 조언하며, 이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셋째, 학과의 학위논문발표회(4월/10월)에 '예비발표'를 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의 목차를 포함한 본론의 내용과 논문의 형식을 완비하여 제시한다. 학과교수는 '본 심사 진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한다.

「그림6.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내규(2022.04.01.제정 / 2022.09.01.개정)」

제4조(박사학위 논문심사 절차)

- ① 대학원세미나(하계/동계)에서 '구상발표'를 진행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의 기본 구상 및 본론 각장의 내용을 개요 형태로 제시한다. 학과교수는 논문

- 1 -

의 구상이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 판단하고 조언하며, 이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 ② 학과의 학위논문발표회(4월/10월)에 '예비발표'를 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의 목차를 포함한 본론의 내용과 논문의 형식을 완비하여 제시한다. 학과교수는 '본 심사 진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한다.
- ③ '예비발표'에서 '본 심사 진입 가'로 결정되면, '예비발표'를 한 다음 학기부터 '본 심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심사과정은 기존 학위논문 제출 과정에 준한다.
- ④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이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대로 처리한다.(발표자격 등에 관한 상위규정)

제5조(석사학위 논문심사 절차)

- ① 학과의 학위논문발표회(4월/10월)에 '예비발표'를 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의 목차를 포함한 본론의 내용과 논문의 형식을 완비하여 제시한다. 학과교수는 '본 심사 진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한다.
- ② '예비발표'에서 '본 심사 진입 가'로 결정되면, 해당 학기에 '본 심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이후 심사과정은 기존 학위논문 제출 과정에 준한다.
- ③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이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대로 처리한다.(발표자격 등에 관한 상위규정)

③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실적: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실적

본 교육연구팀은 BK21FOUR를 시작하면서 참여 교수진의 선도적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이론-실습-현장이 연계된 교과목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것이 지금의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이며, 대학원 교육을 통해 연구-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는 참여대학원생들이 본 대학원 교육을 통해 연구자로서 체계적 훈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다시 교육의 현장에 임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즉 참여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팀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렇게 하여 산출된 연구 성과가 교육의 영역에서 다시 자기의 자산이 되는 순환의 구조가 끊임없이 활발하게 구동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이 자부할 만한 교육-연구 선순환 구조의 좋은 사례는 **첫째**, 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팀의 정규교과-비교과 교육 과정과 직결된 연구 성과를 산출한 성과이다. **둘째**, 참여대학원생이 자기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교육의 현장에 직접 진입한 성과이다. 아래에 평가대상 기간 동안 축적된 교육-연구 선순환 구조 실적을 제시한다. 교육-연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3-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그간 본 학과 BK21사업에 참여하였던 참여대학원생들의 실적을 넓게 포섭하여 전체적인 역량을 보이되, 평가대상 기간의 참여대학원생 중심으로 대표 실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1] 고전번역학 교육과정과 연동한 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및 배출 실적
- [2] 대학원 정규 교과 및 비교과 연동한 아젠다 영역별 연구 성과 배출 실적
- [3] 학위과정 수료·졸업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프로젝트 수주와 사업 참여 실적
- [3] 박사과정 수료 참여대학원생의 대학 전공·교양 강의 실적

첫째,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과 연동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 실적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한문고전을 기반으로 한 모든 연구와 교육 실천의 바탕에는 한문이라는 언어에 대한 소양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 중심의 대학원 정규 교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과 한문고전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교육연구팀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의 한문고전 교육과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 2월 기준 참여대학원생 4명, 4월 현재 기준 총 6명이 재학 중이다. 그리고 BK21사업 이전·현재 참여대학원생으로서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3년)을 이수하고 전문역자로서 활동하면서 고전번역서를 내거나, 번역자로 활동하면서 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연구번역 전문가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좋은 사례이다.

둘째, 교육과정과 연동한 아젠다 영역별 연구(번역) 성과 실적이다. BK21FOUR 평가대상 기간 중 제출한 『가암시집』(2022.김승룡·최금자)는 지역의 문인과 그의 시 작품을 발굴하여 일련의 지역 시인 시리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일련의 성과는 교육과 연구(번역)이 상호 연동되면서 선순환되는 좋은 사례이다. 『고전과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강의』(교육연구팀 기획, 2022.2)는 본 교육연구팀 비교과 프로그램인 「고전번역학·로컬지식학·동아시아학」 학술세미나에서 총 16개 강연을 선정하여 교육을 위한 저서로 집성했다. 참여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강연 내용을 채록하며 리뷰하고 감수하여 책자형태로 다시 발간하는 의미 있는 선순환의 성과이다.

셋째, 대학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여러 연구 프로젝트 참여 실적이다. 심화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주로 박사수료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보조원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하지만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면서 독립적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 프로젝트 참여는 교육-연구의 선순환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박사과정 수료 참여대학원생의 대학 전공·교양 강의 실적이다. 박사수료생·졸업생들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와 교양교육원 등에서 교양 한문과 전공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역

량과 교육적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구 성과를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선순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와 관련된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서 협조하고, 교육과정의 혁신에서도 교육과 연구의 미래세대인 참여대학원생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18. 참여대학원생 교육-연구 선순환 구조 구축 실적]

| | 내용 | 실행 실적 개요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과 연동한 고전번역전문가 양성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사과정생 김가현,이희연,최자은, 박사과정생 강주형,홍지현, 박사수료생 이강석: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총3년) 이수 중 박사과정생 조현석: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전문과정(총5년) 이수 후 전문번역위원으로서 『조선왕조실록』 번역(2023년-1학기 현재) 박사수료생 장미나: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전문과정(총5년) 이수 후 전문번역위원으로서 『조선왕조실록』 번역(2023년-1학기 현재)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과 연동한 참여대학원생 연구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전번역 『가암시집』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공동 번역서 출판(김승룡·최금자,지만지한국학,2022) 고전번역+동아시아학+로컬지식학 『고전과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강의』(교육연구팀 기획,참여대학원생 2022.2) 고전번역 『동야회집』 참여교수와 대학원생 공동번역 진행 중(김남이·참여대학원생)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프로젝트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수료생 전민경: 점필재연구소, 「근대계몽기 교육관계 논설의 한·일 비교연구」 프로젝트 연구보조원(2019.7.1.-2020.6.30.) 박사수료생 이강석: 점필재연구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野談의 근대전환 양상 연구」 프고젝트 연구보조원(2020.9.1.-2021.6.30.),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선정 박사졸업생 신재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사업 전임연구원 및 국가연구교수 선정 박사졸업생 강창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선정 박사졸업생 이상봉·남윤덕: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되어 학문후속세대 교육 및 연구 수행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대학원생의 대학 전공.교양 강의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과정생 SUN PING: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 한문 강사(2023년-1학기 현재) 박사수료생 전민경,전송희,최금자,엄형섭.: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양 한문 강의(2023년-1학기 현재) 박사졸업생 이상봉,신재식,강창규,전지원,류화정: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양 한문 및 전공 강의 |

④ 대표적 교육 목표 달성 실적

평가대상 기간동안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 혁신 교육과정]의 「BK21FOUR 특성화 교과」의 세부 운영 내역을 보면 「동아시아 고전번역」 8개, 「로컬지식학」 10개 교과를 개설하였다. 연도별·학기별 흐름으로 보면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이 BK21FOUR 사업 시작 단계인 2020년도부터 처음 3학기동안 집중적으로 개설되고, 이후 2023년도 현재까지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교과 개설율이 높아지고 있다.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대학원생의 연구성과도 로컬지식학 분야의 비중이 많은 편이다. 이는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이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로컬지식학의 개념으로부터 학적 체계를 수립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BK21FOUR에서 이를 아젠다로 설정하면서 부울경 지역에 터잡은 본 교육연구팀의 학문적·교육의 정체성이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로컬지식학 전문과정」의 교육을 대표 실적으로 설정하고 성과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로컬지식학 전문과정」은 로컬리티 관점에서 다양한 한문자료를 「지역·인물·문화·교육」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실습하고, 해당 범주의 자료를 로컬지식학으로 변형·생성하는 학문적 훈련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아래 운영 실적 개요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교과성적: 지역·인물·문화·교육 범주의 지역 자료를 번역, 이를 로컬지식으로 변환하는 훈련 교과
- [2] 교육효과: 로컬지식의 학적 체계화 시도, 주변-중심 관점에서 탈중심주의 시각의 이론적 탐구
- [3] 개설교과: 총 10개
 - 이론탐구: 고전문화학이론·고전지역학이론, 고전지역학세미나, 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과제실습: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고전인물학자료번역실습·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고전인물학과제실습
- [4] 연계실적: 총 18종
 - 로컬지식학 스터디-小訥 매주 목요일, 자료검토와 실지 답사
 - 로컬지식학 세미나 총 17회,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토론
- [5] 관련업적: 총 13건
 -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3건, 논문·저역서 실적 5건
 - 신진연구인력 연구업적 8건

[표19. 로컬지식학 아젠다 영역 대표적 교육 실적: 대학원 정규 교과 부분]

| 번호 | 구분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실적종류 |
|----|------------|-------------|-----------|----|-----|--------|-------|------|
| 1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이론의탐구 | KC7500613 | 3 | 김성진 | 2020-2 | 2 | 정규교과 |
| 2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 | KC7500602 | 3 | 이준규 | 2020-2 | 1 | 정규교과 |
| 3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9 | 3 | 정출현 | 2021-1 | 5 | 정규교과 |
| 4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 | 김남이 | 2021-2 | 3 | 정규교과 |
| 5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이론의탐구 | KC7500603 | 3 | 이준규 | 2021-2 | 2 | 정규교과 |
| 6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과제실습 | KC7500610 | 3 | 정출현 | 2022-1 | 3 | 정규교과 |
| 7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 | 김남이 | 2022-1 | 2 | 정규교과 |
| 8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 | 이준규 | 2022-1 | 3 | 정규교과 |
| 9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4 | 3 | 정출현 | 2022-2 | 11 | 정규교과 |
| 10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4 | 3 | 김남이 | 2022-2 | 7 | 정규교과 |

[표20. 로컬지식학 아젠다 영역 교육 실적: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연구업적 부분]

| | 구분 | 논문/저역서 명 | 게재지/출판사 | 저자 | 발표연월 | 실적종류 |
|---|---------|------------------------------------|--|-----|---------|------|
| 1 | 로컬리티 연구 | 부산 동래의 기억 -정추의 <東萊懷古>에 대하여- | 남도문화연구소/남도문화연구 46(pp.7-30) | 이상봉 | 2022.08 | 연구업적 |
| 2 | 로컬리티 연구 | 윤현의 <萊州雜詠>에 묘사된 17세기 초의 부산 동래 | 대 동 한 문 학 회 / 대 동 한 문 학 71(pp.125-149) | 이상봉 | 2022.06 | 연구업적 |
| 3 | 로컬리티 연구 | 현감직에 대한 황윤석의 갈망과 소회 -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 온 지 학 회 / 온 지 논 총 71(pp.93-119) | 이상봉 | 2022.04 | 연구업적 |
| 4 | 로컬리티 연구 | 백수 양응수의 삶에 대한 가치 의식-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학회/한국시가문화연구48(pp.173~198) | 이상봉 | 2021.08 | 연구업적 |
| 5 | 로컬리티 연구 | 해운대의 추억: 한시에 형상화된 해운대 | 대 동 한 문 학 회 / 대 동 한 문 학 67(pp.279-303) | 이상봉 | 2021.06 | 연구업적 |
| 6 | 로컬리티 연구 | 동래에 대한 기억과 그 형상화-정포의 「동래잡시」를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연구 58(pp.253-279) | 이상봉 | 2021.02 | 연구업적 |

| | | | | | | |
|----|---------|----------------------------------|---------------------------------|-----|---------|------|
| 7 | 로컬리티 연구 | 晦堂 張錫英의 『戴禮管見』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경세적 특징 | 동양고전연구소 / 동방학 48(pp.135-160) | 남윤덕 | 2023.02 | 연구업적 |
| 8 | 로컬리티 연구 | 碩齋 尹行恉의 『方是閒輯(上)』 연구 | 동방한학회 / 동방한문학 89(pp.179-220) | 남윤덕 | 2021.12 | 연구업적 |
| 9 | 로컬리티 연구 | 목재 흥여하의 교유 양상 연구-교유시를 중심으로- | 동양한학회/동양한문학연구 59(pp.173-209) | 최금자 | 2021.06 | 연구업적 |
| 10 | 로컬리티 연구 | 可庵 全翼壽의 삶과 시세계 | 대동한학회 / 대동한문학 70(pp.131-162) | 최금자 | 2022.03 | 연구업적 |
| 11 | 로컬리티 연구 | 尙州 攀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영남학81(pp.309-350) | 최금자 | 2022.03 | 연구업적 |
| 12 | 로컬리티 연구 | (지역고전학총서)목재시선 | 지만지한국학 | 최금자 | 2022.08 | 연구업적 |
| 13 | 로컬리티 연구 | 가암 시집 | 지만지한국학 | 최금자 | 2022.08 | 연구업적 |

[표21. 로컬지식학 아젠다 영역 교육 실적: 비교과(학술세미나, 스터디) 부분]

| 일련번호 | 주제 | 주체 | 개최 일시 | 실적종류 | |
|------|-----------|--|--|------------------------------|-----|
| | 로컬지식학 스터디 | <로컬지식학_小訥 스터디> 경학: 소눌 『四書疑解』 강독과 연구 교육: 소눌 『訓蒙帖』 번역, 서당일기 검토 문헌: 소눌 문집 초고 『小訥俚語』 검토 | 경학: 신재식(팀장, 졸업생), 박사과정 강주형, 홍지현, SUN PING / 석사과정 박지예, 이단, 교육: 전지원(팀장, 졸업생), 박사과정 장서희, 조현석, 최금자 문헌: 류화정(팀장), 강창규(졸업생), 전송희(수료생), 박사과정 이강석, 김정란 / 석사과정 배태수, 김남희 | 매주 목요일 | 비교과 |
| 1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로컬리티 연구와 자료 | 차철욱(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1월 6일(목) 16:00-18:00 | 비교과 |
| 2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 문재원(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2월 6일(목) 16:00-18:00 | 비교과 |
| 3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영남지역의 로컬 문화권역과 문인군 | 정석태(부산대, 점필재연구소) | 2021년 2월 22일(월) 14:00-16:00 | 비교과 |
| 4 | 로컬지식학 세미나 | 17-8세기 山淸 卞州 지리산 권역의 南冥學派 전개양상 | 강정화(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화) 10:00-12:00 | 비교과 |
| 5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안동지역의 퇴계학파의 19세기 변모 양상 -響山 李晩燾를 중심으로 | 이규필(경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화) 14:00-16:00 | 비교과 |
| 6 | 로컬지식학 세미나 | 19세기 말 경남지역의 <神明畵圖銘>에 관한 학술 토론회와 시대적 의미 | 전병철(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4일(수) 10:00-12:00 | 비교과 |
| 7 | 로컬지식학 세미나 | 18-19세기 대구권 성리학의 변모 양상 | 추계협(계명대, 철학윤리학과) | 2021년 2월 24일(수) 14:00-16:00 | 비교과 |
| 8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지역에서 만나는 고문서와의 대화 | 손숙경(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 2021년 5월 6일(목) 16:00-18:00 | 비교과 |
| 9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부산 지역 전통 문화 연구에 대하여 | 엄경흠(신라대, 국어교육과) | 2021년 5월 13일(목) 16:30-18:00 | 비교과 |
| 10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로컬리티라는 환영과 가능성 | 박형준(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 2021년 9월 23일(목) 16:00-18:00 | 비교과 |
| 11 | 로컬지식학 세미나 | 호남의 로컬리티와 고전학: 호남지방문헌의 조사와 정리 과정에 대하여 | 김대현(전남대, 국어국문학과) | 2021년 11월 11일(목) 16:00-18:00 | 비교과 |
| 12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안동의 로컬리티와 고전연구 | 권진호(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 2021년 12월 16일(목) 16:00-18:00 | 비교과 |
| 13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남명 조식과 <神明畵圖> | 이상필(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2022년 8월 24일(수) 14:00-16:00 | 비교과 |
| 14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밀양 지역학에 대한 소고 -점필재와 소눌을 중심으로- | 정석태(점필재연구소) | 2022년 10월 13일(목) 10:00-12:00 | 비교과 |
| 15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조선조 주자학 세상의 전개와 그 시점 -점필재 김종직의 <점필재집> 다시 읽기 - | 정석태(점필재연구소) | 2022년 12월 19일(월) 14:00-16:00 | 비교과 |

| | | | | | |
|----|-----------|-------------------------------|---------------|--------------------------------|-----|
| 16 | 로컬지식학 세미나 | 영남학이란 무엇인가 | 정우락(경북대 국문과) | 2022년 12월22일(목) 15:00-17:00 | 비교과 |
| 17 | 로컬지식학 세미나 | 낙동강 연안지역의 정치학문적 지형과 그 변동의 양상들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 2022년 12월23일(금) 15:00-17:00 | 비교과 |

먼저,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10개 교과는 고전 「지역」 「문화」 「인물」에 대한 이론탐구와 자료 과제 실습을 통해 로컬지식의 학적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토대를 교육하였다. 다음, 비교과 활동으로 진행된 총 17회의 「로컬지식학 세미나」는 로컬리티 이론 전문가와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해 온 다양한 영역의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로컬연구에 필요한 현장의 체험, 연구의 문제와 한계, 미래 로컬리티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다음,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습동아리 「로컬지식학 스터디_소놀이」은 본 교육연구팀이 터잡은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소놀이 노상직에 대한 다방면의 탐색을 시도한 것이다. 부산대 도서관에 유일본 포함 관련 자료들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거니와 동아시아_로컬리티 전문가 양성의 출발점에 소놀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로컬 관련 연구는 그 양적 수치에서 우선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지적했던 로컬, 로컬리티, 그리고 로컬지식학은 그 함의가 각각 다르고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따라서 그 학적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인물, 문헌, 역사, 문학과 철학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필요한데,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성과는 바로 그런 토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 시점에서 보아 대단한 연구 집중도와 탁월한 성취를 바로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역의 한문학 유산을 集積하고 연구해 나가면서 본 교육연구팀이 목표하는 바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의 도정에 본격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성취라고 자부한다.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① 문제의식과 진단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에서 인문학-한문고전을 통해 지역적 삶의 진정한 개선을 이끌어 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한문고전에 대한 번역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_지역_로컬(Local)을 새로운 아젠다의 지평으로 설정하고 있다. 21세기에 있어 「지역」은 중심-주변의 논리를 탈피하여 새로운 균형 감각을 가진 로컬(Local)을 담지한 개념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 양성된, 한문고전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출현하여 「고전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산업화 시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BK21FOUR 사업 계획 당시 「지역 사회의 문제」와 본 교육연구팀이 자리잡고 있는 「부·울·경」의 현재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BK21FOUR 사업 계획 당시의 문제의식과 진단을 아래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 [1]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문공공재로서 [로컬_전통지식]의 융합과 활용
- [2] [지역인문학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한문고전 분야 전문 인재 배출] 및 진로 확대
- [3] [지역대학의 교육자생성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첫째, 지역 발전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인간적_인본적_인성적 가치관을 제시한다. 지역 사회의 제 문제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부·울·경 지역이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은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과 부울경 자체의 지리적 특성과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해양 생태 환경의 문제, 경제적 격차, 취약 계층과 노령화된 지역 특성 등

이 산재한데, 지역에서의 소외는 이중 삼중의 소외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은 행복한 인간적 삶의 조건이 무엇이고 고통을 야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통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학문 분야인 한문학은 그중에서도 한문고전이라는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미래적인 가치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통찰과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 인문학의 [전문성] 확장을 위한 전문인재의 양성이다. 방대한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일은 「전통수호」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듯, 국가의 책무이다. 지역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울경 지역」에 산재하는 고문헌 및 지역인의 문집 자료의 실태를 조사하고 번역하는 일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국가거점국립대학교에 속한 교육연구 단위로서 국가와 지역의 문화 유산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수집-정리하고 번역하며 현대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적 책임 또한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균형」의 「실질」이다. 한국학과 관련한 국가 지원의 기관이 부울경 지역에 유독 없다는 것은 문제적 상황이다. 이것이 「지역 균형」의 「현실」이다.

셋째,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 대학 교육의 [자생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울경 지역에서 한문학 자산 발굴과 보존, 번역과 연구, 그리고 이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책임」은 본 교육연구팀에게 있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지역밀착성이 강한 교육을 기반으로 저변을 단단하게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울경 지역의 한문학 자산, 지역의 전통과 특색, 지역민의 삶의 내력과 궤적을 담은 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리」는, 대구경북 지역과 비교하자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학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문학의 자생적 지역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책무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보고,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였다.

②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이처럼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 연구는 부울경 지역의 현실 문제 위에 축조되어 있다. 또한 아젠다의 핵심 매개인 한문고전은 동아시아의 공동자산이고, 고전번역을 통해서 동아시아-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에 본 교육연구팀은 「부산」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소규모 교육연구팀이지만, 「지역을 넘는 지역학」으로, 「한국을 넘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실현이 우리가 터잡고 있는 지역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의 [1][2][3]으로 진단한 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 및 진로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연계 「한문고전 전문역량 교육」

[2]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통지식 활용 및 로컬 문화 이해 교육」

가.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 및 진로 확대」를 위한 동아시아 연계 「한문고전 전문역량」 실적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는 한문고전에 대한 번역과 이해 수준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로컬 관점과 결합된 지역고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과 진로 확대」를 위해 동아시아 연계 「한문고전 전문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문자료를 「문학·사상·역사·지역」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실습을 하고 세미나를 통해 자료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을 훈련하였다. 지-학-산 협력체계의 일환으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부산밀양분원)과는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참여대학원생(7명)이 고전번역교육원에서 전문적인 한문연수 과정을 밟고 있다.

[1] 정규교과: 10개. 번역실습(동아시아문학자료·동아시아역사자료·동아시아사상자료)·자료세미나(동아

시아사상 · 동아시아지역 · 동아시아문학)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 · (II), 한문고전학 소양(한문학연구
방법론특강 · 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

[2] 비교과 연동: 동아시아학세미나(총09회) · 고전번역학세미나(총11회),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
육원(부산밀양분원)의 전문 고전번역 교육

[표22. <동아시아> 연계 <한문고전> 역량 교육과정 운영 현황]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문학연구방법론특강 | KC6700741 | 3 | 강명관 | 2020-1 | 7 | 7 |
| 2 | 한문고전학 소양과정 | 한시론및연구방법론특강 | KC7500622 | 3 | 김승룡 | 2021-2 | 4 | 4 |
| 3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번역실습 | KC7500579 | 3 | 김승룡 | 2020-1 | 5 | 5 |
| 4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세미나 | KC7500584 | 3 | 이준규 | 2020-1 | 4 | 4 |
| 5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 | KC7500589 | 3 | 정출헌 | 2020-1 | 3 | 3 |
| 6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지역자료세미나 | KC7500586 | 3 | 강명관 | 2020-2 | 6 | 6 |
| 7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특수과제연구(II) | KC7500590 | 3 | 김남이 | 2020-2 | 7 | 7 |
| 8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문학자료세미나 | KC7500580 | 3 | 김승룡 | 2021-1 | 5 | 5 |
| 9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역사자료번역실습 | KC7500581 | 3 | 강명관 | 2021-1 | 5 | 5 |
| 10 | 동아시아 고전번역 기초과정 | 동아시아사상자료번역실습 | KC7500583 | 3 | 김승룡 | 2022-2 | 7 | 7 |

[표23. 아젠다 <동아시아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동아시아학 |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 | 김대열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France) | 2021년 2월 23일(화) 17:00-19:00 (09:00-11:00, in Paris) | 온라인 ZOOM (+Paris) |
| 2 | 동아시아학 | 일본 에도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 | 노경희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 2021년 4월 22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동아시아학 | 동아시아 엑스포의 로컬리티 | 하세봉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 2021년 7월 8일(목) 14:00-16:00 | 온라인 ZOOM |
| 4 | 동아시아학 | 매체로 읽는 조선 후기 한문학: Book History, 디지털인문학, 그리고 파라 텍스트에 관한 학계 동향을 참고로 | 류정민 (연세대, 문과대학) | 2021년 10월 29일(금) 16:00-18:00 | 온라인 ZOOM |
| 5 | 동아시아학 |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 연구 | 류인태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 2022년 12월20일(화) 15:30-17:30 | 부산대 인문대교 수연구동 209호 |
| 6 | 동아시아학 | 동아시아의 한문 원전 정보화 현황 및 미래 지향 - 韓國과 中華圈을 중심으로 - | 양원석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2022년 12월27일(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7 | 동아시아학 | 한자를 통해 보는 권력의 양상 -중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양원석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 2022년 12월28일(수)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8 | 동아시아학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아리옹 바이갈 (몽골, 몽골국립대, 아시학과 한국학) | 2023년 1월 13일(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9 | 동아시아학 | 통신사와 한일관계 | 사카기 마사요 (일본, 오쓰마 여자대학교) | 2023년 2월7일(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14호 |

[표24. 아젠다 〈고전번역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고전번역학 | 호남권 문집 번역의 성과와 과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를 중심으로 | 김건우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2021년 2월 22일(월) 10:00-12:00 | 온라인 ZOOM (+전주) |
| 2 | 고전번역학 | 임원경제지 번역사업의 여정과 번역방법론 |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 | 2021년 3월 11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고전번역학 | 한국문집번역의 경험과 제안-점필재연구소의 번역서 몇 종을 중심으로- | 김홍영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 2021년 3월 25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4 | 고전번역학 | 조선왕조실록 재번역의 과정과 방향성 | 정하정 (한국고전번역원) | 2021년 4월 1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5 |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의 대중화 |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2021년 6월 10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6 | 고전번역학 | 중국 고문 읽기와 한국 한문 읽기 | 이주해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2021년 6월 24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7 | 고전번역학 | 『여성생활사자료집』과 여성자료의 이해 | 김경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 2021년 11월 25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8 | 고전번역학 | 『추안급국안』의 번역과 형벌 자료의 이해 | 이향배(충남대, 한문학과) | 2022년 2월 10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9 | 고전번역학 | 『대명률직해』의 번역과 법률 자료의 이해 | 조운선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 2022년 2월 24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0 | 동아시아학 고전번역학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아리웅 바이갈 (몽골, 몽골국립대, 아시학과 한국학) | 2023년 1월 13일(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05호 |
| 11 | 고전번역학 |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호칭어 번역 연구 | 동연 (중국, 산둥이공대학교 외국어대학) | 2023년 2월6일(월) 15:00-17:00 | 부산대 인문관 314호 |

나.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통지식 활용 및 로컬 문화 이해 교육」의 실적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대학의 자생성을 강화하고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공통의 자산인 한문고전을 매개로 하되, 고전이 담고 있는 전통지식의 융합적 활용과 로컬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갖춘 융합-창신의 신진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본 교육연구팀은 정규 교육과정에 「로컬지식학 전문과정」을 두고 로컬리티 관점에서 다양한 한문자료를 「지역·인물·문화·교육」으로 범주화하여 번역실습하고, 해당 범주의 자료를 로컬지식학으로 변형-생성하는 학문적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정규 교과와 연동된 대학원생 「로컬지식학 스터디」를 구동하여 지역 한문학 유산을 수집·정리하고 체계화하여 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초를 다지고 있다.

[1] 정규교과: 10개. 이론탐구(고전문화학이론·고전지역학이론)·번역실습(고전문화학자료·고전인물학·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고전지역학)·과제실습(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고전인물학·고전문화학·고전지역학)

[2] 비교과연동: 로컬지식학세미나(총17회), 대학원생 「로컬스터디-小訥」(매주 목요일, 부울경 지역 한문학 자료 수집, 문헌정리와 연구, 부울경 지역 실지 답사)

[표25. 전통지식 활용 및 로컬 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

| 번호 | 성격 | 과목명 | 교과목 번호 | 학점 | 교수 | 연도 학기 | 수강 인원 | 이수 인원 |
|----|------------|-------------|-----------|----|-----|----------|----------|----------|
| 1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이론의탐구 | KC7500613 | 3 | 김성진 | 2020-2 | 2 | 2 |
| 2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세미나 | KC7500602 | 3 | 이준규 | 2020-2 | 1 | 1 |
| 3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9 | 3 | 정출헌 | 2021-1 | 5 | 5 |
| 4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11 | 3 | 김남이 | 2021-2 | 3 | 3 |
| 5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이론의탐구 | KC7500603 | 3 | 이준규 | 2021-2 | 2 | 2 |
| 6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과제실습 | KC7500610 | 3 | 정출헌 | 2022-1 | 3 | 3 |
| 7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인물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6 | 3 | 김남이 | 2022-1 | 2 | 2 |
| 8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자료번역실습 | KC7500601 | 3 | 이준규 | 2022-1 | 3 | 3 |
| 9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문화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14 | 3 | 정출헌 | 2022-2 | 11 | 11 |
| 10 | 로컬지식학 전문과정 | 고전지역학특수과제연구 | KC7500604 | 3 | 김남이 | 2022-2 | 7 | 7 |

[표26. 아젠다 <로컬지식학> 영역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주제 | 강연자(소속) | 일시 | 장소 |
|----------|-----------|---|------------------------------|----------------------------------|------------------|
| 1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 연구와 자료 |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1월 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2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 연구의 쟁점 | 문재원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2020년 12월 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3 | 로컬지식학 | 영남지역의 로컬 문화권역과 문인군 | 정석태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 2021년 2월 22일 (월) 14:00-16:00 | 부산대 인덕관 소회의실 |
| 4 | 로컬지식학 | 17-8세기 山淸 卍州 지리산 권역의 南冥學派 전개양상 | 강정화 (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 (화) 10:00-12:00 | 온라인 ZOOM |
| 5 | 로컬지식학 | 안동지역의 퇴계학파의 19세기 변모 양상 -響山 李晩燾를 중심으로 | 이규필 (경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3일 (화) 14:00-16:00 | 온라인 ZOOM |
| 6 | 로컬지식학 | 19세기 말 경남지역의 <神明畵圖銘>에 관한 학술 토론과 시대적 의미 | 전병철 (경상대, 한문학과) | 2021년 2월 24일 (수) 10:00-12:00 | 온라인 ZOOM |
| 7 | 로컬지식학 | 18~19세기 대구권 성리학의 변모 양상 | 추계협 (계명대, 철학윤리학과) | 2021년 2월 24일 (수) 14:00-16:00 | 온라인 ZOOM |
| 8 | 로컬지식학 | 지역에서 만나는 고문서와의 대화 | 손숙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 2021년 5월 6일(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9 | 로컬지식학 | 부산 지역 전통 문화 연구에 대하여 | 엄경흠 (신라대, 국어교육과) | 2021년 5월 13일 (목) 16:30-18:00 | 온라인 ZOOM |
| 10 | 로컬지식학 | 로컬리티라는 환영과 가능성 | 박형준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 2021년 9월 23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1 | 로컬지식학 | 호남의 로컬리티와 고전학: 호남지방문헌의 조사와 정리 과정에 대하여 |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 2021년 11월 11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2 | 로컬지식학 | 안동의 로컬리티와 고전연구 |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 2021년 12월 16일 (목) 16:00-18:00 | 온라인 ZOOM |
| 13 | 로컬지식학 | 남명 조식과 <神明畵圖> | 이상필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2022년 8월24일(수) 14:00-16:00 | 경남 산청선비 문화연구원 |
| 14 | 로컬지식학 | 밀양 지역학에 대한 소고 -점필재와 소놀을 중심으로- | 정석태 (점필재연구소) | 2022년 10월13일 (목) 10:00-12:00 | 밀양향교 |
| 15 | 로컬지식학 | 조선조 주자학 세상의 전개와 그 시점 - | 정석태 | 2022년 12월19일 | 부산대 인문관 |

| | | | | | |
|----|-------|----------------------------------|-------------------|---------------------------------|--------------------------|
| | | 점필재 김종직의 <점필재집> 다시 읽기 - | (점필재연구소) | (월) 14:00-16:00 | 305호(서예실) |
| 16 | 로컬지식학 | 영남학이란 무엇인가 | 정우락 (경북대, 국문과) | 2022년 12월22일 (목) 15:00-17:00 | 부산대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
| 17 | 로컬지식학 | 낙동강 연안지역의 정치학문적 지형과 그 변동의 양상들 |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 2022년 12월23일 (금) 15:00-17:00 | 부산대 인문대 교수연구동 209호 |

2.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실적

2.1 평가 대상 기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 | | | | |
|-------------------|-----------|----|---------------|---------------|----|
| 실적 |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계 |
| 확보 (재학생) | 2020년 2학기 | 0 | 5(박사4, 수료1) | 3(석사1, 박사2) | 8 |
| | 2021년 1학기 | 2 | 5(박사3, 수료2) | 3(박사3) | 10 |
| | 2021년 2학기 | 0 | 3(박사1, 수료2) | 3(박사3) | 6 |
| | 2022년 1학기 | 0 | 2(박사1, 수료1) | 1(박사1) | 3 |
| | 2022년 2학기 | 3 | 5(박사4, 수료1) | 2(석사1, 박사1) | 10 |
| | 계 | 5 | 20(박사13, 수료7) | 12(석사2, 박사10) | 37 |
| 배출 (졸업생) | 2021년 2월 | 0 | 0 | | 0 |
| | 2021년 8월 | 0 | 0 | | 0 |
| | 2022년 2월 | 0 | 0 | | 0 |
| | 2022년 8월 | 0 | 0 | | 0 |
| | 2023년 2월 | 1 | 0 | | 1 |
| | 계 | 1 | 0 | | 1 |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실적

① 우수 대학원생 확보 실적

2023년 4월 현재 본 교육연구팀의 재학생은 석사과정 5명(휴학2명 제외), 박사과정 5명, 석박사통합과정 3명, 재학생 총 13명이다. 평가대상 기간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참여대학원생 「확보」 실적은 재학생 기준 총 45명으로 2020년 1학기 8명, 2학기 8명, 2021년 1학기 10명, 2학기 6명, 2022년 1학기 3명, 2학기 10명이다. 국제화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인 학생은 5명이 입학하여 현재 4명은 재학중 또는 수료 후 학위 논문 과정에 진입하였다.

해당 기간동안의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은 석사학위 취득 3명(2023년. 김정란, 김영준, 강주형), 수료 후 일반 직종으로의 취업 2명(노현정, 김민지)이 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3명은 모두 2023년에 본 학과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였다. 참여대학원생 중 박사과정 수료생 3명(이강석, 전민경, 최금자)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 진입하였고, 2~3단계 BK사업의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수료생까지 포함하면 2~3년 이내에 최소 5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에 2~3단계 BK사업의 참여대학원생 출신 박사학위자 3명(강창규·류화정·전지원)을 동시에 배출했던 실적도 있거니와, BK21FOUR 사업을 수행하는 현재는 우수 대학원생의 확보와 배출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휴학생이 발생하여 석사과정 재학생이 0명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특히 대학의 제도 개선과 함께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을 90학점에서 60학점으로 줄이고, 「학석박연계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활용하면서 연계과정에 진입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 입학전형이 대학 차원에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우수 국내·해외

대학원생의 확보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제도가 개선 중이고 COVID-19의 종식과 함께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인 학생의 확보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 최근 대학원생 확보 실적의 추이를 대략 보인다. 연평균 확보율은 12명이 고, 현재 참여대학원생(재학생)은 총 13명으로 연평균 확보율보다 높다.

[표27. 최근 대학원생 확보 실적]

| | 연도별 | | | | | | | | | 연평균 확보율 | 2023. 4. 현재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소계 | | |
| 석사과정(명) | 3 | 4 | 3 | 11 | 6 | 0 | 2 | 3 | 32 | 4 | 5* |
| 박사과정(명) | 8 | 5 | 3 | 3 | 5 | 5 | 4 | 5 | 38 | 4.75 | 5* |
| 석박사통합과정(명) | 4 | 2 | 2 | 2 | 2 | 3 | 6 | 3 | 24 | 3 | 3 |
| 소계 | 18 | 11 | 8 | 15 | 13 | 8 | 12 | 11 | 96 | 12 | 13 |

**출처: 2015-2019 추이는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2.2.교육 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Covid-19로 인하여 귀국, 생업 등으로 인한 휴학생과 수료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치임

이상 본 교육연구팀의 우수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COVID-19의 여파와 전국적으로 저조한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확보율은 안정적 추세
- [2] 대학 및 교육연구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로 이후 확보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3] 박사학위논문 과정에 진입한 수료생의 졸업과 함께 배출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4] 외국인 입학율이 증가추세로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② 우수 참여대학원생 지원 실적

COVID-19로 인한 휴학 발생과 전국적으로 나타난 인문계열 대학원 진학률의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 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학원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본 교육연구팀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세웠던 다음과 같은 전략 때문이다.

첫째, 부산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 통합연계과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부산대학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2020.04.21.개정)」에 따르면 학부 전공 4학기 이상 이수자부터 연계과정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엄격한 규정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석박사통합과정] 제도는 본 교육연구팀이 소속된 학과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하였고, 2022년도부터 이수학점을 90학점에서 60학점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대학 전반의 제도 개선과 동반한 것인 한편, 대학원생의 학업 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는 완화하는 한편, 전공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몰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유치와 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으로 학업 성취 동기를 강화한 한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비교과 교육」에서 학술발표·논저 간행과 같은 우수성과 인센티브, 전문교육 수강·학술모임·도서구입 비용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다. 「국제화」에서 장단기해외연수 및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진학·과정 이수·수료·학위취득·취업의 대학원생 학업주기가 연착륙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한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에는 일반석·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그리고 학석박사연계과정의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의 차이, 학생 개인의 학업 자질과 연구 관심 분야가 다른데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도교수의 정밀한 지도와 대학원생 스스로의 학문적 공동체 의식이 공조하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기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대학원일반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석박사학위연계과정]의 안정적 구조
- [2]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으로 학업 성취 동기 강화
- [3] 진학-과정 이수-수료-학위취득-취업의 연착륙을 위한 학업주기를 맞춘 개인화된 학업 지도

이같은 전략에 의거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지원 실적을 아래에 제시한다. 규정에 의거하고,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한 실적과 대학 차원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 지원 실적들이다. *관련 규정은 아래 [그림.5.6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 자체운영 규정] 참조.

- [1] 우수 대학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2] 우수 참여대학원생 및 수료생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인센티브 지급
- [3] 참여대학원생(수료생 포함)에 대한 국내·국제학술 활동 경비 경비 지원
- [4] 자체 학습동아리 및 대학 차원의 [BK21 대학원 혁신] 교육프로그램 이수 지원

[표28.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실적]

| 목표 | 계획 | 지원 실적 |
|------------------------------|--|---|
|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석사 연계과정 석사과정(3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한 장기적 학업 지원 (별도 재원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확보 및 장학금 지원 2명: 「학석사 연계과정 석사과정(3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연구소 프로젝트와 결합한 참여대학원생 연수 및 장학 지원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연구프로젝트) |
| [2] 학업 성취 동기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우수학생 해외연수: 연 2명 • 우수논문 지원: 연 1명 • 논문게재료 지원 • 우수 학술기획상: 연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해외연수는 COVID-19로 시행 연기 • 우수논문 지원 2건 • 논문 게재료 지원 5건 |
| [3] 진학-과정-수료-학위취득-취업의 연착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번역상: 연 1명 • 우수 공부모임 지원기분활동비 지원 • 교육지원비: 한문고전 해독 능력 및 아젠다 관련 강좌 수강료 50%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모임 지원 3건: 「로컬스터디_소놀」(문헌, 경학, 교육 3팀) 활동경비 지원 • 학술활동 지원 5건: 대학원생 정기 학술회의(동하게 학술세미나) 경비 지원 •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
| [4]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로 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우수학생 해외연수: 연 2명 •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자: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 / 매년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선정 • 외국어 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 외국어 코디네이터, 번역 및 감수료, 자문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해외연수는 COVID-19로 시행 연기 • 국제학술회의 발표자 지원 3건 • 외국어 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 2건 |

*자세한 지원 계획은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참조

[그림7.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
자체운영 규정(20220915개정)]

- 제8조(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 ①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권한은 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지원대학원생의 수는 연구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의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원대학원생 중 결원(수료·휴학 등)이 생길 경우 참여대학원생 중에서 새롭게 선발할 수 있다.
- ④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지도교수가 학업 능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2. 전공분야의 연구실적 또는 학술역량이 두드러진 자
- ⑥ 지원대학원생은 학기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수행 태도를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⑦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별표 2]의 지원자 심사기준에 따른다.

[그림8.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
자체운영 규정(20220915개정)]

- 제12조(성과급 및 장학금) ① 참여교수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에서 참여교수에게 연1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성과급 지원액 및 대상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는 6개월 단위로 한다. (매년 3월~8월, 9월~이듬해 2월)
 2. 평가는 [별표 2]의 논문게재실적과 학술발표실적으로 한다.
 3. 성과급 지원액 및 대상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항목에서 연1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250%이상 성과를 올렸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④ 교육연구팀 전담직원이 연구팀의 운영에 기여했을 경우 인건비 항목에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근무태도 50%, 직무수행능력 50%로 한다. 세부 평가항목은 각 호와 같다.
1. 근무태도: 업무수행의 친절도 25%, 업무수행의 성실성 25%.
 2. 직무수행능력: 업무수행의 전문성 25%, 업무수행의 기획력 25%.
 3. 성과급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은 필요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

2.3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표 2-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 구 분 | | 졸업 및 취(창)업현황 | | | | | 취(창)업대상 자 (C=A-B) | 취(창)업자 (D) | 취(창)업률 (D/C)×10 0 | | |
|-----------------|----|--------------|---------|----|-----|---|-------------------------|---------------|-------------------------|---|---|
| | | 졸업자(A) | 비취업자(B) | | 입대자 | | | | | | |
| | | | 국내 | 국외 | | | | | | | |
| 2021년 2월 졸업자 | 석사 | 0 | 0 | 0 | 0 | X | | | | | |
| | 박사 | 0 | X | | 0 | | | | | | |
| 2021년 8월 졸업자 | 석사 | 0 | 0 | 0 | 0 | | | | | | |
| | 박사 | 0 | X | | 0 | | | | | | |
| 2022년 2월 졸업자 | 석사 | 0 | 0 | 0 | 0 | | | | 0 | 0 | 0 |
| | 박사 | 0 | X | | 0 | | | | 0 | 0 | |
| 2022년 8월 졸업자 | 석사 | 0 | 0 | 0 | 0 | 0 | 0 | 0 | | | |
| | 박사 | 0 | X | | 0 | 0 | 0 | | | | |
| 2023년 2월 졸업자 | 석사 | 1 | X | | | | | | | | |
| | 박사 | 0 | | | | | | | | | |

② 참여대학원생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평가 대상 기간)

<표 2-3>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중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 연번 | 성명 | 졸업연월 | 수여 학위 (석사/박사) |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 현 직장(직위) | | |
|--|---|--------|------------------|------------------|--------------------|-------|------|
| |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 | | | | | |
| 1 | 김영준 | 2023.2 | 석사 | 한문학과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 |
| | 평가대상 기간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1명)은 본 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고전번역교육원(부산밀양분원)을 졸업, 고전번역 역량을 갖추고, 석사논문은 箕子라는 동아시아 공동자산이 조선 사회개혁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이후 星湖 實學을 동아시아 실학의 로컬리티 관점에서 연구할 계획이다. 취(창)업은 아니지만,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에 부합한 학문후속세대의 성장이라는 점에서 사례로 제시한다. | | | | | | |
|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수 | | | | 석사 | 1 | 제출요구량 | 1/10 |
| | | | | 박사 | 0 | | |

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

| 연번 | 학위과정 (석사/박사/ 석박사통합) | 참여 대학원생 성명 | 세부전공 분야 | 실적구분 |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
|---|---------------------------|------------------|------------|------|---|
| 1 | 박사 | 이강석 | 한시 | 저널논문 | ① 이강석 |
| | | | | | ② 『동야취집』 소재 「六臣立節仗危忠」의 인물 형상화와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하여- 「六臣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 | | | | ③ 한문학보 |
| | | | | | ④ 47권(호), pp.245-275 |
| | | | | | ⑤ 1 |
| | | | | | ⑥ 2022년 12월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p>이 논문은 사육신의 충절을 증언한 남효온의 「六臣傳」을 모태로 한 「한문고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밝힌 성과이다. 『東野彙輯』 소재 「六臣立節仗危忠」을 학계 최초로 본격 분석하여 「육신전」이라는 고전이 찬자의 편찬의식에 따라 일정한 서사적 변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즉 『동야취집』에서 ‘육신’ 서사는 육신의 비분함을 지워내고, 「육신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단종을 등장시켰다. 논문에 따르면 이는 세조의 불의에 대한 항거가 곧 단종에 대한 충절이 되면서 역사적 딜레마가 되어 왔던 왕에 대한 불충과 忠節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다. 동시에 숙종대 사육신 및 단종의 복권이라는 역사적 국면과 조우하여 사육신의 충절이 향하는 방향을 단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절’을 강조하는 가치 변화를 주도했음을 규명하였다. ‘육신’의 고전서사가 탄생하는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재-조직해낸 연구 시각과 방법론의 창의성이 인정된다.</p> | | | | | |
| 2 | 석박사통합 | 전민경 | 한문비평 | 저널논문 | ① 전민경 |
| | | | | | ② 조선 지식인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인식 |
| | | | | | ③ 동양한문학연구 |
| | | | | | ④ 59권(호), pp.25-54 |
| | | | | | ⑤ 1 |
| | | | | | ⑥ 2021년 월 |
| | | | | | ⑦ DOI: 10.35374/dyha.59..202106.002 |
| <p>이 논문은 중국 또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주로 다루어온 기존 연구의 흐름에 견주어, 이슬람 세계에 대한 조선의 인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신진연구자로서 시각과 결과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조선 전기 관료 문인 成俔으로부터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보이는데 그는 중화주의적 입장에서 ‘무슬림’을 이국인으로 바라보았다. 조선 중기 이수광의 『芝峰類說』·이민성의 『燕槎唱酬集』·</p> | | | | | |

| | | | | | |
|---|---|---------------|----|----------|--|
| | <p>김중청의 『朝天詩』에 이르면 이슬람 세계에 대한 확대된 지식과 관심이 보이고, 조선 후기의 연행록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 양적으로 매우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와 인물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이 매우 많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다. 조선 지식인의 네트워크가 협소하여 세계인식 또한 편협해진 측면이 있고, 청의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지식인이 가졌던 세계인식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p> | | | | |
| 3 | 박사 | 최금자 | 한시 | 저널논문 | ① 최금자 ② 목재 흥여하의 교유 양상 연구-교유시를 중심으로- ③ 동양한문학연구 ④ 59권(호), pp.173-209 ⑤ 1 ⑥ 2021년 06월 ⑦ DOI: 10.35374/dyha.59..202106.006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영남의 관료이자 문인인 木齋 洪汝河(1621-1678)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그의 향촌 네트워크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중·후반 목재와 동시대에 활동한 향촌 사족들의 면면과 관계망을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당면한 현실에서 사족 네트워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규명하는 창의적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이 논문은 목재가 지역 유력한 가문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부친 흥호는 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사승 관계에 속했고, 이것이 목재의 위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규명하였다. 즉 목재가 영남 향촌 사족들과 폭넓게 교유하는 한편 부친으로부터 전수된 유력 학맥을 통해 퇴계학 전수라는 큰 목표를 견지하면서 사족으로서 위상을 가졌음을 규명해낸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17세기 향촌사의 구도를 향촌 사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구하고, 교유하며 창작된 문학작품을 통해 그 실질적인 상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학계 기여도가 인정된다.</p> | | | | |
| 4 | 박사 | SUN PING (孫萍) | 한시 | 국제 저널 논문 | ① PING SUN ② A Brief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Zhu Zi's "Feelings of Living in Leisure" (《齋居感興》): Centered on the Joseon ③ Communication & Education Review, MASON PUBLISH GROUP, U.S.A ④ 2-9 ⑤ 22-26 ⑥ 2021년 9월 ⑦ https://doi.org/10.37420/j.cer.2021.068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동아시아학」 지평에서의 고전연구에 기여한 글로벌한 연구실적으로 공자애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사상과 학문의 古典인 朱熹(1130~1200)의 작품 「齋居感興」을 연구한 성과를 中國 陝西師範大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On-line)하고, 美國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영어로 게재한 실적이다. 주희의 「재거감흥」은 단일 문학작품으로 가장 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 중 특히 조선에 끼친 영향이 큰 동아시아의 고전이다. 철학자·사상가로서의 주희의 면모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었지만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소외된 편이었다. 이 연구는 문학작품으로서 「재거감흥」의 형식적·내용적 특성에 주목한 창의적 성과이다. 그리고 조선의 문인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주희의 「재거감흥」을 수용·전파·연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조선에 주희의 사상과 문학이 수용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밝힌 의의가 있다.</p> | | | | |

| | | | | |
|------------|-------|----|-------|-------|
| 총 참여대학원생 수 | 석사 | 5 | 제출요구량 | 37/10 |
| | 박사 | 20 | | |
| | 석박사통합 | 12 | | |
| | 계 | 37 | | |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5>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 연번 | 학위과정 (석사/박사/ 석박사통합) | 참여대학원생 성명 |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
|----|---------------------------|------------------------------|-----------------------|--|
| 1 | 박사 | 전민경 | 구두 | ① 전민경 |
| | | | | ② 여행록에 나타난 조선후기 만주 인식 |
| | | | | ③ 동양한문학회 제142차 하계학술발표대회 |
| | | | | ④ 1 |
| | | | | ⑤ 2021년 7월 9일, 대한민국, 부산 |
| 2 | 석사과정 | 李丹 (LI DAN) 장서희 김남희 | 구두 | ① 李 丹, 장서희, 김남희, 김승룡 |
| | | | | ②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 | | | | ③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
| | | | | ④ 3 |
| | | | | ⑤ 2023년 2월 3일,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
| 3 | 석박사통합 과정 | 배태수 | 구두 | ① 배태수 |
| | | | | ② 石谷 李圭峻의 저술과 연구 |
| | | | | ③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
| | | | | ④ 1 |
| | | | | ⑤ 2023년 1월 7일~8일, 臺灣, 臺北, 國立政治大學 道藩樓 224 회의실 |
| 4 | 박사과정 | 장서희 | 구두 | ① 장서희 |
| | | | | ② 『崧陽耆舊詩集』속 開城人の 정체성 연구 |
| | | | | ③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
| | | | | ④ 1 |

| | | | | |
|------------|-------|----|-------|--|
| | | | | ⑤ 2023년 1월 7일~8일, 臺灣, 臺北, 國立政治大學 道藩樓 224 회의실 |
| 총 참여대학원생 수 | 석사 | 5 | 제출요구량 | 37/10 |
| | 박사 | 20 | | |
| | 석박사통합 | 12 | | |
| | 계 | 37 | | |

②-1 평가대상 기간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실적 개요

<표2-5>에 제시한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우수성을 서술하기에 앞서, 평가대상 기간동안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 개요를 아래에 제시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전체 발표 건수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COVID-19로 인해 국제 학술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연구팀의 지난 수년간의 국내·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치이다. 이는 2~3단계 BK21사업에서부터 본 교육연구팀이 꾸준히 축적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역량을 쌓은 결과로 보인다. 실적을 수치와 아젠다 중심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양적 수치 중심: 총 10건 학술대회 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 7건, 국내학술대회 발표 3건
- [2] 아젠다 중심: 동아시아 2건, 한문고전(및 한문고전 교육) 5건, 로컬지식학 3건

참고로 본 교육연구팀이 사업 계획 당시 조사했던 대학원생(전체) 국내·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개요를 도표로 아래에 제시한다. 외부 대학과 비교하여 양적 우월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본 교육연구팀이 수년에 걸쳐 꾸준히 보여주는 성장세, 증가하는 국제학술 활동 추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29. 교육연구팀 대학원생(전체) 국내·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추이]

| 연도 | 연도별 양적 추이 | | | | | | | 5년간 연평균 | 2020.9 - 2023.2 (BK21FOUR 사업 기간)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소계 | | | |
| 국내학술대회발표(건) | 5 | 3 | 5 | 9 | 9 | 31 | 6.2 | 3 | |
| 국제학술대회발표(건) | - | - | 1 | 5 | 9 | 15 | 3 | 7 | |

*출처: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3.1.3.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우수성」

아래 도표에 [참여대학원생 국내·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개요를 제시하였는데 이전보다 진보·발전한 지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학술회의」 발표 실적은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 On-Line과 현지 발표의 성과가 모두 있고, 석사과정생도 공동 연구를 통해 발표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참여대학원생들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성과를 국제(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성과 확산의 범위를 국제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BK21FOUR 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제화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화 성과를 내실화·실질화하는 것이다. 즉 공동연구, 장기 해외연수, 한국어와 외국어로 된 공동논문 및 저서를 출판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는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이 점은 추후 본 교육연구팀이 적극적인 대책과 보완을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양적 증가와 관련이 있는 현상이어서, 양적 감소세가 발표 실적 전체의 감소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향후 본 교육연구팀이 자리잡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술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에서의 학술교류와 발표를 연구 국제화의 모태로 삼는 전략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아젠다」 영역과 관련하여 볼 때, 위 발표들은 성장하는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보여준다.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학생들은 본 학과의 「2020 대학원 혁신교육과정」의 정규교육과 로컬스터디와 같은 「자체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한문학 고전소양을 쌓았다. 각자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는 한편, 국내에서 제한된 시각을 넘어 국내·국제 학술행동을 통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로컬의 문제를 사유하는 학문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갖추면서 우수한 신진연구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표30. 참여대학원생 국내·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 ■는 아젠다 영역별 대표실적

| 연번 | 아젠다 영역 | 발표명 | 학술회의명 | 발표연월 | 참여저자 | 국내·국제/ 주최국, 장소 |
|----|-----------|------------------------------------|--|------------|----------|---|
| 1 | 동아시아 |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후기 만주 인식 | 동양한문학회 제142차 하계학술발표대회 | 2021.07.09 | 전민경 | 국내/ 동양한문학회 |
| 2 | 동아시아 한문고전 | 浅论朱子《斋居感兴》的教育功能—以朝鲜朝为中心 | 第十届汉字与汉字教育国际研讨会 | 2021.08.19 | SUN PING | 국제/ 陝西師範大學 人文社會科學高等研究院, 中國, 西安 |
| 3 | 한문고전 | 한문단편 속 地官의 형상화와 그 의미 | 동양한문학회 제143차 추계학술발표대회 | 2021.10.01 | 이강석 | 국내/ 동양한문학회 |
| 4 | 한문고전 | 『東野稟輯』의 『諧鐸』 수용 양상의 일국면 |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 2023.01.07 | 이강석 | 국제/ 國立政治大學 道藩樓 224 회의실, 臺灣, 臺北, |
| 5 | 한문고전 교육 |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 2023.02.05 | 김남희 | 국제/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
| 6 | 한문고전 교육 |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 2023.02.05 | LI DAN | 국제/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
| 7 | 한문고전 교육 |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 2023.02.05 | 장서희 | 국제/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
| 8 | 로컬지식 | 목재 흥여하의 교유 연구-향리사족들과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 제14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 2021.03.26 | 최금자 | 국내/ 동양한문학회 |
| 9 | 로컬지식 | ■石谷 李圭峻의 저술과 학문 |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 2023.01.07 | 배태수 | 국제/ 國立政治大學 道藩樓 224 회의실, 臺灣, 臺北, |
| 10 | 로컬지식 | ■『松陽耆舊詩集』속 개성인의 정체성 연구 |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 2023.01.07 | 장서희 | 국제/ 國立政治大學 道藩樓 224 회의실, 臺灣, 臺北, |

②-2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2-5>에 제시한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우수성을 각 실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표실적 1: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 후기 만주 인식 / 동양한문학회 142차 학술발표회

이 발표문은 「동아시아」 지평에서의 한문학 연구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실적이다. 이 발표문은

조선 후기 연행록에 실린 만주족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 만주족에 대한 인식을 규명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면에서의 창의성이 돋보인다. 특히 조선의 만주족에 대한 직접적·체험적 인식에 초점을 두고 만주족에 대한 인식의 기원인 여진족을 직접 목격한 申忠一의 사례를 분석한 뒤에 조선 후기 만주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즉 처음에 조선이 신충일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의 위협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연행이 누적되면서 만주족의 淸帝國의 위엄과 위협성을 인식하게 되고, 만주족의 객관적 실체를 인식하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친교를 맺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홍대용의 화이론 해체를 제외하고는 결국 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만주족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규명한 이 성과는 한국 한문학계는 물론이고 중국 학계에서도 참조가 될 만한 학술적 기여가 인정된다.

나. 대표실적 2: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이 발표문은 「한문고전」의 현대적 활용으로서 현장에서의 한자교육의 문제를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이란 큰 관점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석사과정 李丹·김남희, 박사과정 장서희, 그리고 김승룡 교수의 공동연구 성과이다. 현장의 한문 교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교육의 기초로 강조한 한국의 「2015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한 것이다. 한국의 「2015 교육과정」 중 한문 교과에서 한자교육과 인성교육이 연동되어 구성된 체계를 「학습내용」 「성취표준」 「학습요소」 「교육방법」 「평가방법」의 순으로 살피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中國에서 古詩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사례, 그리고 나아가 『논어』 『중용』과 같은 고전과 ‘삼강오상’ 같은 윤리적 가치를 적용한 사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한자-한문이 갖는 현대적 의의 중 하나인 인성교육에서의 활용적 측면을 一國을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창의성과 기여도가 있다.

다. 대표실적 3: 石谷 李圭峻의 저술과 연구 / 臺灣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이 발표문은 경북 영일 지역의 대표적 한학자로, 「南石谷, 北濟馬」라 하여 「근대 한의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석곡 이규준의 저작과 그간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발표자는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고 한문학과 전통 로컬지식의 조우를 상징하는 儒醫로서 석곡 이규준에 대한 차분한 공부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발표문은 그런 공부의 과정에서 발표자가 석곡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나름의 상을 그려본 결과이다. 석곡의 생애를 연월별로 꼼꼼하게 年譜로 만들고 25건에 달하는 저작물을 목록화한 뒤 그와 관련된 문헌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등 문헌학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저작의 형태 서지와 목록, 내용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시하여 석곡을 연구하는 문헌적 토대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발표문의 마지막에서는 「석곡에 관한 활동들」이라는 절을 두고 「소문학회」 등 석곡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지리적 위치와 역사, 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학문의 출발점에 선 신입연구자인 발표자가 문헌자료-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역 한문학이 생성된 현장-로컬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배우고 실천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라. 대표실적 4: 『崧陽耆舊詩集』속 開城人의 정체성 연구 / 國立政治大學 2023年 韓國語文學 國際學術會議

이 발표문은 로컬 관점에서 창강 金澤榮(1850-1927)이 편집한 『崧陽耆舊詩集』 속에 나타난 開城人의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이다. 개성은 고려 왕조의 王都에서, 조선 건국 후에는 멸망한 왕조의 수도로 배척받기도 했고, 「개성상인」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상업정신을 독특하게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개성」과 「개성인」은 여러가지 복잡미묘한 시선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발표문은 그런 점에서 착안

하여 『崧陽耆舊詩集』을 개성 지역 문인 詩選이 아닌 개성인의 정체성을 마주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개성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절의」의 측면, 조선 왕조 들어 전 왕조의 수도라는 이유로 停擧승과 같은 차별, 배척을 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士人에서 商人으로 변모」하면서 갖게 된 측면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崧陽耆舊詩集』에 실린 한시 작품들을 분석하였는데, 개성인의 시가 드러내는 懷古와 실의, 달관과 우울함, 긍정과 밝음의 감정들을 개성인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한시를 창작된 그 시대와 그 사람의 맥락 속에서 읽어내면 인간과 역사에 대하여 共感·共鳴하는 古典으로서 보편성을 도리어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시 연구의 좋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3.2 참여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실적

① 수월성 증진 계획 대비 지원 실적 개요

BK21FOUR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 교육연구팀은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해 「아젠다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 성과 산출」과 「국제 공동 교육 및 연구 결실」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 지원으로 학업 성취 동기 강화
- [2] 학부-대학원의 학문 Sequence로 대학원생 학업 생태의 안정화 구축
- [3] 대학원생의 학업성장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수료 이후 학위-취업의 연착륙
- [4] 해외기관과 상호성에 입각한 국제교육으로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성 제고

전략 목표로 [아젠다 전공 역량 강화] [우수 연구성과 장려] [연구의 국제적 결실]의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 계획을 세웠는데 평가대상 기간동안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실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 COVID-19로 인하여 국제 학술활동 지원과 대학 밖 지역 기관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원천적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② 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 수월성 증진 지원 실적」의 가~나에서 설명한다.

[표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계획과 실행 실적 개요]

| 전략 목표 | 계획 | 실행 실적 개요 |
|--------------|--|---|
| 아젠다 전공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협력 대학(기관) 고전어 정규 교육 과정 이수 • 아젠다 집중 세미나 • 대학 및 지역 기관에서 전공 역량 실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부산밀양분원) 한문 연수과정 입학(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2명, 석박사통합과정 1명, 수료생 1명 총 7명 연수과정 재학 중) • 교육연구팀 학습동아리 「로컬지식학-小訥 스터디」(2022-2학기부터 대학원 졸업생·수료생·참여대학원생 전체 참여하여 문헌학-경학-교육학 분야 스터디 진행) • 대학 및 지역 기관에서의 전공 역량 실습: 교육연구팀 학술 세미나 「고전번역학」 「로컬지식학」 「동아시아학」 영역별 학술세미나 기획과 조직(참여대학원생 전체) |
| 우수 연구성과 장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학업 지도와 인센티브로 시행 • 대학원생 집단 저서 및 번역서 제출 •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참여 기회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학업지도와 인센티브 시행: 논문연구 교과 내실화, 「한문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내규」 정비,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마련 및 예산 배정(2023년 상반기, 규정에 의거 평가 후 인센티브 집행 예정) • 대학원생 집단 저서·번역서 제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공역의 『가암시집』(2022, 김승룡·최금자) 출판 성사, 국제학술대회 공동논문 발표(2023, 김승룡·석사과정 이단·김남희·박사과정 장서희), 『동야휘집』 공동번역 진행 중(김남이·참여대학원생)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참여 기회 부여: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경유 인문분야 연구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기획 트레이닝(수료생 이강석·전민경), 번역 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서 『완역 소년한반도』 역자로 등재(2021, 수료생 전민경) |
| 연구의 국제적 결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점화된 기관과 국제교육 내실화 • 학위논문 해외학자 공동심사제 시행 • 학술외국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 「BK21 대학원 혁신」 사업 시행으로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제반 제도적 지원 체계 갖추 •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활동의 대폭 증가에 따른 부산대·교육연구팀 제도적 지원의 실행 필요 • 2~4단계 BK21사업을 통해 구축한 국제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중심으로 초점화하여 실질화 할 필요 |

② 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 수월성 증진 지원 실적

②-1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개요와 수월성

2013년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업적은 연간 논문 3편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학술지 게재 논문 기준 연간 14편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8.6편이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BK21FOUR을 수행하고 있는 2023년 현재, 지난 2년 6개월동안 논문 게재 실적은 총 7편(국제2, 국내5), 역서가 총 5건이다. 편수는 대단한 증가세라 할 수 없으나, 이전에는 없었던 국제학술지 논문 실적이 새롭게 2건 추가되고, 번역서는 지난 2년 6개월동안 제출된 총량이 이전 5년간의 총량과 비슷하다. 한문번역 역량은 고전에 대한 이해와 한문 문해력을 동반하는 고도의 능력이고 번역 「노동」이라 할 만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번역서 실적의 증가는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과 참여대학원생의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는 진중한 무게를 갖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교육의 모든 평가지표가 양적 계량보다는 질적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고, 본 교육연구팀의 방향 또한 이 흐름 속에 있다. 따라서 연구업적물의 양적 수치는 전반적 추세와 잠재적 역량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제시한다. 한편, 2016년의 14편 논문 게재 실적은 주목할 만한데, 본 교육연구팀의 잠재된 역량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목표치로 삼아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32. 전체 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양적 추이]

| 구분 | 연도별 | | | | | |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소계 | 5년간 연평균 | 2020.09~2023.04 참여 대학원생 |
| 논문(편) | 8 | 14 | 9 | 6 | 6 | 43 | 8.6 | 7 |
| 저서(종) | - | - | 1 | 1 | 1 | 3 | 0.6 | 0 |
| 역서(종) | 3 | 1 | - | - | 1 | 5 | 1 | 5 |

*출처: 2015-2019 추이는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3.1.3.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우수성」

*논문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준. 저서와 역서는 공저와 단독을 포함한 수치임

아래 도표에는 [참여대학원생 논문-저역서 실적]을 아젠다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영역별로 각 실적의 의미를 서술하도록 한다.

첫째, [동아시아] 영역의 성과이다. 동아시아 일원으로서 조선, 중국의 지식인과 고전이 어떻게 세계를 그리고 서로를 인식하고 수용 혹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고찰한 성과들이다. 업적 1과 2는 조선 지식인의 만주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여 특성과 한계를 지적하였고, 업적 4는 동아시아 천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朱熹와 그의 작품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교육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조선에서]

의 주회와 그의 작품 수용 양상을, 중국인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영어권 학술지에 게재한 국제적 성과이다. 업적 3은 본 교육연구팀 기획으로 편찬한 결과물을 참여대학원생이 번역한 것이다. 현대 중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의 판도와 위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둘째, [한문고전] 영역의 성과이다. 업적 5, 6은 한문단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각을 제기한 성과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한문단편의 양식적 측면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한 것과 달리, 야담을 그 시대의 이해하는 창으로서 소환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한 방법의 참신함이 돋보인다.

셋째, [고전번역] [로컬지식] 영역의 성과이다. 업적 8,9는 영남 지역 문인 흥여화와 전익구의 시 세계를 고찰한 것이다. 새로운 지역 문인을 발굴하고 그의 시 작품을 학계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업적 11은 대한제국기 잡지인 『소년한반도』를 완역한 것으로, 번역 프로젝트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며 공동 역자로 번역한 성과이다. 업적 10, 12는 중국서적을 번역한 것인데, 업적 10은 중국 의학서를 번역한 성과이며, 업적 12,15는 초기 중국영화사를 한국 학계에 소개한 학술적·문화적 의의가 있다. 업적 11, 12는 참여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번역한 공역서이다. 경북 예천 지역 선비인 가암 전익구의 시와 목재 흥여하의 시를 완역한 것으로, 고전번역서로서의 의의와 함께, 로컬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학계에 알리고, 번역함으로써 대중들과 고전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적 의의 또한 큰 성과이다.

[표33. 참여대학원생 논문-저역서 실적]

■는 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나 사업단 참여 시기 이후에 제출된 실적임

| 연번 | 아젠다 영역 | 논문명/저역서 명 | 게재지(출판사) | 발표연월 | 참여대학원생 성명 | 구분 논문/저역서/역서 |
|----|--------------------|---|---|---------|-----------|--------------|
| 1 | 동아시아 |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 후기 만주족에 대한 인식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연구60(pp.97~122) | 2021.10 | 전민경 | 논문 |
| 2 | | 조선 지식인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인식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연구59(pp.25~54) | 2021.06 | 전민경 | 논문 |
| 3 | |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 | 미다스북스 | 2022.10 | Sun Ping | 역서 |
| 4 | | A Brief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Zhu Zi's "Feelings of Living in Leisure" (《斋居感兴》): Centered on the Joseon | 『Communication & Education Review』 2-9호, MASON PUBLISH GROUP, U.S.A | 2021.09 | Sun Ping | 논문 |
| 5 | 한문고전 | 한문단편에 드러난 地師의 형상화와 그 의미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연구61(pp.159~184) | 2022.02 | 이강석 | 논문 |
| 6 | | 『東野彙輯』 소재 「六臣立節仗危忠」의 인물 형상화와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하여-「六臣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리한문학회/한문학보47(pp.245~275) | 2022.12 | 이강석 | 논문 |
| 7 | | Current Response and Future of Pre-school Education in China | 『Communication & Education Review』 1-3호, MASON PUBLISH GROUP U.S.A | 2022.02 | Sun Ping | 논문 |
| 8 | 로컬지식 | 목재 흥여하의 교유 양상 연구-교유시를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회연구59(pp.173~209) | 2021.06 | 최금자 | 논문 |
| 9 | | ■可庵 全翼耆의 삶과 시세계 | 대 동 한 문 학 회 / 대 동 한 문 학 70(pp.131-162) | 2022.03 | 최금자 | 논문 |
| 10 | | ■尙州 擎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영남학81(pp.309-350) | 2022.03 | 최금자 | 논문 |
| 11 | 고전번역 + 로컬지식 + 동아시아 | 완역 소년한반도 | 보고서 | 2021.08 | 전민경 | 역서 (공역) |
| 12 | | 扁鵲別脈 | 토담미디어 | 2023.02 | Sun Ping | 역서 |
| 13 | | ■가암 시집 | 지만지한국학 | 2022.08 | 최금자 | 역서 (공역) |
| 14 | | ■(지역고전학총서)목재시선 | 지만지한국학 | 2022.08 | 최금자 | 역서 (공역) |

| | | | | | |
|----|----------------------------|-------|---------|----------|----|
| 15 | 중국영화사 - 초기 무성영화 시대의 번역과 발전 | 미다스북스 | 2023.01 | Sun Ping | 역서 |
|----|----------------------------|-------|---------|----------|----|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의 질적 성취를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학술지 논문 게재와 학위취득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2022.04.01.제정, 「부산대 대학원 한문학과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내부 규정」) 양적 수치로 보아 대형 사업단 또는 대학원생 수가 월등하게 많은 팀의 성과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교육연구팀은 부울경 지역에 터잡은 유일한 한문학과에 속하여,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을 인문학(한문학)의 미래 대안으로 삼아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위의 성과는 그런 노정의 한 매듭을 짓는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공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②-2 비교과 연동 교육을 통한 연구 수월성 증진 실적

본 교육연구팀이 연구 수월성 증진의 측면에서 계획 당시부터 중시한 것은 「아젠다 영역 전문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자발적 학습 공동체」 구축과 「교과-비교과 연동 집중 강좌」를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COVID-19로 전세계가 봉쇄된 상황에서 국제 학술 교류의 내실화와 ON Lin 플랫폼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국제 학술활동」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젠다 영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실적이다. 교과 연동 학술세미나로 「동아시아」 「고전번역학」 「로컬지식학」을 기획하여 아젠다에 대한 연구 동향과 주요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원 자체 집단학술활동으로 「로컬지식학-小訥 스터디」를 2022-2학기부터 시작하여 대학원 졸업생·수료생·참여대학원생 전체 참여하여 문헌학-경학-교육학 분야로 나누어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로컬지식학을 한문학과 교육과 연구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구축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표34. 교육연구팀 차원의 아젠다 심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월성 증진 실적]

| 일련 번호 | 프로그램명 | 참가자 | |
|-------|---------------------|---|--|
| | | 과정/참여대학원생 | 성명 |
| 1 | 교과 연동 비교과 아젠다 학술세미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학 세미나 09회 고전번역학 세미나 11회 로컬지식학 세미나 17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대학원생 전체 학술세미나 상세 내역은 본 보고서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참조 |
| 3 | 「로컬지식학-小訥 스터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학: 소논 『四書疑解』 강독과 연구 교육: 소논 『訓蒙帖』 번역 및 서당일기 검토 문헌: 소논 문집 초고 『小訥俚語』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학: 신재식(팀장, 졸업생), 박사과정 강주형, 홍지현, SUN PING / 석사과정 박지예, 이단 교육: 전지원(팀장, 졸업생), 박사과정 장서희, 조현석, 최금자 문헌: 류화정(팀장), 강창규(졸업생), 전송희(수료생), 박사과정 이강석, 김정란 / 석사과정 배태수, 김남희 |

둘째, 교육연구팀의 제도 개선과 정비를 통한 수월성 증진 실적이다. BK21FOUR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제8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 「제12조 성과급 및 장학금」 「제14조 해외연수 등의 국제협력지원 기준」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규정에 의거 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집행할 예정이다. 학위논문 지도 과정을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로 내실화하고, 「한문학과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내규」(2022.04.01.제정)를 완비하여 학위논문제출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학업진로를 설계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부산대학교 [BK21 대학원 혁신] 제도를 활용한 수월성 증진 실적이다. 부산대 대학원혁신실에서 멘토·멘티사업, PNU-Fellowship, 비교과 프로그램(PNU-GCCP), 석박사 학습컨설팅(MLST II 검사)수료생

[그림9. 참조: 2022년 로컬지식학-소訥 스테디 활동 보고서(소놀 문집 검토팀)]

[지역학 스테디 활동 보고]

小訥 盧相穰(1855~1931)의 문집 검토

■ 구성원 : 류화정(팀장), 강창규, 전송희, 이강석, 김정란, 배태수, 김남희

■ 모임의 목적

1.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유일하게 소장된 『小訥俚語』를 통해 소놀집의 전체상을 이해한다.
2. 『小訥俚語』의 목록을 입력하고, 목차 비교를 통해 작품의 출입 및 문구 변화를 확인한다.
3. 목록 정리 작업을 통해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고, 추후 작품 분석도 시도한다.

■ 소놀문집 소개(사진 차례대로 서술)



『小訥俚語』는 노상직의 작품을 최초로 정리한 것으로, 52책(17책 散逸)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다. 『小訥先生文集』은 『小訥俚語』를 일반적인 문집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문체별로 정리하면서 節刪된 것이다. 후세에 전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精緻하지 않은' 작품들은 삭제되었고, 총독부의 검열 과정에서 일부 원고가 누락되어서 최종적으로 48권 24책과 목록 1책, 총 25책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서 누락된 원고는 續集으로 간행하기 위해 7책으로 정리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續集은 「遺事」、「碑」、「記」、「墓碑銘」、「墓表」、「序」、「跋」이 각각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韓國文集叢刊』(한국고전종합DB 소재)의 底本은 노상직의 문인들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1933년에 紫巖書堂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을 증보 재편

FOUR [로컬지식학] 스테디 모임...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연구업적을 제출하였다. 박사수료생을 지원하는 「PNU-Fellowship」 선정, 우수 박사수료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PNU-GCCP 과정을 이수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이 융합적·창의적 사고를 갖고 현대 사회의 첨예한 흐름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학 차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인다,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사업 세부 영역 그림을 아래에 함께 제시한다.

[표35. 대학 차원의 <BK21 대학원 혁신>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월성 증진 실적]

| 일련 번호 | 프로그램명 | 성격/효과 | 과정/참여대학원생 성명 |
|-------|-------------------|---|---|
| 1 | PNU-Fellowship | 우수한 박사수료생에 대한 연구비 지원 | 박사수료 전민경(2020) |
| 2 | 우수박사수료생 연구지원 | 박사수료생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연구력 강화 | 박사수료 최금자(2020) |
| 3 | 석박사학습멘토링 | 멘토와 멘티를 통한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 박사수료 최금자, 박사후연구원 이상봉(2021) |
| 4 | 비교과 프로그램 PNU-GCCP | [석학초청 연구특강] [PNU-GCCP 연구방법세미나] [PNU-GCCP 데일카네기 라이브 온라인 과정] [PNU-GCCP 미래인재특강] | 박사수료 이강석(4회) 석사과정 김영준(1회) 박사과정 SUN PING(2회) |

[그림9. 부산대학교 BK21FOUR 「GRAND-PNU」 대학원 혁신사업 세부사업-학생 부분]

| | | |
|-------------------|------|--------------------------|
| ① 학생중심 연구지원 체계 강화 | R1-① | 학술연구지원 확대 |
| | R1-② | PNU Fellowship |
| | R1-③ | 대학원생 맞춤형 장학 |
| | R1-④ | 대학원생 행정 ZERO화 |
| ② 연구역량 지원 체계 강화 | R2-① | 신진교원 저임지원 강화 |
| | R2-② | 교육 및 연구 증진 제도 개선 |
| | R2-③ | 교육 및 연구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
| | R2-④ | PNU Rising Star Award 도입 |
| | R2-⑤ | 전임교원 확보 |

*출처: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4단계 BK21사업 <https://graduate.pusan.ac.kr/grad/62219/subview.do>

4. 신진연구인력 운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표 2-6> 교육연구팀 신진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신진연구인력 수 | | |
|---------|-------------------|-----------|----------------|
| | 평가 대상 기간 내 총 인원 수 | 총 참여 개월 수 | 1인당 평균 참여 개월 수 |
| 박사후 과정생 | 2 | 30 | 15 |
| 계약교수 | 0 | 0 | 0 |
| 계 | 2 | 30 | 15 |

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본 교육연구팀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BK21FOUR 사업을 계획하며 세운 핵심 전략은 「예측가능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POOL의 확보」이며, 이를 위한 지원 전략은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 강화」이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을 아래에 보인다.

①-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예측가능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POOL의 확보」은 본 학과에 입학한 대학원생이 과정을 수료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학문 연찬의 과정을 거쳐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는 자생적 구조를 구축한 것을 말한다. 즉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대학원생」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신진 연구자」로, 그리고 「무게 있는 연구를 수행해 가는 중견 연구자」로 성장해 가는 미래가 안정되게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체계의 가장 근간은 바로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의 확보와 배출」이다.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POOL」이기 때문이다. 이는 「예측가능한 학생 미래」 전략이기도 한데 현재 본 교육연구팀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POOL」은 2~3단계 BK21사업을 거쳐 BK21FOUR의 결실로 매우 안정된 형태로 구축되었다. 이는 참여대학원 확보와 배출 실적과 연동되어 있다. 우선 BK21FOUR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 이후 4년간 석사·박사·석박통합, 수료생 포함한 참여대학원생 연평균 확보율이 12.2명이고, 2023년 1학기 현재 참여대학원생은 16명이다. 본 학과 학부생이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해 대학원에 곧바로 진입하는 케이스도 2022학년부터 본격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대학원생이 학위를 취득하여 신진연구자로 진입한 추이」이다. 난해한 한문문헌을 정리·번역하는 단계부터 시작되는 한문학 분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10년정도의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한문학과는 지난 10년간 본 학과는 약 10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남윤덕, 이상봉) 또한 BK21사업의 장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된 것인, 「예측가능한 학생 미래」 전략의 한 사례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안정적 수치의 참여대학원생 확보와 박사학위자 배출로 「예측가능한 신진연구인력 POOL」 형성
- [2] 「우수 대학원생→창의적 신진연구자→견실한 중견연구자」의 「예측가능한 대학원생 미래 구도」 안착

2019년 BK21FOUR 사업 시작과 함께 2023년 3월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본 교육연구팀은 「2명의 신진연

구인력」을 확보하였다. 아래에 신진연구인력 확보 현황을 도표로 제시하고, 「교육·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인력의 우수함을 보이도록 하겠다.

[표36.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 성명 | 근무 기간 | 전공분야 | 채용 직위 | 박사학위 |
|-----|--------------------------|------|---------------------|-----------------|
| 이상봉 | 2020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 한 시 | POST-DOC (연수연구원) | 2018년 부산대 한문학박사 |
| 남윤덕 | 2021년 9월 1일~2023년 2월 28일 | 한국경학 | POST-DOC (연수연구원) | 2018년 부산대 한문학박사 |

지난 2년 6개월간 2명의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 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교육·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단 참여 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12편의 KCI등재논문」과 「5건의 저역서」 실적을 제출하였다. 이는 2~3단계 BK21사업을 수행한 「5년」간 신진연구인력의 KCI등재논문 14편 게재 실적과 비교해 보면 매우 진보한 수치이다. 학술교류의 성과인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국내학술대회 5회, 국제학술대회 1회이다.

[표37.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교육·연구 실적 개요]

| 영역 | 활동 내역 | 활동 성과 |
|----|---|--|
|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젠다 기반 우수 연구 및 교육 수행 국내·국제 학술활동 및 연구 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I등재논문 12편 cf. 2014~2020 14편 / 저·역서 5권(단독3, 공동2) 출간 국내학술대회 발표(7회)·국제학술대회 발표(1회) 및 연구자 교류 |
|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 활동 참여대학원생 학업 및 학습활동 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대학원생 확보 위한 학부생 교양 및 전공 교육(6개 교과, 160명 이수) 참여대학원생 아젠다 심화 학습 기획과 학습멘토링(BK21 대학원 혁신사업, 2021) |

아래 본 교육연구팀 신진연구인력이 사업단에 참여한 이후 제출한 논문·저역서 실적을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실적: 논문·저역서·국내·국제학술대회 실적] 표로 보인다. 아래 표의 아젠다 영역 설명에서 확인되듯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는 한문고전을 기본으로 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핵심 아젠다인 「로컬지식」에 집중되어 있다. 신진연구인력 이상봉은 본 교육연구팀 소속 신진연구인력으로 참여하는 동안 해운대·동래 지역의 로컬리티에 관한 심화된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 또한 박사논문 주제 인물이기도 했던 이재 황윤석에 대하여 지역 사족으로서 삶의 행보와 의식을 연구하는 한편 황윤석의 시를 선별하여 번역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이재 황윤석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연구서를 내는 등 심화된 독자적 학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진연구인력 남윤덕은 로컬 연구의 지평에서 경북 칠곡 출신 사족 회당 장석영의 학문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고전으로서 『주역』『맹자』가 조선에서 어떻게 이해·활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표38.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실적: 논문]

■는 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나 사업단 참여 시기 이후에 제출된 실적임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성명 | 논문제목 | 게재학회/학술지명(페이지) | 연월 | 구분 | 총저자수 |
|-------|--------|-----|--|-------------------------------|---------|--------|------|
| 1 | 동아시아 | 이상봉 | ■시경·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 근역한문학회/한문학논집63 (pp.55-76) | 2022.10 | KCI 등재 | 2 |
| 2 | 동아시아 | 이상봉 | ■『詩經』「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연구 63(pp.155-181) | 2022.10 | KCI 등재 | 2 |
| 3 | 로컬지식 | 이상봉 | ■부산 동래의 기억 -정추의 <東萊懷古>에 대하여- | 남도문화연구소/남도문화연구 46(pp.7-30) | 2022.08 | KCI 등재 | 1 |

| | | | | | | | |
|----|------|-----|--|----------------------------------|---------|--------|---|
| 4 | 한문고전 | 이상봉 |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 한문고전학회/한문고전연구44 (pp.89-114) | 2022.06 | KCI 등재 | 1 |
| 5 | 로컬지식 | 이상봉 | ■윤현의 <萊州雜詠>에 묘사된 17세기 초의 부산 동래 | 대동한문학회/대동한문학71 (pp.125-149) | 2022.06 | KCI 등재 | 1 |
| 6 | 로컬지식 | 이상봉 | ■현감직에 대한 황윤석의 갈망과 소회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 온지학회/온지논총71 (pp.93-119) | 2022.04 | KCI 등재 | 1 |
| 7 | 로컬지식 | 이상봉 | 백수 양응수의 삶에 대한 가치 의식- 그의 한시를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화학회/한국시가문화연구48 (pp.173~198) | 2021.08 | KCI 등재 | 1 |
| 8 | 로컬지식 | 이상봉 | 해운대의 추억: 한시에 형상화된 해운대 | 대동한문학회/대동한문학67 (pp.279~303) | 2021.06 | KCI 등재 | 1 |
| 9 | 로컬지식 | 이상봉 | 동래에 대한 기억과 그 형상화-정포의 「동래잡시」를 중심으로 | 동양한문학회/동양한문학연구 58 (pp.253~279) | 2021.02 | KCI 등재 | 1 |
| 10 | 로컬지식 | 남윤덕 | 晦堂 張錫英의 『戴禮管見』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경세적 특징 | 동양고전연구소/동방학48 (pp.135~160) | 2023.02 | KCI 등재 | 1 |
| 11 | 로컬지식 | 남윤덕 | 碩齋 尹行恉의 『方是閒輶(上)』 연구 | 동방한문학회/동방한문학89 (pp.179~220) | 2021.12 | KCI 등재 | 1 |
| 12 | 동아시아 | 남윤덕 | 碩齋 尹行恉의 『薪湖隨筆』 經史類 해석에 나타난 『易』 활용양상 연구 | 대동한문학회/대동한문학68 (pp.139~172) | 2021.09 | KCI 등재 | 1 |

[표39.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실적: 저역서]

■는 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나 사업단 참여 시기 이후에 제출된 실적임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성명 | 저역서 제목 | 출판사 | 출판연월 | 구분 | 총저자수 |
|-------|-----------|-----|-------------------|---------|------|----|------|
| 1 | 로컬지식 | 이상봉 | ■이재난고의 풍경과 서정 | 학자원 | 2022 | 저서 | 1 |
| 2 | 고전번역 로컬지식 | 이상봉 | ■이재시선 1 | 지만지한국문학 | 2022 | 역서 | 1 |
| 3 | 로컬지식 | 이상봉 |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력과 과거 | 흐름출판사 | 2021 | 저서 | 10 |
| 4 | 로컬지식 | 이상봉 | 이재 황윤석 연구의 새로운 모색 | 흐름 | 2020 | 저서 | 10 |
| 5 | 로컬지식 | 남윤덕 | 석재 윤행임의 사서학 연구 | 학자원 | 2023 | 저서 | 1 |

위에서 제시한 표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실적: 논문·저역서]에서 신진연구인력 이상봉의 논문 1~6과 저역서 1~2는, 실적이 제출된 시기는 본 교육연구팀에서 신진연구인력으로 근무한 이후이다. 그럼에도 이 성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시경』과 같은 고전의 번역과 활용, 부산 동래와 전라도 사족 황윤석에 대한 연구 등 동아시아·로컬리티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일련의 연구는 문제의식과 주제에서, 한문고전 번역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지식·로컬지식학의 아젠다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화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진연구인력이 본 교육연구팀에서의 학문연찬 과정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한문고전과 로컬리티 연구에 진중한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40. 신진연구인력 수월성 실적: 국내·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는 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나 사업단 참여 시기 이후에 제출된 실적임

| 일련 번호 | 아젠다 영역 | 이름 | 발표주제 | 주최·학술대회명/국내·국제 | 연도 | 장소 |
|-------|--------|----|------|----------------|----|----|
|-------|--------|----|------|----------------|----|----|

| | | | | | | |
|---|--------------|-----|---|---|------------|------------------------------|
| 1 | 로컬지식 고전번역 | 이상봉 | 황윤석 한시에 나타난 '솔'의 이미지 | 이재연구소 제14회 학술발표회 이재 황윤석의 「西行日曆」과 科擧/국내 | 2021.06.25 |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
| 2 | 로컬지식 | 이상봉 | 현감직에 대한 황윤석의 갈망과 소 회 | 온지학회 2021년 춘하계 연합학술대회/국내 | 2021.10.12 | 온라인 ZOOM |
| 3 | 한문고전 한문교육 | 이상봉 |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 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 한국한문고전학회 2021 동계학술대회/국내 | 2022.01.21 | 온라인 ZOOM |
| 4 | 로컬지식 | 남윤덕 | 碩齋 尹行恉의 정치 성향 재론 -西學 및 특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제7차 학술세미나/국내 | 2022.12.16 | 경상국립대학교 남명학관(31동) 106호 |
| 5 | 로컬지식 | 남윤덕 | 晦堂 張錫英의 『戴禮管見』 연구 |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서 활용 학술 연구 발표회/국내 | 2022.11.28 | 온라인 ZOOM |
| 6 | 로컬지식 | 남윤덕 | 碩齋 尹行恉의 『方是閒輯』연구 | 동방한문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국내 | 2021.10.23 | 온라인 ZOOM |
| 7 | 로컬지식 | 남윤덕 | 남야 박손경의 시세계 연구 | 예천박물관 제1회 학술대회 嶺南三老 남야 박손경의 삶과 문학/국내 | 2021.10.21 | 경북 예천박물관 세미나실 |
| 8 | 동아시아 | 남윤덕 | 『맹자』해석에 나타난 윤행임과 정약 응의 人物性異論 비교 | 단국대 일본연구소 HK+ 사업단 제16회 국제학술대회_동아시아의 학문과 지식권력/국제 | 2022.11.29 | 단국대학교(죽) 상경관 410, 411호 |

①-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제도적 지원 장치 강화」이다. 이는 신진연구인력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과 연구·교육 환경, 후생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점차 확대해 가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교육연구팀이 시행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의 주요 내용은 「고용안정성과 복리후생·연구인센티브 강화», 「공간 확보를 통한 연구환경 개선», 「연구성과의 국제화와 확산을 위한 지원」이다. 이같은 제도적 지원은 부산대가 대학원 혁신실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구동하고 있는 「BK21 대학원 혁신사업」과 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용안정과 급여는 신진연구인력이 안정된 연구를 수행하는 토대이다. 더하여 연구인센티브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 공간의 정비 또한 신진연구인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도록 돕는 장치이다. 이런 기본 바탕 위에서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실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제도 개선으로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생·연구인센티브 강화하여 연구·교육 지속가능성 보장
- [2] 부산대 「BK21 대학 혁신사업」의 연구역량 지원 체계를 활용한 연구·교육 역량 성장 지원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 채용은 우리 대학과 BK21FOUR사업 훈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 임용-퇴직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직위는 신진연구인력의 희망에 따라 POST-DOC(연수연구원)으로 부여하고, 「고용계약서」에 의거하여 근무 및 급여와 복리후생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과 관련된 규정과 제도를 점검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진연구인력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전담 사무원을 채용」하여 교육연구팀의 행정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적용하였다.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을 준수하고, 신진연구인력과 교육연구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임용-

퇴직 절차를 진행하였다. 학술활동을 위한 논문게재료 및 발표비 지원은 물론이고, BK21FOUR에서는 학술활동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역서 출판비」와 「연구 국제화 비용」을 예산에 책정,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국제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당연한 제도적 보장이다. 또 연간 250%의 연구실적을 달성하라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예산을 조정했다. 2021년 8월에는 신진연구인력(이상봉)이 그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둘째, 독립된 연구 공간 확보로 연구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신진연구인력의 활동 공간으로 본 교육연구팀 전용 연구실(부산대 교수연구동 312호)를 확보하여 사용 중이다. 현재는 사무원과 한 연구실에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자 중심 연구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의 크기와 위치, 쾌적함이 보완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신진연구인력이 교육-연구의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매 학기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양 강의를 배정하였다. 강의는 신진연구인력이 한문학 전공자로서 가진 연구 역량과 교육적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구 성과를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된다. 아젠다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학부 및 대학원 강의 개설도 향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 차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문후속세대 단기 강의기회 제공」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41.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교육-연구의 선순환을 위한 강의 실적]

| 일련번호 | 이름 | 강의명 | 구분 전공/교양 | 학기 | 수강생수/정원 |
|------|-----|-------------|-------------------|--------|---------|
| 1 | 이상봉 | 한국한문학비평자료선독 | 학부 전공 선택/부산대 한문학과 | 2020-2 | 18/18 |
| 2 | 이상봉 | 한시미학의 탐구 | 학부 전공 필수/부산대 한문학과 | 2020-2 | 31/40 |
| 3 | 이상봉 | 동아시아 고전의 탐구 | 학부 전공 선택/부산대 한문학과 | 2021-1 | 19/19 |
| 4 | 남윤덕 | 한문(I) | 학부 교양 선택/부산대 한문학과 | 2021-2 | 34/35 |
| 5 | 남윤덕 | 한문(II) | 학부 교양 선택/부산대 한문학과 | 2021-2 | 27/30 |
| 6 | 남윤덕 | 한문(I) | 학부 교양 선택/부산대 한문학과 | 2022-1 | 34/35 |

이상 본 교육연구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부산대학교가 구동하고 있는 「BK21 대학원 혁신사업」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가 BK21FOUR 사업을 위하여 구동한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모델은 교육, 연구, 산학&지역공동체, 국제화, 교육연구 질관리의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대학원생들을 위한 PNU-Fellowship·PNU비교과프로그램 등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신진연구인력이 대학 차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성과는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환경 및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PNU Rising Star Award」,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시행 및 고용 안정화 노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부산대학교가 BK21FOUR BK21 대학원 혁신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18. 부산대학교 BK21FOUR 「GRAND-PNU」 대학원 혁신사업 추진모델]은 다음 페이지)

[그림10. 부산대학교 BK21FOUR 「GRAND-PNU」 대학원 혁신사업 추진모델]

*출처: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4단계 BK21사업 <https://graduate.pusan.ac.kr/grad/62219/subview.do>

● BK21 FOUR 「GRAND-PNU」 대학원 혁신 사업 추진모델*

부산대학교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지역공동체, 국제화, 교육연구 질 관리의 혁신(Innovation)을 기반으로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지속적 성장 추구



②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대표 연구 실적

<표 2-7>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신진연구인력 대표 연구 실적

| 연번 | 구분 | 성명 | 참여 시작일 | 실적구분 | 대표 연구 실적 상세내용 |
|----|---------|-----|-----------|------|--|
| 1 | 박사후 과정생 | 남윤덕 | 2021.9.1. | 저널논문 | ① 남윤덕 |
| | | | | | ② 晦堂 張錫英의 『戴禮管見』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경세적 특징 |
| | | | | | ③ 동방학 |
| | | | | | ④ 48권(호), pp.135~160 |
| | | | | | ⑤ 2023년 02월 |
| | | | | | ⑥ DOI 번호 해당 없음 |
| | | | | | 이 논문은 한문고전의 미래가치를 구체화하는 연구로서의 로컬지식학 아젠다를 구현한 성과이다.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을 살았던 경북 칠곡 출신의 晦堂 張錫英(1851~1926)의 대표 禮學 저서인 『戴禮管見』에 나타난 사상 및 경세적 특징과 학술 성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석영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氣質之性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학문 성향을 보 |

| | | | | |
|---|--------|---|-------|---|
| <p>였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井田制’의 한계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限民名田制’의 적합성을 긍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의 업적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학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논문이 연구에 기여한 바는 첫째,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경북 칠곡 출신 예학 전공자 장석영의 위상을 가능케 볼 수 있게 했다. 둘째, 1Locality 이해에 기여했다. 19세기 이후 조선은 ‘家家禮’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예학이 전국적으로 발달했다. 예학이 각 가문, 지역 단위의 특색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에 관한 로컬지식의 구성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Locality 이해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한문고전번역’을 기본으로 ‘로컬지식’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목적에 부합한다.</p> | | | | |
| 총 신진연구인력 수 | 박사후과정생 | 2 | 제출요구량 | 1 |
| | 계약교수 | 0 | | |
| | 계 | 2 | | |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8>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연번 | 참여교수명 | 참여기간 (YYYYMMDD-YYYYMMDD) | 연구자등록번호 | 세부전공분야 |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 물 |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
|-----------------------------|---|-----------------------------|----------|--------|--------------------------|---|
|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 | | | | | |
| 1 | 김승룡 | 2020.09.01 -2023.02.28 | 10026019 | 한시 | 강의(K-M OOC) |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PNUk+PE_C01+2020_KM019/about |
| | <p>K-MOOC 강좌 「[집콕]한시공감」(2021.2.23~3.31, 2023.2.27~6.9)은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漢詩라고 하는,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古典을 통한 마음읽기와 위로를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대학 밖의 공간으로, On-Line 플랫폼을 활용하여 확산되고 공유되면서 한문고전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건전하고 양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한다면, 고전은 가장 좋은 교육의 지표가 되며 고전을 전공하는 학문후속세대에게도 이같은 고전교육은 미래의 중요한 푼대가 될 수 있다. 김승룡 교수는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도 「인공지능, 에너지신산업, 환경, 로컬」(부산대학교)을 주제로 한 K-MOOC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9월부터 「Project Busan: 글쓰는 골목」 강좌를 진행한다. 이처럼 On-Line 플랫폼을 활용한 K-MOOC 강좌의 운영 경험과 실적은 본 교육연구팀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현대사회에서 적용가능한 고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 되고 있다.</p> | | | | | |
| 2 | 이준규 | 2020.09.01 -2023.02.28 | 10037536 | 한국경학 | 논문(교육) | DOI:10.35374/dyha.62..202206.007 |
| | <p>「소놀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동양한문학회연구62, 2022)은 전통시대 서당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이다. 소놀 노상직(1854~1931)은 1899년부터 현재 경남 밀양시 소재 紫巖書堂에서 강의하면서 정기적으로 대규모 강회를 열고,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방대한 서당교육 자료를 남겼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서당교육 자료는 ‘서당에 관한 최대 교육인류학적 보고서’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교육의 내용과 함께 서당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자료로서 교육학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전통시대 지식인들이 人才양성의 거점이자 儒學을 전수하는 교육중심지로서 서당과 서당교육에 몰두했던 역사적 현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문고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선을 요구한다. 또한 소놀 노상직의 자료는 부산대학교가 유일하게 원본을 소장하고 있거니와, 로컬 지식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대규모 집중적인 지역학 연구의 수립이 요청되는 바 서당교육자료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들은 소놀의 서당자료를 포함한 소놀의 방대한 자료를 「로컬지식」의 아젠다 관점에 집중하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교육-연구의 선순환의 좋은 사례가 된다.</p> | | | | | |
| 3 | 김승룡 | 2020.09.01 -2023.02.28 | 10026019 | 한시 | 저서 | ISBN: 979-11-6910-090-8 93300 |
| | <p>『交流-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미다스북스, 2022)은 본 교육연구팀 김승룡 교수 주편에 의한 저서로,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 연구와 토론의 성과를 집성하여 동아시아_로컬의 관점의 교육용 도서로 활용하고자 한 저서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팀장 김승룡 교수가 중국연구소 소장으로서 中國 復旦大學, 北京大 外國語學院, 中國社會科學院大學, 山東大 등 8개 대학과 「미래차이나 지식포럼」 강좌를 공동기획하였다. 2021년 7월~11월 사이 총 10강의 On-Line 강좌를 열고 「중국 관점에서의 동아시아 이해」의 실</p> | | | | | |

| | | | |
|---------------------------|--|--------------------------|-----------------|
| | <p>제, 「한중 고전번역과 문학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일련의 집중적 세미나에서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정치·문화의 중심임을 자부하는 중국의 자기중심주의적 시각에 대한 성찰과 대응 방안, 동아시아 일부로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집중적인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축적된 세미나의 성과를 교육과 연계한 것인데, 특히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로컬 관점에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동아시아 지평에서 한국한문학 연구의 가능성과 연구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자 교과서로서 성공적인 사례이다.</p> | | |
| <p>총 환산 참여교수 수</p> | <p>6명</p> | <p>제출요 구량</p> | <p>1.4~2,8건</p> |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계획과 역량

본 교육연구팀은 2~3단계 BK21사업에서 축적한 국제활동 경험과 기관·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4단계 BK21FOUR사업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 「해외에서의 교류 실질화-결실」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교육 국제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아래에 도표로 정리된 「BK21FOUR 교육 국제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표42. BK21FOUR 교육 국제화를 위한 전략]

| | [목표]와 전략 | 국제화 거버넌스 | 실행 방안[교육 프로그램] |
|----|--|---|--|
| 도약 | <p>[동아시아_로컬 지평 확보]</p> <p>-한국학 차세대 국제 연구연대 -한문고전 동아시아 교육연대</p> | <p>PEAL_NET [PNU Esat Asia Localege Network]</p> <p>中國, 南京大, 上海師範大 日本 慶應大, 二松學舎 臺灣 政治大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학자초청세미나] 이론탐색,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학적 체계 수립을 위한 해외 전문학자 중심의 집중적 세미나 • [국제청년연구자포럼] 과제해결, 공동학술기획 및 차세대 교류 지속으로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연구 성과 제출 • [차세대 한국학연구자 국제학술대회] 현장연계,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섭취 및 한국학 최신 연구 동향을 해외연구자들에게 제공 |
| 기반 | <p>[교육·연구의 국제성 강화]</p> <p>-학위논문과정 국제화 -전공 및 기반 언어역량 강화</p> | <p>PNU BK교육연구팀 +</p> <p>France Université Paris VII-PARIS DIDEROT</p> <p>(*3단계 BK 교류대학 기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 해외학자 공동심사제: 해외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지도연수를 위한 해외연구자 매칭 • 동아시아 한문언어문화 연수: 단발성 단기연수에서 장기연수 및 정규교육과정 이수로 교육과정 국제성 내실화 • 전문적 학술외국어 지원: 대학 제도를 활용한 외국어 논문 전담코디, 외국어 논문 작성 특강 지원 |

*출처: 본 교육연구팀 BK21FOUR 사업계획서 「II.6.1.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위 전략은 「학위논문과정 국제화」 「언어역량강화」와 같은 기반 위에서 본 교육연구팀이 한문고전 동아시아 교육연대의 거점을 도약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대학 차원의 제도 기반, 교육연구팀의 다양한 지원과 국제 학술활동 실천으로 가능한데, 대략 아래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국제 협력대상 초점화: 해외 연구 및 교육의 인적 인프라 구축
- [2] 대학원생 교류 내실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이해도 제고
- [3] 공동 교육·연구 결실화: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외국어 논저서 출판

위의 세 가지 방향은 기실, 본 교육연구팀이 그간 충실하게 추진해 온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적, 역량 위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국제화 역량과 현황을 아래 도표로 제시하였다. 도표는 평가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활동 및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019년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국제화 프로그램은 2019년에서 멈춘 프로그램도 많다. 그러나 2023년 POST COVID-19 시대의 새로운 국제화 전략 수립과 함께,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학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아래 [1]의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총20건, 국제청년연구자 포럼 4회, 단기연수 2회, 해외학자초청세미나 12회이다.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발표 자체는 단기간에 단회성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단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즉 국제 학술회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국제 공동 교육·

연구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단발성 수치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경험치가 있고 대학원생 국제교류 「내실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2]의 국제청년연구자포럼은 본 교육연구팀이 차세대-청년연구자의 동아시아 거점이 되고자 하는 기획에서 야심을 갖고 기획, 시도한 것으로, 대학원생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있다. [3]의 단기연수는 日本 및 臺灣 중심으로 교류를 지속한 실적이다. 이는 본 교육연구팀이 한문고전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육연대를 지향하며 국제협력 대상을 「초점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내실화」 「초점화」 「결실화」의 뚜렷한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본 교육연구팀이 국제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곧 공동 교육·연구 결실화로서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외국어 논저서 출판」을 2023년 이후 뚜렷한 성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표43. 교육연구팀 국제 학술활동 역량(2017~현재)] ■는 평가대상 기간 중 활동

| 구분 | 국가, 연구기관 | 내용 | 기간 |
|--------------------------------|---|---|--------------------------------|
| [1] 국제학술대회 발표 [총20건] | 臺灣, 日本, France Poland, 中國 | [국제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발표 총20건: 「한문고전, 동아시아 지평, 로컬학」 관련 발표 | 2017.01~2023.02 |
| | | [■평가대상기간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발표 총5건, 7명, 3개국] -공동발표 1건(3명: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2023.2.2-2.5) -개별발표 4건(3명: 臺灣, 國立政治大學, 臺北, 2023.1.7.-1.8 / 1명: 中國, 陝西省 西安, 2021.8) *공동발표는 1건으로 계상 | 2023.2 / 2023.2 2021.8 |
| [2] 국제청년 연구자포럼 [총4회] | 臺灣 政治大 韓國文化教育中心 | [청년포럼] 제1회 차세대 한국학연구자 국제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발표 2명 | 2018.06.02 |
| | 日本 慶應大 古典教育研究會 | [청년포럼] 참여대학원생 발표: 慶應大 2명, 교육연구팀 2명 [학술강연] 교수 강연: 慶應大 1명, 교육연구팀 1명 | 2019.01.14~16 |
| | France Université Paris VII-PARIS DIDEROT | [청년포럼] 참여대학원생 발표: DIDEROT대 5명, 교육연구팀 4명 [학술강연] 교수 강연: DIDEROT대 2명, 교육연구팀 2명 | 2019.01.20~25 |
| | 臺灣 政治大 韓國文化教育中心 | [청년포럼] 제2회 차세대 한국학연구자 국제학술대회 참여대학원생 발표 2명 | 2019.06.01 |
| [3] 단기해외연수 [총2회] | 天理大 國際學部 | [8회단기연수] 天理大 하기 특별강좌 “일본의 전통지식과 언어문화” 참여대학원생 1명 선발하여 파견(석사과정 이강석) | 2017.07.07~21 (14박15일) |
| | 臺灣 政治大 韓國文化教育中心 | [9회단기연수] 政治大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강연 참가 참여대학원생 3명 선발하여 파견(박사과정 강창규, 이민경, 전송희) | 2018.01.12~15 (3박4일) |
| 구분 | 국가 | 초청 해외학자 | 세미나 주제 및 아젠다 관련성 |
| [4]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총12회] | 臺灣 日本 中國 蒙古 USA Canada | [臺灣大] 강지은 (2017), 臺灣 | 동아시아와 조선유학사 |
| | | [二松學舍] 牧角悅子 (2017), 日本 | 明治시대 傳統 學知 |
| | | [慶應大] 佐藤道生·堀川貴司·合山林太郎 (2019), 日本 | 동아시아 古典 해석의 문제 |
| | | [浙江大] 束景南 (2017), 中國 | 중국에서의 양명학 연구 |
| | | [National Univ of Mongolia] ARIUNBAIGALI Boldbaatar (2019), 蒙古 | 동아시아와 12세기 몽골 |
| | | [Harvard Univ] Donald Sturgeon (2017), USA [The Ohio State Univ] Danielle O. Pyun (2018), USA | 인문디지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의 동아시아학 현황 |
| | [Univ of British Columbia] Ross King (2019), Canada | 한국고전은 무엇인가? | |
| | France 蒙古 中國 日本 | [■평가대상기간 해외학자초청세미나 총4건, 4개국] | 2019.9.1~2023.2.28 |
| |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김대열 (2021), France |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 |
| | | [■National Univ of Mongolia] ARIUNBAIGALI Boldbaatar(2023), 蒙古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 [■山東理工大學校 外國語大學] 董娟 (2023), 中國 | |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호칭어 번역 연구 | |
| [■大妻女子大學] 酒井 雅代 (2023), 日本 | 통신사와 한일관계 | | |

②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하여 전 세계적 봉쇄 상황을 맞이하면서 ON-LINE을 통한 교류를 위주로,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에 집중하였다. 평가대상기간 최근 3년간의 해당 실적을 중심으로 국제화 성과를 살핀다. 특히 POST COVID-19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화 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기준을 동아시아 지평에서 주체적으로 수립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3년간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 「해외학자 활용 실적」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을 보인다.

②-1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 37명(평가대상기간 누적) 중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명(누적)이다. 현재 2명 재학 중이고 중국 유학생 1명은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COVID-19 시기에 귀국하여 현재 논문을 준비하면서 휴학 중이다. 본 교육연구팀이 속한 한문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희망하여 입시에 지원한 외국인 지원자 수는 더 많다. 특히 일반 대학원 입시와 함께, 대학 차원에서 우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정원외)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본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을 활용한 우수 학생 유치 기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2명의 외국인 학생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수월성을 설명한다.

[표44. 외국인 학생 입학 및 활동 현황]

| 일련 번호 | 국적 | 성명 | 입학년도 | 과정 | 주요 활동 |
|-------|----|---------------|------|------|---|
| 1 | 臺灣 | SUN PING | 2019 | 박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정규 교과 이수 대학원 동하계 학술세미나·월례발표회 기획 및 발표 로컬지식학 스터디 經學 분야 활동 韓-中 번역서 실적: 『交流』(2022) 『중국영화사』(2023) 『扁鵲別脈』(2023) 국제학술대회 발표: 「浅论朱子《斋居感兴》的教育功能—以朝鲜朝为中心」(漢字와 漢字教育國際學術大會, 中國, 陝西省 西安, 2021.8) 국제학술지 외국어 논문 게재: 외국어(영어) 논문 2편 「BK21 대학원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PNU-GCCP 참가: 2022 연구방법세미나(과학과 인문학의 접점과 교차) 이수 |
| 2 | 中國 | LI DAN | 2022 | 석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정규 교과 이수 대학원 동하계 학술세미나·월례발표회 기획 및 참가 로컬지식학 스터디 經學 분야 활동 국제학술대회 발표: 「对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教程」(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On-Line 공동발표) |
| 3 | 中國 | RYU BING BING | 2018 | 석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정규 교과 이수 대학원 동하계 학술세미나·월례발표회 기획 및 참가 대학원생 세미나 「만독회」 참가 COVID-19로 귀국 휴학, 현재 석사학위논문 작성 중 |

상기 외국인 학생들은 中國語-韓國語의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국제 학술 대회에서 중국 고전 및 한자 교육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韓-中 서적 번역 등의 국제적 학술 활동의 구체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재학생들과 함께 대학원 정규 교과를 이수하는 한편, 학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하계 학술세미나와 월례발표회를 기획하고

발표에 참여하여 한문학 연구자로서 학문 연찬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BK21 대학원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PNU-GCCP 등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문연구방법론 과정을 이수하는 등 신진연구자로서 필요한 학문적 시각을 충실하게 습득하고 있다. 국제화 면에서도 성취를 하였는데 박사과정 SUN PING은 2편의 외국어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SUN PING, 「Current Response and Future of Pre-school Education in China」, *Communication & Education Review* 1-3, MASON PUBLISH GROUP, U.S.A., 2022.02
- [2] SUN PING, 「A Brief Discussion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Zhu Zi's "Feelings of Living in Leisure" (《斋居感兴》): Centered on the Joseon」, *Communication & Education Review* 2-9호, MASON PUBLISH GROUP, U.S.A., 2021.09

한편, 앞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교육 국제화를 성취한다는 근본 취지이다. 최근 본 학과의 3년간 외국인 학생 「지원자 수」는 현재 「재학생 수」보다 더 많았다. 즉 모든 지원자를 선발하지 않은 것이다. 본 학과의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한문 능력, 고전 소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자질과 학문적 비전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점이 현재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 수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후로도 계속 부산대학교의 국제처가 주관하는 「일반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엄정한 평가와 선발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림11. 부산대학교 2023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시행계획 (별첨2. 합격자 사정원칙)]

【별첨 2】

합격자 사정원칙

1. 전형 과목

- 서류심사 ※단, 학과(전공)에 따라 면접심사 가능

2. 전형 방법

- 가. 서류심사위원회 구성 : 3 ~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나. 판정 : 지원자의 하위과정 성적, 수학능력, 수학 가능한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과별·대학별 예비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화상) 통화나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과별 예비사정위원회 구성

학과장, 지원자의 전공분야 교수 및 학과의 교수를 포함한 3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고 학과장(부제시 위원장 별도 위촉)은 위원장이 된다.

4. 선발방법

학과별, 대학별 예비사정위원회의 예비사정 후 본부 사정위원회(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②-2 해외학자 활용 실적

본 교육연구팀은 2017년 이후 총 12회에 걸쳐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모두 13명의 학자를 초청하였고, 국가별로는 臺灣·日本·中國·蒙古의 아시아, USA·Canada, France의 7개국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는 「서구의 동아시아학 연구 현황」「동아시아 각국 한국학, 지식학의 현황과 과제」「고전, 고전번역, 고전해석학의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기획된 것이다. 아래에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해외학자 활용 실적을 보인다. 실적에서 확인되듯,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 네트워크는 동북아의 蒙古에서 지구 서쪽의 France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향후 BK21FOUR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교육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실한 국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표45. 해외학자 활용 실적: 아젠다 심화를 위한 세미나]

| 일련 번호 | 활용 분야 | 주제 | 국가* | 강연자(국적, 소속) |
|-------|-----------------|------------------------------|--------|---|
| 1 | 동아시아 아젠다 심화 세미나 |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 | France | 김대열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
| 2 | 동아시아 고전번역학 세미나 |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 | 蒙古 | ARIUNBAIGALI Boldbaata National Univ of Mongolia |
| 3 | 동아시아 고전번역학 세미나 |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호칭어 번역 연구 | 中國 | 董娟 山東理工大學 外國語大學 |
| 4 | 동아시아학 세미나 | 통신사와 한일관계 | 日本 | 酒井 雅代 大妻女子大學 |

*국가는 강연자 소속 대학 국적 기준임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프랑스, 김대열)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파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한국학 연구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국제화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준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후기 외국 문물 수용 양상을, 한국 내부에서가 아니라 유럽인-서양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蒙古, ARIUNBAIGALI)와 「조선시대 『수호지』의 친족호칭어 번역 연구」(中國, 董娟) 세미나는 漢文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고전번역의 생생한 현장이자 어려움을 실제로 體感하는 세미나였다. 중세 이래 동아시아가 漢字를 사용하는 同文의 비전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근대 이후 다양한 역사적 행보를 보여온 만큼 각국의 역사적·생태적 환경의 차이가 빛은 번역의 斷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와 한일관계」(日本, 酒井雅代) 세미나는 한국의 입장에서 주로 파악되어 온 통신사의 실체에 대하여 일본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자는 ‘통신사’라는 ‘외교사절’이 19세기 말 20세기초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양국이 식민-피식민의 시기로 접어들기까지의 漸移 지대가 있었다는 점을 제안하였는데, 동아시아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와 위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었다.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동아시아 지평에서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석되어 왔듯이, 동아시아 지평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맥락(Context)을 조망할 수 있었을 때 진정한 동아시아_로컬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이상의 세미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표 3-2> 사업 참여 기간 내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 연번 | 참여교수명 | 참여기간(YY YYMMDD- YYYYMMDD) | 연구자등록 번호 |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 실적 구분 |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
|---|------------------------|---------------------------------|----------------|----------------|--------------------|-------------------------|
|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 | | | | |
| 1 | 강명관 | 2020901 -20220228 | 10031753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강명관 |
| | | | | | | ② '홍순언 설화'와 利他的 心性의 作話力 |
| | | | | | | ③ 동양한문학연구 |
| | | | | | | ④ 60권(호), pp.123~162 |
| | | | | | | ⑤ 1 |
| | | | | | | ⑥ 2021년 10월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키워드(한글) | ①홍순언 설화 | ②자기손실 | ③무보상 | ④망각 | ⑤이타적 심성 | |
| 키워드(영문) | ①Tale of Hong, sooneon | ②self-sacrifice | ③Uncompensated | ④oblivion | ⑤altruistic nature | |
| <p>이 논문은 '홍순언 설화'라는 「한문고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여, 전통 지식이 현대 사회에도 유의미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 성과이다.</p> <p>조선 후기에 '홍순언 설화'는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지며 널리 전파되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타-보상'이란 구조에 홍순언의 이타적 행위를 얹어 築造된 것일 뿐이다. 기존의 연구가 '홍순언/홍순언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이 논문은 홍순언 설화를 축조한 '機制'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논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다.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돋보인다.</p> <p>이 논문은 조선 후기에 이타-보상 구조의 작품이 어떻게 양산/유통되었는지를 '홍순언 설화'를 통해 살폈다. 전근대 사회에서 수없이 양산/유통된 이타적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선 후기 야담 전반으로 확장하여 『이타와 시여』라는 저서로 완성하였다.(근간 예정)</p> <p>본 교육연구팀은 「한문고전」에 기반한 과거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와 공명할 것을 「교육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본 교육팀의 목표/비전에 매우 부합하는 성과라 하겠다.</p> | | | | | | |
| 2 | 김남이 | 20200901 -20230228 | 10032580 | 인문학 | 역서 | ① 김남이 |
| | | | | | | ② 예원지1,2, |
| | | | | | | ③ 풍석문화재단 |
| | | | | | | ④ 9791189801564 |

| | | | | | | | |
|---|---|-----------------------|----------------|------------|------------------|--|--|
| | | | | | ⑤ 1 | | |
| | | | | | ⑥ 2022년 7월 |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 키워드(한글) | ①임원경제지 | ②예원지 | ③서유구 | ④화훼 | ⑤백과사전 | |
| | 키워드(영문) | ①Imwonkyungjeji | ②Yewonj | ③Seo Yu-gu | ④Flowering plant | ⑤Encyclop(a)edia | |
| | <p>이 역서는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더인 「고전번역학」 「동아시아학」 「로컬지식학」에 모두 부합되는 성과이다.</p> <p>이 역서는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 중 화훼농사 백과사전인 『藝畹志』를 '최초'로 完譯한 것이다. 『예원지』는 분량이 5권 2책, 총 6만 7,436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도 조선 초목의 특징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번역은 至難한 작업이었던 만큼, 학계에 기여하는 바도 대단히 크다. 특히 『예원지』의 참고자료가 된 문헌들은 대부분이 '중국' 서적이기에, 한문을 통한 중국/동아시아 지식/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p> <p>『예원지』의 지식은 「한문고전」의 중심인 문학 장르가 아닌, 주변 지식으로 치부되는 화훼농사 관련 지식이다. 하지만 학문의 다양성과 실용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 더구나 이러한 지식은 과거의 전통 지식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에도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된다. 일례로 경기도 파주시에는 2023년 4월부터 '예원지 학교'를 운영한다. 이는 『예원지』의 번역 성과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전통지식」 「로컬지식」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금의 學知로 전변시켜 新지식을 구축한 성과라 하겠다.</p> | | | | | | |
| 3 | 김남이 | 20200901 -20230228 | 10032580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김남이 | |
| | | | | | | ② 尼山 南廷瓚의 삶과 지향 - 의령 사족으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 | |
| | | | | | | ③ 온지논총 | |
| | | | | | | ④ 66권(호), pp.39~83 | |
| | | | | | | ⑤ 1 | |
| | | | | | | ⑥ 2021년 01월 |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키워드(한글) | ①니산집 | ②남정찬 | ③의령 | ④신안서사 | ⑤유연정 | |
| | 키워드(영문) | ①Nisan Collection | ②Nam Jung-Chan | ③Uiryeong | ④Sinanseosa | ⑤Yuyeonjeong |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경남 宜寧 지역 사족인 尼山 南廷瓚의 문학과 지역사에서 위상을 규명한 '최초'의 성과이다.</p> <p>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만큼 남정찬의 연대기를 소개하고, 그의 문집 『니산집』에 수록된 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니산집』의 체재와 구성을 통해 의령 사족으로서 남정찬과 의령 남씨 가문의 위상을 추적하였다. 영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사족들은 정치적 굴곡을 겪으면서 중앙-서울의 학계·정계로부터 소외되었다. 특히 대</p> | | | | | | |

| | | | | | | | | |
|--|--|-----------------------|----------|-------------|----------|--|--------------------------------|----------|
| <p>한제국기에는 외부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기에, 지역 사족 가문은 한문학 전통 자산을 매개로 그들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공유했다. 본고는 『니산집』의 편찬 역시 이러한 방편의 하나였음을 규명하는 창의적 성과를 이루었다.</p> <p>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인문학_한문 고전을 통해 지역적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지역 문인/문집을 발굴/소개하여 지역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이 논문은 「로컬지식」을 「연구비전」으로 삼아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로컬을 「문화/문명의 거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노력의 일환으로, 남정찬과 『니산집』을 학계에 소개하여 의령 지역 문화의 가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p> | | | | | | | | |
| 4 | 김성진 | 20200901 -20230228 | 10051099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김성진 ② 古文獻을 통한 梁山 城隍祠의 位置와 祠神 比定 ③ 동양한문학연구 ④ 58권(호), pp.65~98 ⑤ 1 ⑥ 2021년 02월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 키워드(한글) | ①양산 성황사 | | ②김인훈 | | ③여제단 | ④신증동국여지승람 | ⑤이만도 |
| | 키워드(영문) | ①Yangsan Sunghwang-sa | | ②Kim Inhoon | | ③Yeoje-dan | ④Shinjung Dongkukyeojiseungram | ⑤YiMando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각종 인문지리지, 관련 詩文, 梁山의 古地圖 등 다양한 고문헌을 통해 梁山 城隍祠의 위치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2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첫째, 궁예가 摩震 개국 후 城隍의 수리를 관장하는 障縉府를 설치한 것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성황사상의 전래시기를 고려 성종대에서 후삼국시대로 앞당겨야 한다는 것. 둘째, 근년에 양산 성황사와 관련된 良州帥의 良州가 경기도 楊州의 오기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후삼국의 세력권 변동 기록에 의거해서 良州帥의 良州는 현재의 梁山임을 논증하였다. 특히 한국 고유의 민속 신앙으로 불리는 ‘서낭사상/성황사상’의 시초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p> <p>본고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로컬 지식학에 대한 관심이 부산에서 인근 지역인 양산으로 확장된 결과의 산물이다. 이러한 부산 및 근교 지역에 관한 일련의 연구 성과는 지역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본 교육연구팀이 목표로 제시한 「지역에서 인문학_한문고전을 통해 지역적 삶의 진정한 개선을 이끌어 낼 가치」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p> | | | | | | | |
| 5 | 김성진 | 20200901 -20230228 | 10051099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김성진 ② 鄭瓜亭曲 創作背景과 그 時期에 대한 文獻의 考察 ③ 동양한문학연구 ④ 64권(호), pp.5~29 ⑤ 1 ⑥ 2023년 02월 | | |

| | | | | | | |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키워드(한글) | ①정과정곡 | ②정서 | ③의종 | ④동래 | ⑤유배문학 |
| | 키워드(영문) | ①Song of Cheongkwajeong | ②Cheong Seo | ③, Eu Jong | ④Dongrae | ⑤exile literature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정과정곡>의 창작 배경과 시기를 다양한 문헌의 고찰을 통해 밝힌 것이다.</p> <p><정과정곡>은 고려시대 문인 정서의 작품으로, 작자가 밝혀져 있는 유일한 고려 속요이다. 정서가 동래로 유배 와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이라는 것이 衆論이다. 그런데 최근 이 작품이 정서가 거제도에 이배된 후 거제도도 유배된 의종과 재회하면서 지은 것이라는 ‘거제도창작설’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는 <정과정곡> 창작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 등을 꼼꼼히 고찰하여, ‘거제도창작설’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정과정곡>의 창작 배경과 시기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 ‘정서가 부산 동래에서, 유배 시절에 지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p> <p>필자 김성진 교수는 지역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부산의 지명에 대한 고찰’(2019), ‘양산 성황사의 위치를 규명’(2021) 등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학술 성과를 제출하였다. 이 논문도 「로컬지식학」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는 「로컬지식학」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라 하겠다.</p> | | | | | | |
| 6 | 김승룡 | 20200901 -20230228 | 10026019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김승룡 ② 『高麗時報』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 ③ 한국문학논총 ④ 92권(호), pp.131~161 ⑤ 1 ⑥ 2022년 12월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키워드(한글) | ①고려시보 | ②개성 | ③송도 | ④고도 | ⑤공기 |
| | 키워드(영문) | ①Koryeosibo | ②Kaesong | ③Songdo | ④ancient capital | ⑤public things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1930년대 개성에서 간행된 신문인 『高麗時報』에 수록된 한시를 통해 松都人의 정체성을 살핀 성과이다.</p> <p>이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보』에는 한시, 시조, 현대시, 소설, 논설문 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실려 있는데, 그중 漢詩는 122수가 수록되어 있다. 한시 분석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송도인의 감성은 ‘고인의 자취, 도시의 풍경, 고도의 회고’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불특정 작자가 투고하여 지역 신문인 개성신문에 게재된 한시는 그 지역성을 보다 잘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개성에서 발간된 신문에 게재된 시를 통해 개성인의 정체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p> <p>특히 『고려시보』는 개성에서 발간된 지역신문이기에, 개성의 특성과 개성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이때 ‘지역’은 중앙에 상대되는 개념이 아닌, 인간의 삶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장소,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의해 구분되는 인간적/인문적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지역사회에 밀착된 전통지식을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중심 권력성을 전복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로컬리티를 모색」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목표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p> | | | | | | |
| 7 | 김승룡 | 20200901 -20230228 | 10026019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김승룡(김임숙) |

| | | | | | | |
|--|---------|-------------------|---------------|-------------------|-----------------------------|-------------------------------|
| | | | | | ② 勅撰漢詩集 『經國集』 所載 悲秋詩 연구 | |
| | | | | | ③ 용봉인문논총 | |
| | | | | | ④ 58권(호), pp.103~136 | |
| | | | | | ⑤ 2 | |
| | | | | | ⑥ 2021년 04월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키워드(한글) | ①일본한시 | ②경국집 | ③헤이안조 | ④비추시 | ⑤고안 |
| | 키워드(영문) | ①Japanese hanshi | ②gyeonggukjip | ③The Heian period | ④a poem of sorrow in autumn | ⑤lonely geese |
| <p>이 논문 「고전번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 가치」를 모색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동아시아학 아젠다를 구현한 성과이다.</p> <p>일본 천황의 하명으로 찬집한 책을 勅撰集이라 한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 찬찬한 한시집이 세 종류인데, 『凌雲集』과 『經國集』, 『文華秀麗集』이 그것이다. 勅撰三集은 일본 最古의 한시집인 『懷風藻』의 뒤를 잇는 한시집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 논문은 勅撰三集 중 가장 권위 있었던 『경국집』에 수록된 한시 중 悲秋詩를 추려내어 분석하고, 비추시의 의경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경국집』 소재 비추시는 동아시아의 비추 전통에 기반하되, 일본 헤이안조의 보편문화를 일구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p> <p>필자 김승룡 교수는 이미 『능운집』(2016)과 『문화수려집』(2017)을 번역/출간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경국집』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는 앞으로 동아시아 시학적 전통의 비교와 각국의 개성적 면모를 밝혀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p>이 논문은 ‘일본 한시’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 준의 학문적 시야와 탈중심적 사유를 확보함으로써 본 교육연구팀이 제시한 「국제화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학」을 구현한 성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p> | | | | | | |
| 8 | 이준규 | 20200901-20230228 | 10037536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이준규 |
| | | | | | | ② 『良齋集』과 良齋學派 문집 체제의 특징과 그 의미 |
| | | | | | | ③ 동양한문학연구 |
| | | | | | | ④ 58권(호), pp.311~344 |
| | | | | | | ⑤ 1 |
| | | | | | | ⑥ 2021년 02월 |
| | | | | | |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키워드(한글) | ①문집 체제 | ②퇴계집 | ③율곡집 | ④율곡전서 |
| | 키워드(영문) | ①Anthology system | ②Toegyepip | ③Yulgokjip | ④Yulgokjeonseo | ⑤Ganjaejip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良齋 田愚의 『良齋集』 편집 체제를 분석하여 문집 외형상의 특징을 따르는 것이 학통 전수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성과이다.</p> <p>이 논문은 조선시대 문집 체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퇴계집』과 『율곡집』을 비교 분석하여, 『간재집』의 편집 체제가 『율곡집』의 체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율곡·우암학파의 적통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p> | | | | | | |

| | | | | | | | |
|---|--|-----------------------|----------|-----------|--------------------|--|----------------------------|
| <p>이는 기존의 문집 체제가 『퇴계집』을 기준으로 편집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또 기존의 내용 위주의 문집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문집의 편집 체제의 분석을 통해 학통의 계보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 방법은 한문학 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식/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인정된다.</p> <p>특히 본 교육팀은 「지역에서 인문학_한문고전을 통해 지역적 삶의 진정한 개선을 이끌어 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논문은 간재 전우라는 지역 문인이 중앙 핵심 문인의 학통을 전수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지역의 연계, 지역적 삶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 등을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기여도가 인정된다.</p> | | | | | | | |
| 9 | 이준규 | 20200901 -20230228 | 10037536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이준규 ② 『華陽俗離金剛松都海州平壤遊記』- 자료해제와 원문정리 - ③ 대동한문학 ④ 64권(호), pp.279~338 ⑤ 1 ⑥ 2020년 09월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키워드(한글) | ①오진영 | | ②최원 | ③전통적 가치 | ④근대문명 | ⑤여행기 |
| | 키워드(영문) | ①Oh Jin-young | | ②Choi Won | ③traditional value | ④ modern civilization | ⑤A record of one's travels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간재학파 문인들의 기행시집을 발굴/소개한 성과이다.</p> <p>이 논문은 김해 月峯書院 소장 필사본 『華陽俗離金剛松都海州平壤遊記』를 해제하고, 원문을 덧붙인 것이다. 『화양속리금강송도해주평양유기』는 1932년 吳震泳이 제자 崔愿, 李普林 등과 화양동-속리산-금강산 등을 여행하면서 함께 지은 한시를 모아서 엮은 紀行詩集이다. 이 시집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첫째 ‘李珥→宋時烈→田愚→吳震泳’으로 이어지는 근대 艮齋學派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희소하기에 더욱 가치가 높다. 둘째 근대전환기 근대문명의 산물인 철로를 이용해서 여행하면서, 여행기는 전통 양식인 한시로 남겼다. 즉, 전통과 근대의 결합된 산물인 것이다.</p> <p>본 교육연구팀은 「전통지식」을 현대인이 원용할 수 있는 지혜로 소통시키고, 「고전번역」을 통해 미래 문명적 創新을 모색할 것, 또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로컬지식」을 문화/문명의 거처로 끌어올릴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전통지식/로컬지식이 현대사회/문명문화에 활용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해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계 기여도가 인정된다.</p> | | | | | | |
| 10 | 정출현 | 20200901 -20230228 | 10025153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정출현 ② ‘잊혀진’ 인물의 재구, 『松溪實紀』 편찬의 정치사회학적 고찰 ③ 민족문화 ④ 56권(호), pp.151~200 ⑤ 1 ⑥ 2020년 12월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 | | | | | |
|----|--|-----------------------|--------------------------|-----------------|--------------------------|---|
| | 키워드(한글) | ①申季誠 | ②曹植 | ③松溪實紀 | ④仁祖反正 | ⑤張顯光 |
| | 키워드(영문) | ①Shin Gye-seong | ②Jo Sik | ③Song Gye-silgi | ④Injo Banjeong | ⑤Jang Hyun-kwang |
| | <p>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팀의 「로컬지식학」 영역에 기여한 연구실적으로, 밀양 지역 문인 松溪 申季誠(1499 ~ 1562)의 삶을 재구하고 있는 『松溪實紀』가 편찬·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정치사회학적 맥락에서 고찰한 성과이다.</p> <p>신계성은 南冥 曹植의 절친한 동지이자 佔畢齋 金宗直을 사숙한 후학으로서, 김해의 新山書院과 밀양의 禮林書院에 배향될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 그리고 松堂 朴莢의 학맥을 계승하고 있어 16세기 전반 道學史의 다채로운 분화와 계승을 살펴보는 데도 관건이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잊혀졌던 인물이었다. 이 논문은 문집 편찬 과정을 조선후기의 복잡다단했던 정치사회학적 맥락과 연동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인정된다. 또 연구대상과 주변 동향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면에 감춰진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 필자의 꼼꼼한 분석과 세심한 탐구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연구 자세는 지역학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지식학을 세계 수준의 학문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전통지식학」 「로컬문화학」을 표방한 본 교육연구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p> | | | | | |
| 11 | 정출현 | 20200901-2 0230228 | 10025153 | 인문학 | 저널 논문 | ① 정출현 ② 김종직의 함양군수 시절, 시문을 통해본 王化의 비전과 그 실천 ③ 율곡학연구 ④ 43권(호), pp.221 ~ 268 ⑤ 1 ⑥ 2020년 12월 ⑦ DOI 번호 해당없음 |
| | 키워드(한글) | ①성종 | ②유교지식인 | ③김종직 | ④함양군수 | ⑤유교문명 |
| | 키워드(영문) | ①King Seongjong | ②Confucian intellectuals | ③ Kim Jongjik | ④Governor of Hamyang-gun | ⑤Confucian civilization |
| | <p>점필재 김종직은 '밀양' 출신 문인 학자다. 논문의 필자 정출현 교수는 지역 한문학의 거점 연구소를 목표로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점필재 연구소를 설립해서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 개인적으로도 점필재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본고 역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p> <p>이 논문은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있으면서 날짜순으로 꼼꼼하게 詩化하여 갈무리하고 있는 『점필재집』 소재 시문 320여 편을 통해 그가 지방관으로서 수행했던 施政, 興學, 風教의 실천적 면모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면모는 김종직이 사림파의 종장이면서 훈구파의 면모 역시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전기 지배집단은 훈구파와 사림파, 사장파와 도학파의 구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의 분류에 의문을 제기하고, 양측의 면모를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인물로 김종직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p> <p>본 교육연구팀은 「탈중심적 사유를 확보하고 로컬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문적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융합·창신형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 혁신성이 인정되며,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에도 부합되는 성과라 하겠다.</p> | | | | | |

②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표 3-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 연번 | 대표연구업적물 |
|----|---|
| 1 | 김남이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 |
| 2 | 김승룡 외 옮김,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한숲, 2015. |
| 3 | 강명관 지음,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푸른역사, 2021. |

②-1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3-3>에 제시한 교육연구팀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의 우수성을 각 실적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대표실적 1: 김남이 외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2015.

김남이 교수는 지난 10년 간 19권의 저역서와 16편의 학술논문을 생산했다. 지은 책으로는 『경계에 선 유교 지식인의 여성 담론』(공저), 『춘정 변계량의 시대정신과 학문세계』(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역주 허백정집』(2014), 『용재총화』(2015), 『역주 점필재집』(2016), 『예원지1,2』(2022) 등이 있다. 조선 전기 한문학 전공자답게 조선 전기의 신진 지식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다양한 문집을 번역하고 있다.

지금 대표연구업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용재총화』도 조선 전기 최고의 만물박사라고 할 수 있는 성현의 저술로, 인물·역사·문학·제도·풍속·설화 등 조선 전기의 온갖 것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 속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편찬된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 전기 문명의 생생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껏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지적 경향과 문화 변동에 관해서는 수많은 저역서가 출간되었지만, 조선 전기 사회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의 번역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책의 번역은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조선 전기, 새로운 문명의 활기가 넘치고 기존과 다른 전망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나갔던 이 시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용재총화』는 김남이 교수가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개설된 강의(2013-2학기, <한문학비평연구 방법론특강>, 수강생 8명)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공동 번역&출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이다. 당시 강의 수강생이었던 8명의 대학원생(류재민, 류화정, 신재식, 엄형섭, 오상욱, 이정혜연, 장미나, 전지원)은 모두 당시 한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팀」(동아시아 한문고전 번역 및 전통지식 기획 전문가 양성 사업팀)의 참여 대학원생이었다. 부산대 한문학과는 BK21FOUR사업에 앞서 2단계BK21사업과 BK21PLUS사업을 수행했는데, 이 사업의 기본은 「한문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이다. 따라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함께 번역하고 공동의 번역서를 출판했다는 것은 BK21 사업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한 성과라 하겠다.

현재 본 교육연구팀 역시 「한문고전번역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번역」을 사업팀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앞선 2단계 BK21사업에서 「한문고전번역 전문가 양성」, 3단계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동아시아 한문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의 연장선에서 ‘지속적 번역’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한문고전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최근 출간된 <지역고전학총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지역고전학총서>는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지역 학자의 고전을 발

굴 번역한다는 기획 아래 출간된 총서이다. 1단계 성과로 2022년에 총 10권이 출간되었는데, 『가암 시집』(전익구 지음, **김승룡 최금자** 옮김), 『관복암 시고』(김승겸 지음, **노현정** 옮김), 『금강산 관상록』(구하 지음, 최두현 옮김), 『목재 시선』(홍여하 지음, **최금자** 옮김), 『서천 시문선집』(조정규 지음, 전설련 옮김), 『양포유고』(최전 지음, **서미나** 옮김), 『이재 시선 1』(황윤석 지음, **이상봉** 옮김), 『죽오 시선』(이근오 지음, **엄형섭** 옮김), 『회봉 화도시선』(하경진 지음, 이영숙 옮김), 『후산 시문선집』(정재화 지음, 정우락 옮김)이 그것이다. 역자들 중 6명이 본 교육연구팀(혹은 앞선 BK21사업)의 참여대학원생 출신이다. 일례로 『죽오 시선』을 번역한 엄형섭은 『용재총화』 번역에도 참여했다. 『용재총화』 번역에 참여했을 때는 BK21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이었지만, 현재는 단독 역서를 출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번역 전문가로 성장한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한문고전」의 번역을 기반으로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학부_대학원_교수간의 정연한 번역교육체계의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 달성의 최고의 성과이자 이상적 모델이 바로 『용재총화』의 번역·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교육연구팀의 주요한 아젠더 중의 하나인 「**고전번역학**」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로 손꼽을 수 있다.

나. 대표실적 2: 김승룡 의 옮김,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한숲, 2015.

김승룡 교수는 지난 10년간 53권의 저역서와 34편의 논문을 생산했다. 본 교육연구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5년간 『새로 풀어쓴 이체마의 동의수세보원』(2022)·『가암시집』(2022) 등의 번역서를 출간함으로써, 한문고전 번역 교육연구팀의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보였고, 『시민의 인성 - 치유인문학강의』(2018)·『시민의 인성2』(2019)를 연이어 출간함으로써 융합적 연구를 통해 「인간적_인본적_인성적 미래가치를 확인」한다는 본 교육연구팀의 목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였다. 또한 『동아시아 지식인문학의 지평을 탐색하다』(2019)라는 저술을 통해 본 교육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를 향한 지식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했고, 중국과 대만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두 차례 이상 발표를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요대학과 활발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김승룡 교수의 업적 중에서 대표연구업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은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더 중 하나인 「**동아시아학**」 영역에 기여한 성과이다.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은 중국 역사학자 왕룽루(王榮祚)가 지은 『A Paradise Lost: The Imperial Garden Yuanming Yuan』를 한국어로 번역한 역서이다. 圓明園은 중국 원림 예술의 최절정기에 지어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황실 御苑인 원명원은 반세기가량 끊임없이 조영되었고, 서양인들의 눈에는 ‘지상 낙원’으로 비쳐졌다. 지금은 전성기 때의 모습이 소실되어 폐허로 남았지만 이 공간이 가진 역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의미하다. 특히 우리 문학사에서 ‘연행’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원명원은 베이징을 방문했던 조선의 사신들이 꼭 방문하던 장소 중 하나였다. 개인이 개별 유람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원명원에서 열리는 황실 공식 연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그래서 홍대용, 서호수, 박지원 등 18세기 대표적 문인들의 연행록에 기록으로 남았던 ‘연행공간’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연행’이 ‘한중 교류의 현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원명원에 관한 역서는 「원전 번역」을 바탕으로 전통지식의 시각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본 교육연구팀의 「한문고전의 번역 능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수준의 학문적 시야와 탈중심적 사유를 확보하여 학문적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지향점과 정확히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표실적 3: 강명관 지음,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푸른역사, 2021.

강명관 교수는 지난 10년간, 총 19권(단독13권, 공동6권)의 저역서와 13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한문학계의 대표학자다. 그의 학문편력은 『홍대용과 1766년』(2014)·『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2017)과 같은 전통한문학에서부터,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 열녀전』(2015)·『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2016)·『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2022)과 같은 여성 분야,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2014)·『왕의 기록, 나라의 일기 조선왕조실록』(2016)·『숙종조 인쇄 출판과 서적문화』과 같은 책과 지식 분야, 『침묵의 공장』(2013)·『이 외로운 사람들아』(2015)·『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2015)·『독서한담』(2016)과 같은 사상과 비평·해외문물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그는 「발전사관을 넘어 국문학 연구를 생각한다」(2015)·「국문학과 근대에 관한 몇 가지 생각」(2015)·「실학과 과거의 해석」(2017)과 같이 거시적인 담론을 발제해서 학계에 관심을 받기도 했고, 「신태영의 이혼」(2014)·「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2016)·「조선전기 婦處制와 사나운 처(悍婦)」(2016)·「조선 초기 실행 여성에 대한 도덕 권력의 처벌- 趙禾의 처 이씨의 경우」(2018)·「조선전기 士族女性の 婢女 살해」(2019) 등의 논문을 통해 여성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원전에 근거한 자료제시와 심플한 논리구성으로 이루어진 그의 글은 많은 동료 학자들과 독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원전에 근거했다는 것은 한문 원전자료에 대한 번역 능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뜻하고, 논리구성이 단순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이런 장점들은 「한문고전 번역」을 기본으로 「로컬지식」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명관 교수의 업적 중에서 대표연구업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이라는 책은 ‘대구 사족 유유가 가출하면서 발생한 가짜 남편 소동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성과이다. 이항복이 쓴 <유연전>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한 「한문고전」이자 대구 지역 사족의 이야기인 「로컬지식」을 대상으로 삼아, 탁월한 「고전번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학을 넘은 전통지식학의 구성과 신(新) 지식학의 구축」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잘 일치하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가짜 남편’ 사건이 있었다. 1558년 대구 사족 유유가 가출하면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6명의 무고한 죽음을 낳으면서 당대의 화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종종 시기에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상반되어 남아 있기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이 책은 유연의 억울함을 알리려는 의도로 쓰인 李恒福의 <유연전>과 재조사를 거치며 사건의 최종 약인으로 지목된 이계의 억울함을 소명한 權得己의 <이생송원록>,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꼼꼼히’ 읽고 사건을 ‘츄츄히’ 재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면서 문학이 은폐한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유연전>이 아닌, <유연전>이 그리고 있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삶과 욕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국문학계와 한문학계가 <유연전>을 소송사건을 다루는 訟事소설 혹은 公案소설이라는 관점에서 파고 들었다면, 이 책에서는 문학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관습을 근거로 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된 문화적 가치를 우선한 것이다. 이것이 본 교육연구팀이 「연구비전」으로 제시한 전통지식을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중심의 권력성을 전복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로컬리티를 모색하여, 미래 문명사회의 주동력인 「로컬지식」의 21세기적 창신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책의 성과는 본 교육연구팀의 주요한 아젠더 중의 하나인 「로컬지식학」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실적

①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현황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은 평가대상 기간 2년 6개월간(2020.09~2019.12) 총 21편의 저역서를 출간하였고, 등재(후보) 학술지에 2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평균 1인당 저역서 저술이 3.5편,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게재가 4.5편 정도이다. 이는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실적을 거둔 것으로, 인문계열 교수 연구업적의 상위 그룹에 해당한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업적을 많이 제출하였다. 우선 참여교수의 학술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KCI 피인용 지수가 대체로 1~4회 정도이고, 특히 <四佳 徐居正의 東國文明 비전과 文章華國의 실천>(정출헌)의 경우는 7회로 상위(인문학-한국어와 문학 분야)에 올라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또 참여교수의 실적이 출판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니(강명관, 『속중조 인쇄 출판과 서적문화』; 2021년 한국출판학술상 우수상), 이 또한 본 교육연구팀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저서의 경우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연구는 「한문고전」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학 연구의 패러다임과 기풍을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간 참여교수들이 제출한 저역서는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서평대상으로 리뷰되면서 학계와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또 이렇게 산출된 성과들은 인문고전 강좌에서 활용되면서 인문학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의 평가대상 기간 연구실적을 아젠다 중심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46. 평가 대상 기간(2020.09~2023.12) 동안 참여교수 저역서]

| 연번 | 아젠다 영역별 | 저역서명 | 출판사명 | 연월 | 저역자중 참여교수 |
|----|-----------------------|---|----------------|---------|-----------|
| 1 | 고 전 번 역 학 | 의령금란계안 : 탈초·표점·번역 | 동성출판사 | 2021.04 | 이준규 |
| 2 | | (역주)고악보1 | 민속원 | 2021.06 | 강명관 |
| 3 | | (역주)고악보2 | 민속원 | 2021.06 | 강명관 |
| 4 | | (역주)가보1 | 민속원 | 2021.06 | 강명관 |
| 5 | | (역주)가보2 | 민속원 | 2021.06 | 강명관 |
| 6 | | (국역) 지산유고 | 경상북도독립운동 기념관 | 2021.12 | 정출헌 |
| 7 | | (새로 풀어 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 미다스박스 | 2022.04 | 김승룡 |
| 8 | | 예원지 : 화훼농사 백과사전1 | 풍석문화재단 | 2022.06 | 김남이 |
| 9 | | 예원지 : 화훼농사 백과사전2 | 풍석문화재단 | 2022.06 | 김남이 |
| 10 | | 가암 시집 | 지만지한국문학 | 2022.08 | 김승룡 |
| 11 | 동 아 시 아 학 | 독서한담 : 오래된 책과 헌책방 골목에서 찾은 심심하고 소소한 책 이야기 | 휴머니스트 | 2021.12 | 강명관 |
| 12 | |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들 : 인간을 묻다 | 부산대학교출판문 화원 | 2022.09 | 김승룡 |
| 13 | |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 | 미다스박스 | 2022.10 | 김승룡 |

| | | | | | |
|----|-----------------------|------------------------------|--------------------|---------|----------|
| 14 | 로 컬 지 식 학 | 시민의 인성3,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 부산대학교출판문 회원 | 2020.11 | 김승룡 |
| 15 | |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상) | 단국대학교출판부 Nosvos | 2021.06 | 정출현 |
| 16 | | 새롭게 본 천안학의 이해(하) | 단국대학교출판부 Nosvos | 2021.06 | 정출현 |
| 17 | |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 푸른역사 | 2021.08 | 강명관 |
| 18 | |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 역락 | 2022.02 | 정출현 |
| 19 | |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력과 과거(이재학술총서7) | 흐름 | 2022.03 | 김승룡 |
| 20 | | 춘정 변계량의 시대정신과 학문세계 | 보고사 | 2022.03 | 정출현, 김남이 |
| 21 | | 점필재 김종직의 도학 다시보기 | 문사철 | 2022.06 | 정출현 |

[표47. 평가 대상 기간(2020.09~2023.12) 동안 참여교수 논문실적]

| 연번 | 아젠다 영역별 | 논문명/KCI 피인용 횟수 | 게재학회/학술지명 | 구분 | 출판연월 | 참여교수 |
|----|--|--|-------------------------|---------|---------|------|
| 1 | 고 전 번 역 학 | 조선전기 유생상소와 조정공론 - 15세기 유생상 소를 중심으로 -/KCI 피인용 횟수 : 0 | 한국한문고전학회/ 한문고전연구45-1 | 등재지 | 2022.12 | 김남이 |
| 2 | | 대한제국기 관료 李重夏의 경전 강연 -大東學會 를 중심으로-/KCI 피인용 횟수 : 1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회연구61 | 등재지 | 2022.02 | 강명관 |
| 3 | | 勅撰漢詩集『經國集』所載 悲秋詩 연구/ KCI 피인용 횟수 : 0 | 인문학연구소/ 용봉인문논총58 | 등재지 | 2021.04 | 김승룡 |
| 4 | | The Korea Magazine 수록 英譯 이규보 한시 의 특성과 그 의미/KCI 피인용 횟수 : 3 |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67 | 등재지 | 2020.09 | 김승룡 |
| 5 | | 『華陽俗離金剛松都海州平壤遊記』- 자료해제 와 원문정리 - /KCI 피인용 횟수 : 1 |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64 | 등재지 | 2020.09 | 이준규 |
| 6 | 동 아 시 아 학 | 일본 '최초의 외교사서' 『善隣國寶記』 試考 - 15세 기 '海東諸國'의 心象地理에 대한 소묘 -/KCI 피 인용 횟수 : 0 |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92 | 등재지 | 2022.09 | 김남이 |
| 7 | | 조선 전기 동국문명의 비전과 그 구현 양상 -태 조~세종대의 궁궐 관련 敎書-策問, 殿閣命名, 樂 章制作을 중심으로-/KCI 피인용 횟수 : 0 |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61 | 등재지 | 2022.06 | 정출현 |
| 8 | | 四佳 徐居正의 東國文明 비전과 文章華國의 실 천/KCI 피인용 횟수 : 7 |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59 | 등재지 | 2021.06 | 정출현 |
| 9 | 로 컬 지 식 학 | 鄭瓜亭曲 創作背景과 그 時期에 대한 文獻的 考察/KCI 피인용 횟수 : 0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64 | 등재지 | 2023.02 | 김성진 |
| 10 | | 『高麗時報』수록 한시에 나타난 松都人의 정체성 연구/KCI 피인용 횟수 : 0 |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92 | 등재지 | 2022.12 | 김승룡 |
| 11 | | 일제강점기 晦峰 河謙鎭의 현실인식을 위한 시 론-滄江 金澤榮을 시준점으로/KCI 피인용 횟수 : 0 |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76 | 등재지 | 2022.12 | 김승룡 |
| 12 | | 尙州 擎天臺와 시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KCI 피인용 횟수 : 0 |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81 | 등재지 | 2022.06 | 김승룡 |
| 13 | | 소눌 노상직의 서당교육과 서당교육자료 -부산 대학교도서관 소장 소눌문고를 중심으로-/KCI 피인용 횟수 : 0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62 | 등재지 | 2022.06 | 이준규 |
| 14 | 야담의 口演 현장과 敍事雜錄으로의 전환 -임진 왜란 평민의병 諸沫의 일화를 중심으로-/KCI 피인용 횟수 : 0 |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46 | 등재지 | 2022.06 | 정출현 | |

| | | | | | |
|----|--|----------------------|-----|---------|-----|
| 15 | 枕山 李洙仁의 인간담론과 인간에 대한 태도 /KCI 피인용 횟수 : 0 |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69 | 등재지 | 2021.12 | 김승룡 |
| 16 | 김종직의 사제관계와 도학사적 위상/ KCI 피인용 횟수 : 1 | 우리한문학회/ 한문학보45 | 등재지 | 2021.12 | 정출현 |
| 17 | ‘홍순언 설화’와 利他的 心性的 作話力/ KCI 피인용 횟수 : 2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60 | 등재지 | 2021.10 | 강명관 |
| 18 | 豫菴 河友賢의 持敬의 삶과 經學에 대한 태도 /KCI 피인용 횟수 : 0 |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71 | 등재지 | 2021.09 | 김승룡 |
| 19 | 춘정 변계량의 삶의 자세와 학문의 목표 - 한시를 통해 본 여말선초 지식인의 학적 지향과 내면 행로 - /KCI 피인용 횟수 : 0 |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45 | 등재지 | 2021.08 | 김남이 |
| 20 | 豫菴 河友賢의 삶과 시세계의 일국면/ KCI 피인용 횟수 : 1 | 경남문화연구원/남 명학연구69 | 등재지 | 2021.03 | 김승룡 |
| 21 | 古文獻을 통한 梁山 城隍祠의 位置와 祠神 比定 /KCI 피인용 횟수 : 1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58 | 등재지 | 2021.02 | 김성진 |
| 22 | 『良齋集』과 良齋學派 문집 체제의 특징과 그 의 미/KCI 피인용 횟수 : 4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58 | 등재지 | 2021.02 | 이준규 |
| 23 | 김종직의 함양군수 시절, 시문을 통해본 王化의 비전과 그 실천/KCI 피인용 횟수 : 3 | (사)울곡학회/ 울곡학연구43 | 등재지 | 2020.12 | 정출현 |
| 24 | ‘잊혀진’ 인물의 재구, 『松溪實紀』 편찬의 정치 사회학적 고찰/KCI 피인용 횟수 : 0 |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56 | 등재지 | 2020.12 | 정출현 |
| 25 | 『東稗洛誦』의 전대 이야기 수용 양상 -전대 문 헌 수재 「朴震憲」과 「楊士彦 모친」을 중심으로 /KCI 피인용 횟수 : 1 | 동양한문학회/ 동양한문학연구57 | 등재지 | 2020.10 | 정출현 |
| 26 | 枕山 李洙仁의 삶과 시세계에 대하여/ KCI 피인용 횟수 : 2 |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74 | 등재지 | 2020.09 | 김승룡 |
| 27 | 尼山 南廷瓚의 삶과 지향 - 의령 사족으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 /KCI 피인용 횟수 : 1 | 온지학회/온지논총6 6 | 등재지 | 2021.01 | 김남이 |

이상이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생산한 연구실적이다. 저역서가 총 21편, 논문이 총 27편이다. 연구 주제도 매우 다양해서, 고전과 역사, 여성과 생활사 등을 아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48. 아젠다별 연구 실적 분포]

| 실적 | 아젠다 영역 | | | |
|-----|--------|------|-------|----|
| | 고전번역학 | 아시아학 | 로컬지식학 | |
| 저역서 | 10 | 3 | 8 | 21 |
| 논문 | 5 | 3 | 19 | 27 |
| 총계 | 15 | 6 | 27 | |

저역서와 논문 실적을 합쳐 「고전번역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15편, 「동아시아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6편, 「로컬지식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27편이다. 로컬지식학 영역의 연구 실적이 월등하고, 고전번역학/로컬지식학에 비해 동아시아학 영역의 연구 실적이 미진하다.

본 교육연구팀의 명칭은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 지식학 전문가 교육 연구팀’이다. 즉, 한문고전의 ‘번역’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학과 로컬지식학’ 전문가를 교육하는 것이 본 사업팀의 주

된 목표이다. ‘한문고전번역’은 앞선 BK21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업 목표로서, 동아시아 학과 로컬지식학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가 이와 관련된 성과를 많이 생산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연구 실적이 ‘로컬지식학’에 치중된 것은 본 연구팀이 부산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것이 기인한 탓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본 교육연구팀이 제시한 네 가지 아젠다는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밀착된 전통지식을 학문적으로 추구하고, 중심의 권력성을 전복할 수 있는 비판적 대안으로서의 로컬리티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만 「국제화비전」으로서의 ‘동아시아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성화하여 좀더 균형 잡힌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②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및 실적

본 교육연구팀은 평가 대상 기간 2년 6개월(2020.9~2023.2) 기간 동안 저역서 총 21편, 논문 총 27편으로, 1인당 평균 저역서 3.5편, 논문 4.5편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사업 신청서(2020) 당시 본 연구교육팀의 연구 성과는 3년간(2017.1~2019.12) 저역서 총 22편, 논문 총 35편으로, 1인당 평균 저역서 3.7편, 논문 5.8편이다. 표면적인 통계는 평가 기간 연구역량이 사업 신청 당시보다 감소한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 연구 성과 현황은 좀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평가대상 기간이 2년 6개월은 사업 신청 당시 기준인 3년보다 6개월이 짧다. 둘째,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사업 신청 당시 총 6명이었는데, 1명의 참여교수의 명예퇴직으로 3년차에는 참여교수 수가 5명으로 1명이 줄어, 평가대상 기간 평균 참여교수 수는 5.6명이다. 즉, 평가대상 기간의 축소와 참여교수의 감소라는 요인이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신청 당시 연구실적 대비 평가대상 기간 연구실적 현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49. 사업신청 당시 연구 실적 대비 평가대상 기간 연구 실적]

| | 기간 | 참여교수 | 저역서 | 논문 | 비고 |
|-------|-----------------------|------|-----|----|-------------------------------|
| 사업신청시 | 3년(2017.1~2019.12) | 6명 | 22 | 35 | |
| 평가대상 | 2년 6개월(2020.9~2023.2) | 5.56 | 21 | 27 | 3년차(2022.3-2023.2) 참여교수 1명 감소 |

따라서 본 교육연구팀의 평가 대상 기간 연구 실적이 사업 신청서보다 결코 감소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연구 성과는 큰 낙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실적은 연도별 연구 성과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면모를 보이기 위해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50. 연도별 연구 실적]

| | 시기 | 저역서 | 논문 | 비고 |
|---------|------|-----|----|----|
| 사업신청 이전 | 2018 | 6 | 14 | |
| | 2019 | 2 | 8 | |
| 평가대상 기간 | 2021 | 10 | 11 | |
| | 2022 | 10 | 9 | |

이상의 [표50]를 살펴보면, 논문의 경우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4편과 8편이었고, 평가 대상 기간 중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편과 9편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저역서의 경우는 사업 신청 당시 기준이 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편과 2편이었던 것이, 평가대상 기간 중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편과 10편으로, 이전보다 실적이 훨씬 증가했다. 이는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진 참여교수들이 저서를 통해 무게 있는 연구실적을 내는 단계에 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사업 신청 당시의 연구역량도 대단히 우수했지만, 사업 이후 평가대상 기간 내에는 이전보다 ‘향상’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겠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 아젠다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 특히 본 교육연구팀은 앞서 2~3단계 BK21사업팀 아젠다를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전보다 활발하고 수준 높은 연구 실적을 배출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표 3-4>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연번 | 실적명 | 참여교수명 | 실적 해당 분야 | 실적 요약 |
|-------------|------------------------------------|-------|-------------|---|
| 1 | 근대계몽기의 공부거리 | 강명관 |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 강명관 교수는 '1)전근대-근대로의 교체와 관련된 문제 2)근대 지식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 3) 근대전환기 연구의 과제와 연구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의 강연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20세기 초 근대전환기에 기원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문제의 기원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 강연은 오늘날 산업·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2 | 동아시아고전읽기 _<내 마음의 한시> 강좌 | 김승룡 |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 김승룡 교수는 김해울하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동아시아고전읽기_내 마음의 한시-唐詩강독> 맡아 일반 대중들에게 漢詩의 美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이 강좌는 오프라인 강의는 물론, 온라인 도서관 유튜브를 통해서도 널리 시청되었다.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만큼, 현대인에게 정서적 심표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인문학의 역할이기도 함을 상기한다면, 이 강좌는 한시를 통해 현대인들의 삭막한 정서를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 3 |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 망명과 접리수생활(1)-(2) | 정출현 | 지역 특화 | 부산대 점필재연구소에서 주관한 <점필재인문아카데미>는 지역 문인/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로컬지식학」 강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강연 또한 '근대 전환기 경남 유학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소놀 노상직'에 관한 것이다. 정출현 교수는 현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문화」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이나 「해외」와 교류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 총 환산 참여교수 수 | | 5.6명 | 제출요구량 | 1.4~2.8 |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에서 인문학-한문고전을 통해 지역적 삶의 진정한 개선을 이끌어 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한문고전에 대한 번역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_지역_로컬(Local)을 새로운 아젠다의 지평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고전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출현하여 「고전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관」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산업화 시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장점은 ‘한문고전 번역 능력’이다. 이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그동안 아래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 왔다.

- [1] 대중강연을 통한 한문고전과 전통지식의 활성화
- [2] 인문교양서 및 한문고전 번역서 발간을 통한 대중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은 평가대상 기간(2020.9.1~2023.2.28) 다양한 종류의 [한문고전 번역]·[동아시아학]·[로컬지식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고, 여러 가지 인문교양서들과 한문고전 번역서를 출판했는데, 이는 「한문고전」 번역과 「로컬지식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참여교수들이 자신들의 교육·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참여교수의 아젠다 관련 대중 강연을 통한 사회 기여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대중 강연_인문학 대중화 활동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51. 참여교수 대중 강연 실적]

| 연번 | 일시 | 연제 | 주최 | 참여교수 |
|----|--|------------------------------------|-------------|------|
| 1 | 2020.09.04 | 1)공자의 군자론과 점필재의 정의 2)13경과 고전해석학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2 | 2020.09.18 | 1)점필재 한시와 도연명 2)주자대전과 조선 성리학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김남이 |
| 3 | 2020.10.15 | 지센린의 '우봉잡역'과 문화대혁명 |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 김승룡 |
| 4 | 2020.10.23 | 밀양에서 경남 실학을 논하다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5 | 2021.03.12. ~2021.06.15 매주(금), 10강 | 동아시아 고전읽기_당신의 감성을 충전해 줄 '내 마음의 한시' | 김해올하도서관 | 김승룡 |
| 6 | 2021.06.03 | 서당의 일상과 풍경(1)(2)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7 | 2021.06.17 | 밀양의 고서와 고문서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8 | 2021.06.24 | 밀양 선비의 일기(1)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이준규 |
| 9 | 2022.08.02 | 논어, 나의 마음을 해방시키다 | 해운대구청 | 김승룡 |
| 10 | 2022.08.12 | 경남정신의 전형을 찾아서 | 경남문화연구원 | 김승룡 |
| 11 | 2021.10.28 |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1)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정출현 |
| 12 | 2021.11.11 |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2) | 점필재인문아카데미 | |
| 13 | 2021.12.02 | 근대계몽기의 공부거리 | 점필재연구소 | 강명관 |

② 참여교수의 인문교양서 및 한문고전 번역서 출간을 통한 사회 기여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교양서적을 집필하거나 인문교양에 도움이 되는 번역서를 출간해서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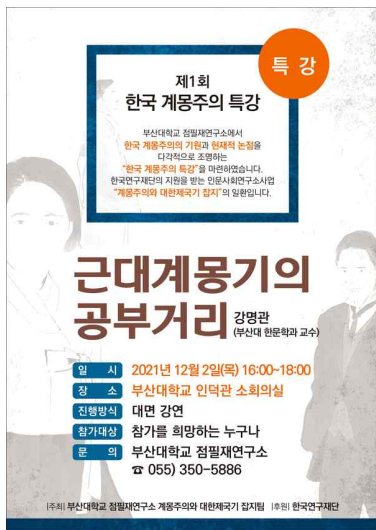
[표52. 참여교수 인문교양서적 출간 실적]

| 연번 | 아젠다 영역별 | 저서명 | 출판사 | 출판연월 | 저자 |
|----|---------|-----|-----|------|----|
|----|---------|-----|-----|------|----|

| | | | | | |
|---|-------|---|------------|---------|-----|
| 1 | | (새로 풀어 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 미다스북스 | 2022.04 | 김승룡 |
| 2 | 고전번역학 | 예원지 : 화훼농사 백과사전1 | 풍석문화재단 | 2022.06 | 김남이 |
| 3 | | 예원지 : 화훼농사 백과사전2 | 풍석문화재단 | 2022.06 | 김남이 |
| 4 | 동아시아학 | 독서한담 : 오래된 책과 현책방 골목에서 찾은 심심하고 소소한 책 이야기 | 휴머니스트 | 2021.12 | 강명관 |
| 5 | | 시민의 인성3,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11 | 김승룡 |
| 6 | 로컬지식학 |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 푸른역사 | 2021.08 | 강명관 |
| 7 | |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 역락 | 2022.02 | 정출현 |

이상의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중 대표 실적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실적 1: 강명관, <제1회 한국 계몽주의 특강_근대계몽기의 공부거리>



1. 일시: 2021년 12월 2일 (목) 16:00~18:00
2.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3. 진행방식: 대면 강연
4. 참가대상: 참가를 희망하는 누구나
5. 주최: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계몽주의와 대한제국기 잡지팀
6. 강연내용: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계몽주의와 대한제국기 잡지팀에서는 한국 계몽주의의 기원과 현재적 논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한국 계몽주의 특강>을 기획하고, 제1회 강연자로 본 교육연구팀의 강명관 교수를 모셨다. 강명관 교수는 「주체없는 근대, 장지연론」(2010), 「국문학과 ‘근대’에 관한 몇 가지 생각」(2015) 등의 논문을 학계에 제출했고,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라는 저서를 통해 “근대전환기의 민족-근대”에 관한 거시적인 담론을 발제하는 등 근대계몽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 강연에서 강명관 교수는 ‘1)전근대-근대로의 교체와 관련된 문제 2)근대 지식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 3)근대전환기 연구의 과제와 연구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의 강연에 따르면, 1)근대로의 전환은 絶對善이 아니다. 전근대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하면서 윤리가 화폐로 대체되었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2)근대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문헌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하고 해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대 지식의 수

용 루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과 제도의 결합으로 어떤 의도를 갖는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진리화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3)결국 고전학자들의 공부는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과거 인문현상을 탐수하여 미래의 삶을 상상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과거 문제의 기원에서 찾아야 한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하는 일은 인간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강연은 오늘날 산업·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대표 실적 2: 김승룡, <동아시아 고전읽기_내 마음의 한시 강좌>



1. 일시: 2021년 3월 12일~5월 14일 (매주 금) 10:00~
2. 방식: 비대면 강연 (김해시 공공예약 포털)
3. 대상: 김해 시민 20명
4. 주최: 김해 율하도서관
5. 강좌내용:

김승룡 교수는 김해 율하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1상반기 동아시아 고전읽기_내 마음의 한시-唐宋詩 강좌>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는 이전 열렸던 <사기열전> 강좌를 잇는 것으로, 강좌의 수강 대상이었던 김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강좌는 2021년 03월 11일(금)~5월 14일(금),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강좌 일정은 3/11~5/24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11~6/15로 진행됨) 강좌의 수강 인원은 20명으로 한정되었지만, 온라인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3. 동아시아 고전읽기 / 당신의 감성을 충전해줄 '내 마음의 한시']

| 연번 | 일시 | 연제 |
|----|------------|---|
| 1 | 2021.03.11 | 내 마음의 한시-(연주시격) |
| 2 | 2021.03.20 | 1)내 마음의 한시-두보, <절구(絶句)> 2)내 마음의 한시-두보, <흥에 겨워(漫興)> |
| 3 | 2021.03.26 | 1)내 마음의 한시-가도, <두가의 정자에 묵다(宿杜家亭)> 2)내 마음의 한시-고섬, <고시랑에게 올린다(上高侍郎)> |
| 4 | 2021.04.02 | 내 마음의 한시-하송, <급제(及第)> |

| | | |
|----|------------|--|
| 5 | 2021.04.16 | 1)내 마음의 한시-소식, <유경문에게 주다(贈劉景文)> 2)내 마음의 한시-여임당, <가을소리(秋聲)> |
| 6 | 2021.04.26 | 1)내 마음의 한시-여대림, <유호조를 보내며(送劉戶曹)> 2)내 마음의 한시-우혁, <편지를 부치다(寄賡)> |
| 7 | 2021.05.22 | 내 마음의 한시-유극장, <매화를 찾다(訪梅)> |
| 8 | 2021.05.24 | 1)내 마음의 한시-장영, <일사에게 감사하다(謝逸士)> 2)내 마음의 한시-황정견, <포지서당에 쓰다(書誦池書堂)> 3)내 마음의 한시-원보, <매화(梅)> 4)내 마음의 한시-양적, <벼루를 구하다(求硯)> |
| 9 | 2021.06.03 | 1)서당의 일상과 풍경(1) 2)서당의 일상과 풍경(2). |
| 10 | 2021.06.15 | 1)내 마음의 한시-두보, <흥에 겨워(漫興)> 2)내 마음의 한시-황정견, <그림 속의 조는 오리(畫睡鴨)> 3)내 마음의 한시-장호, <장미(薔薇)> 4)내 마음의 한시-증뢰, <강가에서 쓰다(江上卽事)> |

다. 대표 실적 3: 정출현, <점필재 인문 아카데미_소놀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 (1)(2)>

점필재 인문 아카데미

근대 전환기 경남 유학의 자존심, 소놀 노상직

일시: 2021년 10월 28일-11월 11일(매주 화, 목요일)

장소: 밀양 예림서원

※수강인원은 20명으로 마감합니다. 문의전화: 055-350-5886

-신청방법: 문자접수(010-4020-8575)(성함/연락처/강의신청(전체 또는 일부) 내역)

| 번호 | 강좌내용 | 강사 | 일정 | 시간 |
|----|-----------------------------------|-----|-----------|-------------|
| 1 | 대놀·소놀 형제가 함께 걸어간 길: 독립운동을 중심으로(1) | 이은영 | 10월28일(목) | 10:00~12:00 |
| 2 | 대놀·소놀 형제가 함께 걸어간 길: 독립운동을 중심으로(2) | 이은영 | 10월28일(목) | 13:00~15:00 |
| 3 | 20세기 한국 성리학의 변천과 유림운동(1) | 곽진 | 11월02일(화) | 13:00~15:00 |
| 4 | 20세기 한국 성리학의 변천과 유림운동(2) | 곽진 | 11월02일(화) | 15:00~17:00 |
| 5 | 소놀 노상직의 출판활동과 『상초집』의 간행(1) | 진병철 | 11월03일(수) | 10:00~12:00 |
| 6 | 소놀 노상직의 출판활동과 『상초집』의 간행(2) | 진병철 | 11월03일(수) | 13:00~15:00 |
| 7 |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1) | 정출현 | 11월05일(금) | 10:00~12:00 |
| 8 |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망명과 접리수생활(2) | 정출현 | 11월05일(금) | 13:00~15:00 |
| 9 | 소놀 노상직의 교육구국실행과 지암서당강학(1) | 이영숙 | 11월09일(화) | 10:00~12:00 |
| 10 | 소놀 노상직의 교육구국실행과 지암서당강학(2) | 이영숙 | 11월09일(화) | 13:00~15:00 |
| 11 | 소놀 노상직의 지암서당, 그 일상과 풍경(1) | 신상필 | 11월11일(목) | 10:00~12:00 |
| 12 | 소놀 노상직의 지암서당, 그 일상과 풍경(2) | 신상필 | 11월11일(목) | 13:00~15:00 |

1. 일시: 2021년 11월 5일(금), 10:00~15:00
2. 장소: 밀양 예림서원
3. 방식: 대면 강연
5. 대상: 김해 시민 20명
6. 주최: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5. 강좌내용:

부산대 점필재연구소에서 주관한 <점필재 인문 아카데미>는 지역 문인/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강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은 “근대전환기 경남 유학의 자존심, 소놀 노상직”이라는 주제로 총 12개의 강연을 기획하였고, 본 교육연구팀의 정출현 교수는 ‘소놀 노상직의 남만주 망명과 접리수생활’이라는 제목의 2강좌를 진행하였다. 정출현 교수는 현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이나 「해외」와 교류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강좌는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인 「로컬지식학」 영역의 직접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본 교육연구팀은 학술연구분야 중 ‘한문학’ 분야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 특성상 우수한 국제화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2~3단계 BK21사업 과정에서 국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기대 이상의 국제화 실적을 거둔 경험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국제활동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4단계 BK21FOUR에서는 집중적·내실화·결실화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방면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평가대상 기간은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봉쇄됨으로써, 실질적인 국제 학술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 교육연구팀은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제화 활동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 「해외에서의 교류 실질화_결실」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국제화 활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중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은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를 연계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해외에서의 교류 실질화_결실」은 미진한 편이다. 평가대상 기간동안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적 학술활동은 아래와 같다.

①-1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김승룡 교수는 2023년 2월 5일에는 포즈난 아담 미츠키에비츠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漢字與漢字教育國際研討會]”에서 ‘「교육실습에서 한자교육과 《2015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사고 : 인성교육 분석[對教育實踐下的漢字教育與《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라는 주제로 참여대학원생[장서희, 김남희, 이단]과 함께 공동발표에 참여하였다. 김승룡 교수는 2023년 1월 7일~8일 사이에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어문학국제학술회의(韓國語文學國際學術會議)”에 직접 참석하여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이때는 학술대회에서 직접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대만 국립정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표54. 평가 대상 기간(2020.09~2019.12)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연번 | 참여교수 | 발표주제 | 국제학술대회명 | 연도 | 장소 | 주최 |
|----|------|-----------------------------------|---------------------------|------|-----|--------------|
| 1 | 김승룡 | 對教育實踐下的漢字教育與《2015教程》的批判性思考：人性教育分析 | 2023 제12회 한자와 한자교육 국제학술대회 | 2023 | 폴란드 | 漢字與漢字教育國際研討會 |

본 교육연구팀은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편이지만, 1-2개의 해외대학·연구기관과 교류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발표하는 소규모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한문고전」이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최근에는 그 대상 국가도 동아시아에서 나아가 유럽까지 넓었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해외학자들과 좀더 활발한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고전학을 국제적·보편적 학문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2023 第十二屆 漢字與漢字教育 國際研討會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 Characters Education and Research



2023年2月2日(星期四) - 5日(星期日)

波蘭波茲南亞當密茲凱大學

2 ~ 5, February 2023 (Thur ~ Sun)

Adam Mickiewicz University, Po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n-Character Education and Research

C

C01 汉字的语法定位与美国大学汉字专题课程设计案例研究 73

姜松 (Song Jiang,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ted States)

C02 对中等教育实践下的汉字教育与《2015 教程》的批判性思考：中学教育实例分析 75

张嘎希 (Jang seohy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Kim namh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李丹 (Li da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金承龍 (KIM Seungry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outh Korea)

C03 古白话词汇特点考探 76

徐时仪 (XU Shiyi, 上海师范大学, 人文学院)

C04 基于用法的汉字习得研究：《国际中文教育水平等级标准》初等手写汉字习得为例 77

吴佩 (WU pei, 河南师范大学, 文学院)

C05 Buddhist Vocabulary in Pre-modern Sino-Japanese Lexicons: Through Text Mining of the Taishō Tripitaka) 79

申雄哲 (SHIN, Woongchul,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Han-Character Education Research)

C06 基于 VLE 平台建构汉语综合课在线形成性评估系统 80

陈开春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Chinese Department)

杜幾天 (DO Tai-Thien,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Psychology Department)

阮氏琼云 (NGUYEN THI QUYNH VAN,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Chinese Department)

王慧仪 (VUONG HUE NGHI,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 Chinese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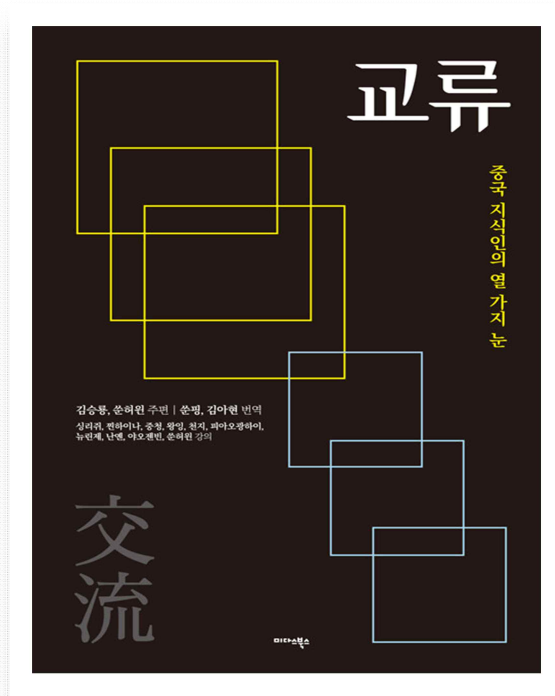
①-2 참여교수의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55. 평가 대상 기간(2020.09~2019.12) 참여교수 국제 공동연구 실적]

| 연번 | 참여교수 | 출판저서 | 출판연월 | 출판국 /출판사 | ISBN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
|----|------|-----------------------|------------|------------------------|--|
| 1 | 김승룡 |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 | 2022.10.31 | 중국/ 베이징대학교 미다스북스 | ISBN : 979-11-6910-090-893300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3964405 |

본 교육연구팀 김승룡 교수는 중국전매대학 교수인 쑨허윈 등과 공동기획하여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미다스북스, 2022.10.31)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가 ‘중국지식인, 교류(交流)를 말하다’란 주제로 특별강좌를 기획하고 개최한 데서 시작되었다. 특별강좌에 참여한 교수 열 명의 강의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중국 근현대 정치·사회·문화·인물·작품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이 걸어온 교류의 과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승룡 교수는 본 교육연구팀장이자 중국연구소장으로서 강좌 및 저서 출간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인 중국인 학생 쑨핑도 역자로 참여하였다.



또 김승룡 교수는 해외 교재편찬 사업에 필자로 참여하여 북경대학교 王丹 교수 주편의 『한국어고급읽기』 교재(북경 外研출판사), <읽기편> 원고를 집필하였다. 이 책은 중국권(대만 포함) 한국어과 대학교수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김승룡 교수는 <감자전의 추억>이란 글을 집필하였고, 이 글은 고급읽기 교재의 원 글로 소개되었다. 이 책은 近刊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본 교육연구팀은 「국내에서의 국제화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 결과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중국 중경의 <四川外大>가 추구하고 있는 통번역과정과 번역교육을 모델로 하여, 우리 연구팀에서는 한국문집번역의 원로이신 김홍영 선생님[2021년 3월 25일(목)]과 조선왕조실록 번역의 전문가이신 정하정 선생님[2021년 4월 1일(목)]을 모시고 번역에 필요한 참고서적이거나 인터넷사이트를 비롯해서 실제 번역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2) 중국 <上海師大>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문헌학에 대한 소양교육을 모델로 하여, 30년간 고문서를 수집하고 연구하신 가톨릭대학의 손숙경 선생님[2021년 5월 6일(목)]을 모시고 고문서의 개념과 고문서 발굴 작업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성과들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 3) 일본 동경의 <二松學舎>에서 추구하고 있는 한문해독과 고전중심의 교육을 모델로 하여, 당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의 장유승 선생님[2021년 6월 10일(목)]과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의 이주해 선생님[2021년 6월 24일(목)]을 모시고 각각 ‘한문고전번역의 대중화’와 ‘중국 고문 읽기와 한국 한문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 4) 중국 <南京大>의 동아시아 문헌수집 및 정리에 대한 성과를 모델로 하여, 퇴계의 문집과 영남의 문집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정석태 선생님[2021년 2월 22일(월)]을 모시고 ‘영남 지역에서의 문집(한문자료) 수집-번역-자료 정리와 연구 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5) 일본 <慶應大>에서 주력하고 있는 지역기반 일본한문학 연구를 모델로 하여,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신 울산대 국어국문학부의 노경희 선생님[2021년 4월 22일(목)]을 모시고 ‘일본 에도시대의 출판과 독서문화’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6) 프랑스 <파리7대>의 파리한국학네트워크 구성과 東洋語大 도서관 古本室의 우수성을 모델로 하여, 파리 이날코 대학에 근무중이신 김대열 선생님[2021년 2월 23일(화)]을 모시고 파리의 한국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학에 대한 유럽인들의 수용양상과 조선 후기(18세기) 외국 문물 수용 양태의 다양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7) <몽골국립대>와 연계하여 해외학자초청특강으로 아시학과(한국학) Ariunbaigali Boldbaatar 선생님[2022년 1월 13일(목)]을 모시고, “한문고전번역 및 한국문학 몽골어번역”라는 주제로 몽골인이 익숙하지 않은 한문고전번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국 학계의 교류와 관심이 필요하며,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 한문고전을 국역하는 사업이 활발해진 성과를 감안하여 향후 부산대(한문학과) 등 관련 기관과의 연대를 구축하여 한문고전의 몽골어 번역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 이상의 성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에는 포함될 수 없더라도, 국제화 실적 달성을 위한 본 교육연구팀의 노력이라 하겠다.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5>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국제 공동연구 실적

■는 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단 참여교수의 국제공동연구 실적임

| 연번 | 공동연구 참여자 | | 상대국 /소속기관 | 국제 공동연구 실적 |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 |
|-------------|-----------|----------|---------------|---|---|---------|
| | 교육연구팀참여교수 | 국외 공동연구자 | | | | |
| 1 | 김승룡 | 쑨허원 외 | 중국/ 베이징대학교 | 『교류 : 중국 지식인의 열 가지 눈』 (미다스북스, 2022.10.31) | ISBN : 979-11-6910-090-893300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3964405 | |
| ※ | 김승룡 | 왕단 | 중국/ 북경대학교 | ■『한국어고급읽기』, 읽기편, 「감자전의 추억」, 북경 外研출판사 간행 예정 | 近刊 예정 | |
| 총 환산 참여교수 수 | | | | 5.6명 | 제출요구량 | 1.4~2.8 |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본 교육연구팀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이 있지 않다. COVID-19 상황에서 學的 교류 중 가장 차단된 것이 ‘인적 교류’ 부분이였다. 이에 본 교육연구팀은 사업 신청 시 준비했던 계획을 전혀 달성할 수 없었다. 이제 세계는 COVID-19의 영향에서 벗어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 교육연구팀은 각국의 대학 및 기관 단체들과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기회를 만들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교육연구팀이 4단계 BK를 준비하면서 세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56. BK21FOUR사업 교육·연구 국제화를 위한 계획과 전략]

| PNU 동아시아로컬리지 [PNU Esat Asia Localledge] | | | |
|---|--|--|---|
| 목표 | 1. 연구 협력대상 초점화: 해외 연구 및 교육의 인적 인프라 구축 2. 참여교수 교류 내실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이해도 제고 3. 공동 교육·연구 결실화: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외국어 논저서 출판 | | |
| | 전략목표 | 국제화 基點 | 실행 방안 |
| 도약 | [동아시아_로컬 지평 확보] -한국학 연구자 학술네트워크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포럼연대 | [PEAL_Network]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 PNU BK교육연구팀 + 프랑스, 미국, 캐나다, 러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증견연구자 연수: 연구년 교수의 장기연수, 해외학자 논문지도연수제 도입 동아시아학 연구방법론의 공유 및 토론: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의 국제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기 학술회의 동아시아 국제연구자포럼: 공동 학술기획 및 교류 지속으로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연구 성과 제출 |
| 기반 | [교육·연구의 국제성 강화] -실질적 국제협력 방안 추진 -전공 및 기반 언어역량 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학자 실질적 공동지도교수제 시행: 지도학생의 박사논문의 해외학자 심사위원 위촉, 공동 논문지도 협력 대학 교환교수 추진: 국제협력 대상 기관에서 직접 아젠다 기반 강좌를 기획 강의 국제수준의 논문작성 지원: 외국어 논문 작성 및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

본 교육연구팀은 2013년 1차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남경대 域外漢籍研究所·日本 天理大 圖書館·臺灣 國立政治大學 韓國文化教育中心·日本 慶應大学 古典教育研究會·프랑스 파리 7대학(Diderot) 등과 교류하면서 국제수준의 학문적 시야와 탈중심적 사유의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실적의 기반에는 한문고전 번역교육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번역역량 향상이 전제되어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런 한문고전 번역역량을 바탕으로 문학을 넘은 전통지식학인 신_지식학을 구축하고, 나아가 로컬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인본적 미래가치의 생산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동아시아」를 「region을 넘어, value의 근거지」로 파악하고, 「학문의 시각」으로 받아들인 뒤, 「세계 동아시아학」과의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도출하는 데서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교육연구팀은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1] 연구 협력대상 초점화: 해외 연구 및 교육의 인적 인프라 구축
- [2] 참여교수 교류 내실화: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 이해도 제고
- [3] 공동 교육·연구 결실화: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외국어 논저서 출판

본 교육연구팀은 동아시아학의 1차 권역인 중국·일본·대만·홍콩·몽골·싱가폴 등과 2차 권역인 미국·프랑스·캐나다·러시아를 포함한 「PNU East Asia Localledge Network, 약칭 PEAL-NET」를 구축하여 한문고전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의 국제적 연대와 확산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 학자 학술네트워크와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포럼을 조직하여 동아시아학 연구방법론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본 교육연구팀의 아젠다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또한 실질적 국제협력을 위하여 해외학자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협력대학에서 아젠다 기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국제적으로 연구성과가 상호소통 될 수 있는 언어지원 체계를 차근차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참여교수는 물론 대학원생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며, 차후 「한문고전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의 국제화를 이뤄, 세계적인 학술리더십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전 세계는 COVID-19의 종식으로 국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남은 교육 기간에 사업 신청 시에 계획했던 국제화 학술활동_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